



6

주 체 89 (2000)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6호

(루계 제 632 호)

## ◆◆◆◆◆◆◆◆◆◆ 차 례 ◆◆◆◆◆◆◆◆◆◆

영광의 날, 경사의 날 .....	4
평범한 녀성로동자의 모습에서 .....	5
평양에 오시였다 .....	6
요영구 풍경화 .....	7
최전선에 보내는 시 .....	17
한달음에 달려가리 .....	19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	20
당이 준 생명 당을 위해 바치리 .....	21
조국과 사랑 .....	21
마지막모습 .....	22
로박사의 모습 .....	23
가림천기슭에서 .....	24
흰눈우에 눈덩이 .....	25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	26
김상오의 시세계 .....	31
명언해설 .....	39
잊지 못할 사람 .....	40
나의 첫시 .....	41

기준 .....	42
감자의 원산지 .....	50
5 시간 40 분 .....	51
가을이 온다.....	60
전호여 너와 함께.....	60
그들이 택한길 .....	61
끝나지 않는 수업.....	66
침묵의 웨 침.....	67
인생길에서 얻은 금싸락 한줌 .....	69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 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 요구.....	70
통일거리 가로수.....	73
복무 .....	74
군모의 붉은 별 .....	79
승냥이가 맨 《금빛넥타이》 .....	80

# 영광의 날, 경사의 날

김선지

이른 아침 펼쳐보는 신문에서  
즐거운 저녁 마주앉는 TV 에서  
아, 우리 언제나 열정에 넘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대할 때면  
우리 가슴 환희로 설레입니다

백두의 기상을 지니시고  
온갖 역경도 웃으며 헤치시는  
장군님의 령도에서  
우리 인민의 마음 온 우주를 안은듯  
희열에 넘칩니다

천만대적도 꺾락꺾락하시는  
명장의 기개로  
백두산에서 천하를 굽어 보시고  
심장을 불태우는 인덕의 정치로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워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신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해마다 6 월이 오면  
우리 더더욱 뜨거움에 젖어  
당중앙창가를 우러릅니다  
20 대의 젊으신 나이에  
당중앙청사에 들어 서시던  
그날의 감격을 되새겨 봅니다

인민들이 나를 지도자로 추천한 이상  
영원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으로 사시겠다고  
이것이 인민이 나에게 준 분공이며  
임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며  
인민이 당해야 하는 고통도  
한몸에 다 맡아 안으시고  
세상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헌신의 천만리를 이어 오신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말기고 가신  
참으로 좋은 우리 인민들이라고  
그 어느 나라 인민보다 피도 많이 흘리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도 수없이 이겨 냈다고  
우리 인민을 사랑하고 내세우는것을  
행복의 전부로 여기시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오직 인민만을 아시고  
인민을 위하시는 혁명의 그 길에서  
일찌기 위인사,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쪽잠》과 《궤기밥》, 《달리는 렬차집무실》  
에서  
수수한 잠바옷차림의 전투복으로  
우리 시대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십니다

진정 역사적인 6 월이 있어  
90 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이겨 내고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로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울린  
우리 인민입니다

력사적인 그날이 있어  
세인을 놀래우며 전진하는  
오늘의 천리마대진군이 있고  
자랑 높은 강성대국래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시고  
혁명의 심장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

력사의 그날부터 우리 인민은  
대를 잇는 수령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체조선의 붉은기로 검은 구름 몰아내고  
세계의 하늘높이 공화국기 휘날립니다

정녕 그날이 있어  
시대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심단결》, 《혼연일체》로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 마련되고  
자기수령, 자기 조국을 받드는  
충성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온 누리에 주체조선의 존엄을 떨치고있습니다

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간직된 6 월 19 일  
이날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의 날  
온 인류의 감사의 날입니다

## 평범한 여성로동자의 모습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9(2000)년 1월 28일 량책베아링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연마직장, 정밀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립직장에도 들리시였다. 이곳에서는 베아링조립작업이 한창이였다. 로동자들은 앞선 공정에서 편속 밀려와 쌓이는 부분품들을 부지런히 조립하고 있었다. 각종 규격의 베아링을 생산해 내는 그들의 일손에서는 불꽃이 이는듯 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완성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고 질이 매우 높다고 치하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생산투쟁을 뜨겁게 고무하여 주시였다.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의 기름 묻은 손을 다정히 잡아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여성로동자가 일하는 곳에 이르시어 걸음을 멈추시였다.

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긴장하게 일손을 놀리고 있는 그 여성은 이 공장에서 애어린 처녀시절부터 일해 오고 있는 기능공이였다. 그는 베아링을 조립하는 일에 어찌나 열중하고 있었는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까이 와계시는줄을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지켜 보시였다.

구슬처럼 반짝거리는 베아링알들을 베아링집에 설치하는 그의 손동작은 재봉바늘처럼 날렵하고 정확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렇게 재빨리 조립하면서 단 한번의 실수도 모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성로동자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손이 기계처럼 날래고 채치 있게 움직인다고, 기능수준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과분한 그 말쑥에 그가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하고 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에 베아링알을 한줌 쥐고있는 그에게 허리를 굽히시더니 미소를 머금으시며 귀속말을 하시듯 이렇게 물으시였다.

《남편생각이랑 아이들생각을 하면 한알 더 들어갈수도 있고 안들어 갈수도 있지 않소?》

친부모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허물없이 던지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여성로동자는 어려움을 다 잊고 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다고 사실대로 말씀 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럴지라고 그의 말을 긍정해 주시였다.

이때 공장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 여성동무를 비롯한 모든 로동자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혁명에 대한 하나의 생각으로 책임적으로 일하였기때문에 한 건의 오작도 없었다고 보고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말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제품은 곧 생산자의 사상의 반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과 생활에서 난관이 한두가지가아니였지만 로동자들은 혁명만을 생각했기에 공장도 이렇게 잘 꾸리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었습니니다.》

아버이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여성로동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볼수록 미덥고 자랑스러운 로동자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처럼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시련과고난속에서도 딴 생각을 모르고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그 하나의 생각만을 하면서 살며 투쟁하는 혁명가들이고 애국자들입니다. 이런 충성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며 우리 혁명의 위대한 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평범한 로동자의 작업모습에서 우리 로동계급의 숭고한 애국열의를 보시고 그의 꾸밈없는 한마디 대답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읽게 되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마다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 온 로동계급처럼 오늘의 어려운 나날에도 언제나 한마음 조국의 번영과 당과 혁명의 리익만을 생각하며 투쟁하여 온 이 공장 로력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장군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은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언제나 충성의 한마음으로 일본일초를 아껴 가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헌신분투할 불같은 혁명열이 이글이글 타번지게 하였다.

# 평양에 오시였다

박련희

《선생님!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오시였어요  
우리 평양에-》

학생들 달음박질치며  
달려와 알리는 말  
우리 평양에 장군님 오셨다고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  
조선의 심장부인 혁명의 수도  
의례히 평양에 계시련만  
어이하여 아이들 이처럼  
기쁨에 차 속삭이는것이나

출장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신듯  
나들이 갔던 어머니가 집에 오신듯  
평양사람들 기쁨속에 주고받네  
《장군님께서 오시였다》

눈 오는 령길 넘으시여 천리  
비바람 헤치시며 험한 길 만리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 그 얼마랴

북쪽의 깊고깊은 산골마을까지  
남쪽의 경계선 관문점까지  
쪽잠과 꿩기밥으로 이어 가시며  
부강할 조국의 래일 가꿔 가시니

평양에 사는 남다른 공지로  
가슴 부푸는 희열속에 살던 우리  
하냥 즐거운 환희 묻어 두고

언제면 언제면 돌아 오실가  
손꼽아 손꼽아 기다렸는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참가자들  
우리 장군님 모시고 사진 찍었대  
대외사업 보시며  
어느 한 대서관성원들과 만나시였대

아마도 평양에 있는 곳이겠지  
제나름대로 웃고 떠들며  
아이들 기쁨속에 주고받는 말  
우리 장군님 언제나  
평양에 계시었으면...  
언제면 그 언제면 편히 쉬시라  
조국의 통일문제, 강성대국건설문제  
곳곳에서 그이의 손길 기다리기에  
우리 장군님 쉬지도 못하신다

출장길에 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시려  
전선길 공장길 농장길 가시는  
아 우리 장군님 그 많으신 일  
우리 어서 덜어 드리자  
열정으로 불탄다 평양사람들  
당창건 55돛을 들끓는 열의속에  
뜻깊게 맞이하련다 더 큰 성과로

그래서 우리 장군님 더 잘 모시리  
충성을 다하여 더 높이 모시련다  
평양사람들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들 마음이어라



## 요영구 풍경화

안금성

## 1

사철 그 모습을 변치 않는 정원수의 자태가 어렵  
꽃이 드러났다. 짧은 겨울해가 떠올리는 불깃한 노  
을이 캄캄하던 밤하늘을 휘뿜히 밝히었다. 깊은 정  
적속에 묻혀 있던 당중앙청사의 창가에도 또 하루  
의 새벽노을이 깃들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사색이 짙은 눈길  
을 창가에서 떼고 새벽 이 시간이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옷깃을 여미며 전화기앞에 마주 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전화로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서 사회주의길로 나가던 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이 다 자본주의복귀의 길에 들  
어선것과 관련하여 적들이 우리 나라에 가해 올 공  
세에 대처할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에 대해 아뢰  
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늘 밤을 지새우며 집무를 보고  
새벽에 정세자료를 연구하여 수령님께 보고 드린  
다음에야 한두시간 눈을 붙이곤 하시었는데 이날은  
그나마도 눈 붙일 시간이 차례지지 않았다. 오후에  
나가 보아야 할 일이 갑자기 생겨 그 시간에 가지  
기로 한 인민무력부장과의 담화를 아침으로 당겨  
놓으셨기때문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1분도 여김없이 오진우원수가  
가 찾아 왔다.

장군님께서 그와 인사말을 건네시는데 누군가 전  
화를 걸어왔다. 송수화기를 드시니 귀익은 총리의  
목소리였다. 밤사이 정무원에서 올려 보낸 문건  
을 보시다가 더 알아 볼것이 있어 아침시간에 보고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한두마디로 끝낼 전화가  
아니므로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든채 의자에 가  
앉으시었다.

오진우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잠시 한자리에 섰다  
가 집무실에 걸려 있는 요영구풍경화에 눈길을 돌  
리고 그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를 받으며 그를 피끗  
살피시고 오진우가 요영구의 태생이고 그곳 혁명  
력사의 체험자이니 저 풍경화에 누구보다 관심이  
크고 추억되는것이 많으리라는것을 생각하시면서  
총리의 보고에 귀를 강구시었다.

아닌게 아니라 오진우는 이날따라 요영구생각이  
깊어져 더욱 그 풍경화에 눈길이 끌리었다.

산천이며 돌이끼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맑은 강  
물이 느물느물 춤을 추며 너른 바위를 넘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뾰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맞은편 강기  
슭의 불탄 언덕에 무성하게 가지를 펼치고 솟은 큰  
구름나무가 겨울철눈꽃처럼 줄기마다에 흰꽃을 활  
짝 피우고 있는것이 근경으로 선명히 안겨 왔다. 그  
뒤의 산자드락에는 사령부를 지키는 호위병인양 아  
름드리 이깔나무, 분비나무들이 위용있게 총총히  
솟아있고 강의 상류가 있는 백두산쪽의 깊숙한 골  
짜기끝으로는 흰구름을 인 파란 하늘이 아스라하니  
먼 원경으로 바라 보이였다.

오진우는 요영구유격구의 《소선대》(소년선봉  
대)에서 생활하던 어린 시절에 자주 찾아 가곤 하  
던 이곳 사령부터의 풍경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울리던 자연의 음향까지 온몸으  
로 느낄수 있었다.

《썉-썉-...》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차게 흐르는  
저 강의 여울물소리를 내놓고서야 어찌 사령부터의  
풍경이라 할수 있으며 《따옥- 따옥-...》 구름나  
무우에 앉아 우짖는 저 따오기소리를 가려 듣지 못  
하고서야 무슨 요영구의 풍경이라 하랴!

그는 그 여울물소리, 따오기소리를 귀가에 되새  
기며 구름나무에 깃든 잊지 못할 사연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그의 눈길은 어느새 불에 그슬은 구름  
나무밑동의 땀질한 상처자리를 어루머듬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그 그림의 오른쪽 아래모서리에 도장  
모양으로 새긴 《고동호》라는 화가의 이름에 눈길  
을 멈춘채 생각에 잠기였다.

이때 전화를 끝낸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그 그림을 걸어 놓으니까 오랜데 알아보는 사람  
은 오진우동지밖에 더 없습시다.》

오진우는 생각이 깊은 표정으로 장군님앞으로 걸  
어 오며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전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 설적마다  
저 풍경화에 눈이 끌리곤 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걸어 놓으신 장군님의 뜻을 헤아려보며 더 없이  
마음이 숭엄해 지곤 합니다.》

《오진우동지,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한생에서 가  
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그곳 요영구에서 활동하  
던 시기였다고 하시였습니다. 더우기 최근 전 쏘련  
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자 자주

저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그 말씀의 뜻을 그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서 요영구의 풍경을 그려 이 방에 걸어 놓게 했는데 화가가 단번에 내 의도에 맞게 그림을 진실하게 잘 그렸더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통히도 요영구 사령부터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고동호라는 화가가 어떻게 요영구를 그렇게 잘 아는지 놀랍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을 잠긴 눈길로 오진우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 동무는 ○○미술창작사에 있는 젊은 화가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 요영구풍경을 방불히 살려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 그 동무 아버지 나이가 지금 오진우동지 나이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점점 의혹에 잠기는 오진우를 지켜보시며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그 동무의 아버지가 한때 요영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미술창작사에 나갔을때 고동호를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고정환은 제 주도태생으로서 어려서 부모를 따라 백두산쪽에 들어와 4~5년동안 요영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맡은 화가의 제일 큰 고충이 유격근거지시기의 요영구의 실지 모습을 알아내는것이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놀랄게도 그때의 요영구풍경을 구체적인 세부까지 생생하게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구름나무에 깃든 사연까지 말해 주었다는것입니다.》

《구름나무 말입니까?》

몹시 놀라와 하는 오진우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화가의 아버지가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유격구들에 착취 받고 억압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 인민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자 일제 《토벌》대놈들이 보름이 멀다하게 쳐들어 와 인민들을 학살하고 집들을 불살랐다. 산천초목도 한두번만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요영구전투를 몸소 조직지휘하시고 거기에 사령부를 두신 다음에야 적들이 그 골짜기로 감히 얼씬하지 못하였다.

어느날 혁명정부에서는 유격대원들의 군복을 지을 목적으로 물감원료로 쓸 구름나무껍질을 벗겨올데 대한 파업을 《소선대》에 주었다. 그때 화가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소선대》에서는 흔치 않은 구름나무를 찾아 헤맬것이 아니라 사령부터부근에 있는 불에 타서 다 죽게 된 큰 구름나무를 찍어 오

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 안개가 뿌얇게 서린 이른 아침 그 나무를 찍으러 무리를 지어 올라갔다.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밑둥을 도끼로 《쿵, 쿵…》 찍고있는데 뜻밖에도 왼쪽 산자락 안풍진 곳에 있는 사령부터휘처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준수한 군복차림의 후리후리한 몸에 싸창을 차고 계시였다. 《소선대》원들을 둘러보는 장군님의 눈길은 천리바깥도 환히 밝혀 보실듯한 이글거리는 영채를 뽐고 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여울물소리를 압도하는 우렁우렁한 큰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동무들! 그 나무는 왜 찍소?》

《소선대》책임자가 그이께 인사를 올리고 사유를 말씀드리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요영구에서 제일 불만한 큰 구름나무를 그렇게 찍어 없애서야 되겠는가, 적 《토벌》대가 집을 불사르면 서른번, 마흔번씩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나무도 살려 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조국땅에는 저런 구름나무가 어디서나 자라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큰 구름나무인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무가 상처를 이겨 내고 가지들에 꽃을 피울수 있게 나무둘레에 흙을 쌓고 물도 자주 주고 도끼에 찍힌 자리에다 진흙땀을 잘해 주라고 이르시였다.

그래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그 나무를 살려내기 위한 일을 《소선대》원들이 맡아 하였다. 이듬해 꽃계절에 동호의 아버지가 거기에 가보니 온 골안이 환해 지게 구름나무의 무성한 가지마다에 꽃이 하얗게 피여 꿀벌들이 왕왕거리고 아름다운 따오기새들이 《따옥, 따옥…》 소리를 내며 나무우를 즐겁게 날아예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혹과 놀라움과 흥분으로 두손을 맞비비며 앉아 있는 오진우를 유심히 살피시며 말씀을 그냥 이어 가시였다.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난 기회에 나는 요영구의 구름나무며 그밖에 생활세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깊은 감회에 잠겨 정원을 거니시며 사령부터앞으로 흐르는 그 강에 산천어가 많았다고, 거기에 있는 불탄 구름나무를 도끼로 찍는것을 내가 말렸다고, 그랬더니 그후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잎을 떨치며 꽃구름을 하얗게 이고 향기를 풍기었는데 온갖 새들이 날아 들어 우짖었다고, 그 나무는 요영구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었는데 요영구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걷히고 인민의 세상이 다시 오자 그곳을 떠 났던 많은 사람들이 구름나무에 모여 드는 새들처럼 모여 들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도 요영구시절을 회고하느라 자신께서 북만원정의 길에 오를 때에 요영구를 비롯한



유격구들에서 역을하게 희생된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그 중에는 유격대초창기에 소대장을 하던 리순국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자녀들이라도 찾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오진우동지, 우리 힘을 합쳐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정일** 동지의 절절한 말씀에 오진우는 심한 가책을 느끼며 말씀드렸다.

《장군님,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제 미처 받들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삭막해졌던 기억이 되살아 납니다. 그때 구름나무를 찍으러 저도 따라 갔었는데 화가의 아버지가 <소선대>원이었다면... 혹시 그가 <염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뽕>이라니, 그런 별명도 있었습니까?》

장군님께서 무척 놀라며 물으시었다.

《예, <염뽕>이 그가 바로 리순국소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리순국은 요영구의 <소선대>원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던 인정이 깊고 용감한 소대장이었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백색구역>에 공작을 나갔다가 늘 배를 곯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염소 한쌍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배고프던 참이라 암염소의 사타구니에 머리를 들이 밀고 젖을 빨다가 수염소의 뿔에 받기위 이마에 주먹같은 혹이 돌아 났습니다. 그래서 <염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선대>원들이 그 염소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날 리순국이 <민생단>루령을 쓰게 된 죄항목가운데는 그 염소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것처럼 기구한 사연을 가진 리순국과 그의 아들을 오랜 세월 망각의 구름속에 묻어 두고 살아온것이 스스로도 놀라운듯 표정이 굳어졌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70여년 인생이 너무도 다난다사하여 그랬는지도 모른다. 잊어 버려서는 안될 두 인간의 화상이 근 60년만에야 되살아 나 오진우는 심한 격세의 느낌과 함께 이름할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오진우의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듣고 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물으시었다.

《그 <염뽕>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별명으로만 부르다 보니...》

《그렇다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화가의 아버지는 고정환인데 그 소대장은 리순국이니 말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오진우는 한동안 말없이 어두워진 안색으로 세월의 갈피를 뒤집는듯 하였다.

《장군님, 제가 잘못 예측했던것 같습니다. 회미하기는 하지만 <염뽕>은 후에 요영구를 떠났는데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있었고 또 화가의 아버지가 <염뽕>이었다면 친구인 저를 왜 아직까지 찾아 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영구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연고자들은 제가 다 보증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듣고 보니 장군님께서도 그 말에 공감이 가시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는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지 않는가. 고정환이 《염뽕》이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일련의 기대와 희망에 못 견디게 매달리게 되는 자신을 느끼시며 장군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었다.

《어쨌든 고정환이 <소선대>원이었던것은 사실이니만큼 그가 <염뽕>이 옳은가 아닌가는 오진우동지가 알아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진우는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그는 혼연히 대답했다.

## 2

보통강반에 봉긋이 솟은 풍치 좋은 안산. 솔이 짙은 검은 눈썹밑의 쌍가풀진 눈을 가늘게 찌프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고동호는 우산처럼 아름답게 가지를 펼친 소나무며 키 높이 자란 목란꽃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들이 흰눈을 함뿔 이고 선 안산공원의 고개길을 넘어 서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다.

정오무렵이었는데 어깨가 쭉 벌어진 탄탄한 몸에 결괏 있게 머리를 올리춘 당비서가 그를 찾았다. 당비서는 인민무력부장이 한 항일혁명렬사의 아들을 찾는 문제때문에 방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면서 동무의 문건에는 할아버지 고인찬이 항일투쟁을 한 기록은 없는데 혹시 동무가 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가 투쟁한 이야기를 들은것은 없는가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무력부장동지가 동무네 부자를 만나겠다고 하오. 그러니 저녁 퇴근시간이 좀 늦어 지더라도 기다려야 하겠소.》

동호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당하여 어안이 벙벙해 진채 화석처럼 굳어 졌다.

(우리 할아버지가 항일투쟁을 하다니?!)

그가 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 고인찬에 대한것이란 요영구가 유격구로 되기 전부터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살기는 하였지만 평범한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유격대를 돕다가 《숙반》 때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다른 말을 들은것이 없었다.

요영구풍경화를 그린 직후에도 사적일군들이 아버지를 찾아 와 요영구에 갇든 귀중한 사적들을 취재하였었다. 그때 아버지가 요영구인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방어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실감있게 말하는 바람에 사적일군들은 물론 동호까지도 아버지가 항일투사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

다. 한 사적일군이 그런 생각을 비쳐보았으나 아버지는 머리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런데 오늘 당비서의 물음을 받고 보니 정말 아버지가 항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투사의 아들이면서도 어떤 곡절때문에 자신을 까발히기 힘들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뒤숭숭한 마음을 누를수 없었다.

저녁때가 꺾 지나 동호는 당비서의 부름을 재차 받고 그의 방으로 들어 갔다.

《오진우동지가 찾소.》

당비서가 전화기를 밀어 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동호가 송수화기를 잡고 조심히 전화를 받는다곤 하자 수화구에서는 석싹한 음성이 흘러 나왔다.

《화가동무요? 어제 아침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동무가 그린 요영구풍경화를 보고 몇가지 물어볼 생각을 했더랬소. 동무의 아버지도 만나 보아야겠구... 그래, 아버지는 집에 계시오?》

동호는 착잡한 심정에 싸여 아버지는 지금 신경통이 심해서 지방의 온천에서 치료중인데 곧 돌아 오겠다는 소식이 왔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오진우는 몹시 실망한 어조로 아버지가 언제쯤 올것같은가 묻고 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동무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구름나무를 찍으러 갔던<소선대>원이 옳은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의 별명이 <염뿔>이란 소리를 들은 적은 없소?》했다. (《염뿔》이라니?)

처음 듣는 소리에 고동호는 어정쩡해 주뭉거리다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한동안 수화구에서는 뭔가 생각하는듯한 거치른 숨소리가 씩씩 들리더니 다시 물어봤다.

《아버지한테서 다른 소리를 들은것이 없소? 어디서 어떻게 살았든지...》

《예, 아버지가 오영구에서 어렵게 살던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집도 따로 가지지 못하고 중국사람네 집에서 동거살이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요? 중국사람집에서 동거살이를?! ...

그래 할머니에 대한 소리는 못들었소?》

《저의 할머니에 대한 소리는 아직까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오진우는 퍼그나 섭섭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돌아 오면 인차 나에게 알려 달라고 그리고 동무는 좋은 그림을 그려 장군님께 올리고 그이를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화가이니만큼 앞으로 일을 더 잘 하라는 고무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안산고개길을 넘어 집에 들어온 고동호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온천료양을 간 아버지의 병세에 차도가 있는지, 오진우가 무엇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지, 분명 아버지는 항일혁명투쟁 연고자인것 같은데 왜 구체적인 가정내막을 받아들이지 않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지 가지가지 의혹이 엉켜 들며 잠을 이룰수 없게 하였다.

아버지 고정환은 고지식한 로인이였다. 자식들을 대바르게 엄격히 교양하면서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랑이나 추억담 같은것은 전혀 들려 주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대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포화를 헤쳐 온 그는 자기 집에 전투실화를 취재하러 온 인민군신문사 기자에게 10여건의 의의있는 전투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자신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그때의 지휘관들, 동지들과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뻐이였다. 너무 겸손한 탓인가. 그렇게만 보기에 는 이해할수 없는 행동과 표정을 고동호는 가끔 육감적으로 느끼곤 하였다.

로인은 집에 들어온 후에도 어떻게 놀면서 쉬겠는가, 더우기 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자 미제를 비롯한 원수놈들이 우리 나라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때에 쌀 한그람이라도 더 생산해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로병농산분조》를 못고 교외의 빈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터였다.

그런 과정에 가끔 얼굴에 떠오르는 깊은 상념과 추연한 회포의 세계, 때로는 피로운 심정과 안타까움이 짙게 실려있는 주름진 얼굴의 그 내막이 무엇인지 동호조차 피로운 때가 많았다. 요영구풍경화를 그린후 아버지도 그것을 요구해서 역시 꼭 같은 것을 하나 더 그려 방에 걸어놓았는데 그후부터 로인의 고민과 심화는 더한듯 하였다. 어떤 때는 아래방에 밥상을 차려놓고 불려도 듣지 못하길래 동호가 아버지방문을 열고 들어 서면 로인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요영구풍경화만 뵈없이 바라보고 있는것이였다. 굳어 진 엄숙한 얼굴표정, 눈물이 어린듯한 뿌옇하게 흐려진 눈... 실룩거리는 입술...아들이 들어 온것도 보지 못하고 식사하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의 무아몽중에 빠진듯한 그 태도... 한참만에야 《공-》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밥상에 다가 와서도 숟가락을 들념을 못하는 아버지의 이상한 태도에 동호는 속으로만 애절하게 호소하곤 하였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예? 이 말아들에게도 말못할 자연이라면 당조직에라도 털어놓아야 함께 아릅니까. 아버님은 무엇인가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당에도 속을 터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터놓지 못합니까. 예?)

아버지가 료양을 간후 고동호의 가슴은 다소 편안해졌으나 오진우의 전화를 계기로 또다시 착잡하게 설레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만 돌아오면 모든것이 밝혀 질것만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 3

김정일동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한 로간부가 급속부른 사업이 걸려 먼 함북도의 제철기지에 나

간 일때문에 그곳 당책임일군에게 그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 줄데 대한 부탁을 하신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때 오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역시 겨우 걸음을 걷는 몸으로 서해전역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기전에 자기가 먼저 하루만이라도 서해쪽에 갔다와야겠다고 사정하는것이였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진우동지야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몸인데 출장이라니요?》

《장군님, 한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하하... 거참, 로간부들이 이러다가 쓰러 지면 난 어쩌라는겁니까. 좋습니다. 래일 늦지 않게 꼭 돌아와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진우가 섭섭해할것 같아 승인해 주셨더니 그는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말하는것이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해지기전에 돌아 올테니 녀려마십시오.》

그다음 오진우는 어제 미술창작사에 전화로 알아본 사실들에 대해 말하였다.

장군님께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심중히 물으시였다.

《그러니 중국사람네 집에서 동거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염뽀>의 생활과 맞는단 말이지요?》

《예. 그때 요영구에서 중국사람네 집에 동거한것은 리순국소대장밖에 더 기억되는것이 없습니다. 화가의 아버지가 오면 제가 직접 만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저도 모르게 요영구풍경화를 바라보시던 장군님의 눈앞에는 갑자기 지난 해 여름 우리 나라에 왔던 왕무엇이라고 하던 중국당일군 휴양단 단장의 얼굴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그는 로년기에 이른 몸집이 좋은 일군이였는데 우리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특색 있는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펼쳐 보이며 자기는 요영구에서 살 때부터 김일성동지를 남달리 존경하고 따랐다고 하였다. 그는 그날 오찬회석상에서 요영구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다 죽게 되었던 자기를 자기 집에 동거하고 있던 마을 착한 조선어머니가 구원해 주고 희생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라도 찾고 싶다고 하였다. 그 아들은 《민생단》으로 몰려 《처단》된 아버지의 일로 본명을 숨기고 살고 왕무엇이라는 가명으로 자기의 친형이 되었는데 요영구를 떠나 흑룡강성 어느 현의 촌락에서 함께 살다가 1949년말경에 조선으로 나가면서 조국에 나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항일혁명을 떠나 중국사람으로 숨어서 산 자기의 죄책을 씻겠다고 하였다는것이였다. 왕단장은 그를 꼭 만나 보려고 대사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때의 일을 더듬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곧 책임서기를 부르시여 지난해 여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중국당일군휴양단 접견보도가 나간 신문을 가져오도록

이르시였다. 가져온 신문을 보니 단장의 이름은 《왕호중》이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오진우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아까 요영구에서 중국사람네 집에서 동거살이를 한 조선인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난해 여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중국당일군휴양단 단장을 만났던 일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도 요영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진우동지와 나이도 비슷한것 같은데 그때 한 조선어머니가 목숨을 잃으면서 구원해 준 중국소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호중이라는...》

《예?!》

오진우의 놀라는 소리였다.

《장군님, 그런 중국소년이 있었습니다.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소년이 <염뽀>이네가 동거한 중국집 아들인데 <염뽀>의 어머니가 그를 구원해주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앞 강가에 벌목한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밑에서 놀던 중국소년이 치이려는 순간 산나물을 뜯으러 가던 <염뽀>의 어머니가 달려 들어 구원하고 대신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과 <염뽀>이가 친형제처럼 된것은 물론이고 중국집아버지는 <염뽀>을 제 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안색이 환히 밝아지시였다.

《그렇지요? 그 왕단장이 왔을 때 오진우동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중이었으니 몰랐을수 있습니다. 왕호중을 구원한 어머니가 <염뽀>의 어머니라면 <염뽀>이 요영구를 떠나 잘못되었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는 1949년도에 조선에 나올 때까지 왕호중이와 한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에...》

오진우의 어정쩡한 대답이였다.

《그렇게 보면 화가의 아버지 고정환을 충분히 <염뽀>로 가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진우동지가 미술창작사에서 알아 낸 고정환의 아버지 이름은 고인찬이니 리순국소대장하고는 성도 이름도 같지 않은 별개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나 나는 고인찬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리순국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다시 말하여 리순국이라는 이름은 고인찬의 가명일수 있다는것입니다.》

《예? 가명말입니까?》

오진우는 련속 놀라기만 하였다. 그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방대한 집무를 보시는 그 바쁜속에서도 오죽 마음을 쓰셨으면 내내 한 렬사에 대한 심려를 놓지 못하고 그런 예감까지 지니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 났다. 오진우는 걱정을 애써 누르며 말하였다.

《장군님, 그럴수 있습니다. 김일이든 본명은 박덕산이 아닙니까. 그때 지하공작상 요구로 가명을 한 투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우는 기쁨과 흥분을 누를수 없었던지 수령님께서 그렇게 못있어하며 찾으시던 리순국의 자손들을 찾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알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였다.

《리순국이 가명인가 아닌가는 내가 직접 수령님께 말씀드려 알아 보겠습니다. 오진우동지는 고정환이 돌아 오게 되면 즉시로 만나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영구시절 <소선대>원들의 상봉이 무척 기대됩니다.》

오진우와의 전화가 끝나자 장군님께서서는 자못 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시며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그러다가 정중히 송수화기를 들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시였다.

잠시후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참 기쁜 일이요. 조직비서가 수고를 했소. 듣고 보니 리순국이라는 이름은 동지들속에서 많이 불려온 가명이 틀림없고 본래의 성은 고가인것도 맞소.》

깊은 회억에 잠긴듯 얼마동안 말씀이 없던 수령님께서서는 돈화지구에서 활동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인 고재봉, 고재룡도 부모들이 제주도태생이었다고, 고가는 본이 하나인데 리순국이기도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오늘까지 자신께서 리순국을 잊지 못하는것은 그가 그 먼 제주도에서 백두산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싸운 제주도태생이라는것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총대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 주고 나라도 해방시켜 줄것이라는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자기의 피눈물 나는 생활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에서 남다른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한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선각자의 한사람이었기때문이다, 리순국은 그후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도 잘하였는데 무기획득때 입은 상처가 도리어 복만원정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요영구에 남아 반일자위대사업을 돕다가 《숙반》지휘부사람들에게 끌리어 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화가의 아버지가 제주도태생이기도 하거니와 요영구《소선대》원이었던 사실 등 여러모로 보아 리순국의 아들이 틀림없는데 그가 돌아 오면 자신께서도 꼭 만나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려사의 아들을 찾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된 일이 못내 흡족하여 오래도록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러면서 고정환이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자기가 항일혁명렬사의 아들임을 밝히지 않고 묻혀 살아 왔겠는가 하는 사색에 잠겨 계시였다. 아버지가 항일렬사임을 숨기고 살아온 고정환, 요영구를 떠나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중국사람으로 살다가 전쟁전해에 귀국한 사람,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이며 오늘까지 씩씩하게 살아온 로병, 결국 한 려사의 아들을 찾는 문제보다 더 심중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문제가 나서는것이였다.

그의 인생행로에 어떤 퍼치 못할 곡절이 있는것일까. 리순국의 《민생단》혐의때문일까.

그이께서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유격구치고 적들의 모략과 암해책동이 가장 극심하고 사람들의 운명이 복잡하게 갈래를 친 곳이 요영구라는것을 잘 알고 계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요영구도 혁명적지조를 지킨 좋은 사람들은 95프로였고 나머지 5프로가 적들에게 리용된 좋지 못한 사람들과고 하시였다.

그래 고정환로병에 대해 그 5프로에 굴러 떨어졌던 사람일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생각이 깊은 눈길로 방에 걸린 요영구풍경화를 보시고 나서 단호히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런 그림을 그릴수 있게 요영구에 갇든 그 귀중한 수령님의 사적과 사령부터의 산천초목을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 그 기억을 더듬어낼수 있으며 아들에게 말해 줄수 있었겠는가. 그가 어떤 씻지 못할 죄를 지어 자기 아버지가 항일혁명렬사인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영구》라는 말조차 비치지 못했을것이 아닌가.

그는 사람들의 땅각속에 묻혀 있던 반세기전의 금옥같은 수령님 사적을 찾아 주고 빛낼수 있게 한 보배와 같은 사람이며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이 대단히 높은 충신이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고정환에 대한 심려를 안은채, 오진우가 이제 그 로병을 만난 사실을 보고해 줄 그 시각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채 이틀후 서해전역에로의 현지시찰의 길을 떠나시였다.

## 4

고정환로인은 오진우가 미술창작사에 전화를 건 때로부터 사흘이 되는 오후에 평양역에 도착했다. 따뜻한 햇빛이 내려 쬐여 눈무지에서 눈석이물이 흘러 길을 적시고 불어 오는 바람결에서도 봄향기가 느껴 지는 립춘날이였다.

작업현장에서 대형조선화창작에 탐구와 사색의 나날을 이어 가고 있던 고동호는 창작사의 승용차를 가지고 아버지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심해 졌을줄이야! 어머니의 등에 업혀 기차승강대에서 내리는 아버지를 본 동호는 가슴이 섬찝했다.

백발의 아버지는 번들거리는 두드리진 이마와 관  
골이 더 커보이는데 여윈 얼굴에서 두눈만 반짝거  
리며 반가운 기색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통키의 아버지보다 한뼘이나 더 크고 몸이 다  
부진 고동호는 아픈 마음으로 갑작한 아버지를 자  
기 등에 업었다. 고정환은 숨웃 입은 아들의 잔등에  
편히 얹혀 개찰구로 나오면서 미안한 어조로 말했  
다.

《심장병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온천이 좋지  
않다던 네 말을 들었어야 할걸 그랬다. 처음 얼마동  
안은 신경통치료가 잘되어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어.  
그래 빨리 돌아 가 일할 생각으로 의사들 몰래 온  
천치료를 무리하게 했더니 심장이 말썽을 일으켜  
이 모양이 됐다.》

동호는 아버지를 승용차 뒤자리에 눕히고 자기  
무릎을 베개삼아 머리를 받쳐 주었다.

《그새 별 일은 없었느냐?》

아버지가 올려다 보며 묻는 말에 동호는 《예.》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에게 심리적충격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안색만 유심  
히 살피던 로인은 차가 역에서 얼마쯤 달리자 다시  
묻는 것이었다.

《네 얼굴이 왜 그렇냐?》

《예? 제가 어떻게 하고 그래요?》

《어디 아프기라도 하나. 몹시 상심한것 같구  
나.》

고동호는 아버지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라면서 그  
동안에 있는 일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는  
우묵하게 들어 간 두눈을 멍하니 뜨고 넓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쳐다보다가 되물었다.

《너 이자 뭐라고 했냐? 오진우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구? 창작사에?》

《예. 그러구 아버지한테 <염뽀>이란 별명이 붙은  
일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뭐, <염뽀>...아!》

로인은 웅얼거리며 부들부들 손을 떨다가 급기야  
의식을 잃었다. 그는 병원침대에서 의식을 차렸다.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를 찾고 있는지 알수 없  
었던 그는 자기의 생이 마감에 이르렀다는것을 느  
꼈던지 침대머리를 지키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리고 안해에게 무작정 집으로 가자고 고집하였다.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며 그를 집에 데려 왔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로인은 자기 방의 맞은편 벽면에 걸린 요영구풍  
경화를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 있는 동호에게 네 어  
머니랑 집사람들을 다 들어 오게 하라고 하였다. 그  
리고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가까이 있는

만이와 막내에게 자기의 머리와 어깨를 좀 일으켜  
달라고 하였다. 동호와 그의 동생이 아버지의 잔등  
과 머리맡에 모포를 접어 편안히 고여드리자 아버  
지는 갈린듯한 음성으로 띠엮띠엮 말하였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고서는 안될, 한평생 속에  
품고...피로워하면서도...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을 죄다 말해야 할 때가 온것 같구나》

《?!》

《만이야! 오진우가 찾는다는 그 <염뽀>이 바로  
나다.》

《예?! 아버지!》

동호가 녀을 잃은듯 아버지를 쳐다보자 고정환은  
숨이 가쁜듯 가슴을 오르내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 가슴에 늘 품고 있으면서도 네게 아직 말해  
주지 못한, 또 쉽게 말해 줄수도 없었던 사실만을  
말해 주련다. 그러면 내가 왜 너의 할아버지가 유격  
대소대장이었다는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가도  
리해하게 될게다. 그러니 명심해 듣거라.》

...요영구에서 고정환이네가 동거하고 있던 중국  
집주인 왕서방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아비  
였는데 마음이 무뎠하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고정환이 열살적에 주인집 아들 호중이가 별목부  
들이 되는데로 쌓아 놓은 통나무들이 갑자기 우에  
서 굴러 내리는 통에 무서운 재난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지나가던 정환의 어머니가 달려 올라가 그  
를 안고 옆으로 피하다가 나무에 치워 참변을 당했  
다. 정환의 아버지는 반일무장대결성사업때문에 늘  
나가살다 싶이 하던 때였는데 왕서방이 정환의 어  
머니의 장례를 치른후 정환이를 자기 자식처럼 자  
기가 키워 줄터이니 정환의 아버지는 마음 놓고 나  
가 일을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정환은 그때부터  
왕서방의 보호속에서 살았다.

정환의 아버지는 그후에도 일때문에 그와 늘 떨어  
어져 있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간고해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1차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신후**  
에는 더욱 살아 가기가 힘들어졌다.

정환로인은 그때의 어렵던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  
가 입버릇처럼 말해 왔기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그때 왕서방이 유격구를 떠나야지 그대로 있다  
가는 굶어죽고 말겠다고 하면서 나도 함께 떠나자  
고 했다. 그와 떨어지면 누구 집에서 살고 그와 함  
계 가면 아버지를 만나기 어렵게 될터이니 어쨌으  
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소선대>에서 나와  
같이 생활하던 오진우한테 그 사정을 말하면서 아  
무래도 왕서방과 같이 떠나야 할것 같다고 했지. 그  
랬더니 오진우는 <우리 유격구사람들이 그렇게 고  
난을 겪고 자기 식구를 굶겨 죽이면서도 이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유격구를 지키고 있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아느냐? **김일성**장군님께서 돌아 오시면 꼭 모든 일이 바로 잡히고 생활도 편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때문이다. 네가 여기를 떠나면 너는 변절자나 같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떠나서는 안돼. 왕서방이 떠난다고 있을데가 없겠니? 나와 같이 있자. 가지 마! ...>하고 불에 흐르는 눈물을 팔소매로 쓱쓱 훔치더구나.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지.》

정환이가 《소선대》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허기진 몸으로 먼길을 갔다 와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잡아 흔들며 깨여 나보니 아버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왕서방이 있는 방으로 건너 갔다. 그리고는 전에 없이 심중한 표정을 하고 말하였다.

《너도 열세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내 말을 심중히 새겨 듣거라.

나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낯설은 이 간도땅에 와서 중국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원수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것은 중국혁명도 도와 주면서 자기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숙반>지휘부사람들은 유격구마다에서 자기 민족과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조선혁명가들을 다 민족주의자로 몰고 <민생단>딱지를 붙여 무참히 살해하고 있다. 나도 언제 잡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자기 혁명대오를 떠날수 없다...》

내 왕서방과도 의논했는데 너는 왕서방을 따라 일시 여기를 떠나거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 잘못되면 그 후환이 너에게도 꼭 미칠게다.

그러니 자리를 떴다가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거든 꼭 찾아 뵈거라. 내 이야기도 말씀 드리고... **김일성**장군님부대에 들어 가 싸우거라. 어느때든 일본놈들이 망할테니 조선이 해방되면 저 제주의 내 고향에 찾아가 일가친척들을 찾거라. 너까지 잘못되면 우리 고씨의 장손줄이 대가 끊어지겠기에 하는 부탁이다.》

그후 고정환은 요영구를 떠나 왕서방의 아들 《왕호산》으로 가명하고 흑룡강성 묵룡현의 한 촌에 가서 부대기를 일구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요영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장질부사까지 걸려 아버지의 부탁대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갈수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나서 그는 그곳에 주둔한 항일련군의 조선동지들로부터 한때 요영구의 사령부에 계시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가치가지의 전설적인 이야

기들을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여 중국보다 먼저 조선을 해방하시였으며 장개석군대의 광란적인 동북지대진출로 퇴로가 막힌 중국인민해방군의 수많은 병력과 간부들을 조선땅을 거쳐 성과적으로 퇴각케 한 사실이며 중국인민해방군에 많은 저격무기와 중무기들 그리고 신발을 비롯한 전략물자들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신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벌린 무분별한 《숙반》의 광풍속에서 조선혁명을 구출하고 조국땅에 해방의 봄을 안아 왔을뿐아니라 해방된 조선을 그토록 높은 평마루에 올려 세우신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존경, 그이를 령수로 모신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터질듯한 환희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에 한마을에서 살던 조선인친구가 조선에 나가 인민경비대에 입대하며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들어 가 써 보낸 편지를 받아 보고는 자기도 조선에 나가 싸울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현당에 찾아가 자기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실토하며 귀국을 실현시켜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당에서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할수 없이 호종이를 내세워 사실을 확인시키었다.

《그렇더라도 잘 리해되지 않소. 부모를 다 잃고 의지할데가 없게 되었어도 그렇지. 조선사람이 중국사람 이름을 가지고 중국사람처럼 행동하며 살 필요까지야 있소. 조선사람이라면 더 위신이 오르겠는데...》

정환은 이 말에 민족반역의 대죄를 지은것만 같은 수치감을 느끼며 얼굴을 붉혔을뿐 진상을 까밝히지 않았다.

그가 더욱 죄책감을 안게 된것은 조선에 나오기에 앞서 요영구에 들려 아버지의 무덤과 사령부터의 흰꽃이 활짝 핀 구름나무를 찾아갔을 때 낯익은 동무들로부터 요영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후 다시 그곳에 모여 든 사실과 자기 또래의 동무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산에서 피어린 영웅적투쟁을 벌린 이야기들 들은데서였다. 더러는 그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희생되었고 오진우를 비롯한 적지 않은 동무들은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여 해방된 조국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반《민생단》투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무죄로 선포된것을 알면서도 혁명가의 아들답지 못하게 제 한목숨을 부지하려고 뜨뜻한 방에 엉치를 붙이고 항일의 력사밖에서 살아 오지 않았는가.

조국을 위해 열백번 죽어도 그 죄를 씻을것같지 못했다.

고정환로인은 정력을 다 모아 말하였다.

《사람의 진속은 제일 어려운 때에 나타나는 법이 나라.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살리자고 요영구를 떠나라고 했지만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또 떠났다고 해도 아버지의 당부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갔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고 믿는 마음이 오진우나 다른 동무들처럼 굳지 못했다. 나는 가장 어렵던 시기에 한발을 잘못 짚어 평생 뗏뗏치 못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에 나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문건을 쓸때 아버지이름을 본명만 밝히고 <리순국>이라는 가명은 밝히지 못했다. 자기 민족과 조선혁명을 떠나 잘못 산 내가 어떻게 항일혁명투사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량심의 가책과 죄의식때문이었다. 지조를 지켜 죽은 아버지앞에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고... 그러한 내 가책과 아픔을 더 심하게 한것은 대를 끊기게 되었던 우리 가문의 운명문제라 할가... 우리 수령님께서 그때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해 주고 조국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 대가정을 이룬 너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될수 있었겠냐. 나를 마감으로 우리 고씨의 장손줄이 대를 끊기우고 말았을것이고 내 자손들인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 나지도 못했을게다. 설사 태어났더라도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했을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요영구시절에 한번 밤을 잘못 내짚은 내 잘못을 가슴 저리게 느끼군 했다.》

동호뿐아니라 그의 온 식솔이 모두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동호는 아버지가 일생 가슴에 품고 피로와한 그 고충이 리해되었다. 그래서 한없이 선량한 아버지가 어딘가 없이 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을 비끼고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환로인은 베개우에 머리를 놓은채 조용히 있다가 다시 눈길을 들어 요영구풍경화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겪은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이 집에 걸어 놓게 했다. 지금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존경하며 따르느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서 남못지 않게 잘 싸우다가도 가장 준엄한 시기에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신뢰심을 가지지 못하고 잠시라도 신념이 흔들린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자격을 잃게 되고 그 자손들까지 피로운 그늘을 안고 산다는

심각한 력사의 교훈을 우리 집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고정환은 두눈에 정기를 모으며 집식구들을 하나 하나 둘러 보더니 이날밤 운명하고 말았다.

## 5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진우로부터 고정환의 사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것은 전선시찰의 길에서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디기 힘드시였다. 얼마나 고심을 들여 찾아 낸 렬사의 아들인가. 수령님께서도 만나 주시겠다고 한 고정환이 그 영광도 누려 보지 못하고 가다니?! 그이께서는 고정환이 치료때문에 료양을 갔다기에 어느정도 안심되어 마음 놓았던 일이 못내 후회되시였다.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오진우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떠염떠염 하는 말이 가슴을 에이는것만 같으시였다.

《그는...돌아 온 그날밤 자식들에게 여태 가슴속에 묻어 둔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운명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받은것은 새벽이었는데 가보니 고정환이... <염뿔>이 뿔았습니다. 특퇴여 나온 이마랑...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리순국의 아들이라는것을 까밝히지도 않고 또 저를 찾아 오지도 않았던 사연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는...》

오진우는 가끔 목이 메이는듯 동안을 두었다가는 뜨직뜨직 고정환이 남긴 유언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연의 내용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례는 무력부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하고 덧붙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맙다고, 오진우동지가 그의 장례식을 의의가 있게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물으시였다.

《고정환로인의 아들들이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둘이 다 전연에 있는데 둘째가 소대장, 셋째가 분대장을 하고있습니다. 빨리 데려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니, 그럴것 없이 직승기를 띄워 데려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령구가 나가기전에 그의 령전에 아버지 고인찬렬사의 항일혁명렬사장을 놓아 주도록 하며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군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념려마시고 전선길에 부디 몸조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마치신 장군님께서서는 해안포구분대를 시찰하신후 바다가로 나가시였다.



썩-썩 세차게 격랑을 일으키며 파도치는 바다. 장군님께서서는 찬바다바람에 머리칼을 훑날리며 얼음장이 서린 바다기슭의 언 모래불우를 걷고 계시었다. 내내 가슴속에 고패치는 고정환의 생각으로 추위도 느끼지 못하시었다.

고정환이 자기 아버지가 리순국이라는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오진우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놀라우시었다.

사실 그는 일찍 렬사의 유자녀로 사람들의 존경속에 살아 올수 있는 사람이였고 또 그렇게 되었어야 했다. 설사 그 어려운 시기 유격구를 떠나 중국 소년으로 가장하고 살았다고 하여 그것을 탓하거나 허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조선민족의 피줄을 이은 조선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선혁명가의 아들로서 하지 못한 짓을 한것으로 한평생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뼈저린 교훈의 이야기로 심어 주었으니 것처럼 솔직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민생단》 혐의로 《처단》된 아버지의 일때문에 생길 후환이 두려워 본이름과 민족까지 잃지 않으면 안되었던 까닭에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고 대가 끊기울번한 자기의 가족을 오늘처럼 변성시켜 주신 수령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슴깊이 고맙게 여긴것이다.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뢰감과 혁명적신념은 그러한 력사의 진실에 대한 체험으로 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가장 공고하고 역센것으로 된것이 아닌가.

고정환이처럼 오늘의 자신뿐아니라 먼 옛날의 자신에 대해서까지 수령을 어떻게 믿고 받들었는가를 순결한 량심으로 돌이켜 보며 령도자에 대한 믿음과 혁명적신념은 순간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생활의 교훈, 혁명의 철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천년만년 후대들에게 귀중히 간직되도록 하고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인민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오늘 얼마나 숭고한 높이

에 이르렀는가를 보여 주는 허물수 없는 산 실체이다.

썩-썩- 파도가 더욱 울부짖었다. 바다가운데 외로이 우뚝 솟은 기암절벽의 락락장송이 태질하듯 몸부림쳤다. 그 모습이 어쩐지 집무실에 걸어두고 오신 요영구풍경화의 구름나무로 련상되시었다.

불에 그슬리고 타버린 구름나무밑둥, 그러나 어떤 재난과 상처도 다 이겨 내고 흰꽃 만발하여 온갖 새들을 불러 온 구름나무의 기상처럼 제국주의 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제아무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미쳐 날뛰어도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리라는 기상이 그이의 가슴속에 산악같이 일어 서는것이였다.

며칠후 평양에 돌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진우를 비롯한 인민군대의 책임일군들이 모인 집무실에서 요영구풍경화를 가리키면서 다시금 말씀하시었다.

《저 그림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요영구의 정신으로 적들의 그 어떤 침략과 봉쇄도 짓부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려는 나의 확고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어려 있습니다. 나의 이 의지와 신념을 더욱 굳혀 준것은 한 항일혁명렬사의 아들이며 전쟁로병인 고정환의 깨끗한 혁명적량심입니다.》

그이께서는 고정환과 그 일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결연한 어조로 이렇게 이으시었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량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한생의 총화로 귀중한 교훈을 후대에 넘겨 주고 간 고정환과 같은 혁명전사들과 인민이 있는 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설사 우리앞을 1930년대 전반기의 요영구 사태보다 더 엄혹하고 준엄한 시련이 막아 선다고 해도 맞받아 뚫고 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야 말것입니다.》

력사의 선언처럼 우리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심장에 새기며 군사지휘관들은 오래도록 요영구풍경화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 최전선에 보내는 시

백익선, 류동호

봄  
대동강에 얼음이 풀려  
기슭에는 애모르게 아지랑이 피어 나는  
새봄

봄이 오니 봄물처럼  
넘쳐 흐르는 생각  
지난 밤 꿈결에 뵈옵던 장군님  
안녕하신지  
이 아침은 그 어디에 계시는지

그이 계신 곳은 아득한 최전선  
지새우며 가시는 천리 또 천리  
고지우엔 아직도 흰 눈이 녹지를 앓았으리  
평양에는 봄빛이 짙어 가건만  
이 마음에는 겨울이 가지를 앓는구나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지금도 바람 찬 최전선에서  
우리 요람 지켜 주는 최고사령부  
내 마음의 나래를 훨훨 저으며  
그이께로 그이께로 가고 싶어라

그렇게 내려쳐 가 그이를 뵈올 때  
산마루 너럭바위우에서 다리쉽 하신다면  
전해 드리고 싶어라  
금수산의 양지쪽엔  
진달래망울이 부풀어 올랐다고  
통라도엔 뽕양계 버들개지 피었다고

어서 알려 드리고 싶어라  
비행기로 태워 온 섬마을의 세쌍둥이  
이 아침  
평양산원에서 첫 웃음을 지었다고...

우리 사는 집 밝은 창가에  
한점 불구름도 비껴 들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 밝은 눈동자에  
그들 들지 말고 무럭무럭 크라고  
세상의 모진 고생 다 겪으시는  
아 우리 장군님

내 아침저녁

안해가 차려 주는 더운 밥을 들다 가도  
가슴 몽클 젖어 들던 생각이여  
너무도 일이 많아 시간이 귀하신 그이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한조각의 가마치로 끼니를 에우시지 않는지  
그런 식사마저 건느시지 않는지

말해다오 오, 말하여다오  
어이하여 어이하여  
대대로 백두산일가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셔야 하는가

나는 수도의 아늑한 서재에서  
그이 계시는 주소도 모르고  
작은 시 한편을 보내 드릴 때마다  
그이는 최전선에서  
내 인생의 보람 행복의 전부를  
그 거룩한 존함에 새겨 안겨 주시었거니

솟음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여  
더운 피 끓고 끓는 이 가슴이여  
그이께로 달리는 불 같은 마음은  
누구도 그 누구도 달래 줄수 없구나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잠 재울수 없구나

한달도 아니고 한해도 아닌  
긴긴 그 세월 천신만고 하시며  
한겹 야전복자락에  
최전선의 눈비바람 다 안고 가시기에  
살들히도 찾아 와 깃드는 이 봄  
나의 집 창가를 떠날줄 모르는 행복의 이 봄

이 봄엔 있었더라  
참을길 없는 곡절도 눈물 겨운 아픔도  
허나 백두령장 위대한 인간에게는  
가장 어려울 때 펼쳐 지는  
가장 뜨거운 노래의 세계도 있었더라

차창밖엔 눈보라 휘몰아 쳐도  
차창안엔 정다운 군인가정의 노래  
고요한 하늘에 별들이 단꿈에 들 때  
차창안엔 준마처녀의 노래  
아 인민을 그리시는 마음의 선물이여

인간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지켜  
황금만능힘의 만능의 추악한 아성을  
랑만의 선물로 뿌리채 뒤흔드는  
장군님의 전선길  
그 길에서 지켜 주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은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힘이 넘치는  
선물의 나라!

그 누가 봄은 강남에서 온다 하였던가  
나의 봄 우리의 봄은  
인민군대의 서리발 총검에 받들려  
전선길의 그 선물에 실려 오거니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강남은  
장군님의 최전선길  
봄은기 날리는 최고사령부가 아니더나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른 봄 눈석이물도 뜨겁고  
애뜻한 봄향기도 뜨겁고  
보통날 하루하루가 류달리 뜨거운 이 봄  
아마도 이러하였으리  
혈전만리 헤쳐 온 북대정자의 그 봄도...

오, 최전선 최전선  
말은 짧아도 가볍게 외우지 말라  
아는가 사람들이여  
보이지 않는 불, 들리지 않는 포성속에  
우리 장군님 막아 나서신 그 전쟁이  
얼마나 가렬하고 처절한것인가를

그이의 위치는  
백두밀림에서 철의 대오를 이끄시던  
만고의 빨찌산 김대장의 그 선두위치  
불바다를 헤가르며 수안보로 질주하던  
백전백승 강철의 령장 김장군의 그 전장

하여, 인민의 마음 달려 가는 곳도  
오직 그 한곳  
이 나라의 남녘로소  
천만 군민이 뜨거움에 젖어  
꿈결에 부르고부르는 노래도  
그날의 그 그리움의 노래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  
...

아 지금은 그 어데 계실가 우리 장군님  
인민의 아버지

언제나 가까이 가까이에서  
문득 다정히 나를 찾아 주실듯  
날마다 시간마다 불 타는 이 가슴

보내다오 조국이며  
전선소식을  
아침에도 또 한밤에도  
기다리노라 조국이며  
인민은 한마음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기다리노라

눈앞에 삼삼히 어려 오누나  
전선길 전선길 달리는 야전차  
구름을 헤쳐 솟은 철령의 굽이굽이  
락원의 구내길 대홍단의 백두삼천리벌  
항일의 피어린 자욱이 력력한  
눈 덮인 백두산 천고밀림의 격전터...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주름 잡는 야전차

그 어느덧 이제는  
만고풍상 다 떠실은 그 야전차가  
그이의 집무실이 되고 서재가 되고  
쪽잠이라도 거기서만 달게 칠수 있는  
그이의 정든 집이 되었던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 가슴은 저리누나  
인민수호의 대격전  
조국수호의 대격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이께  
내 전장길 령장 한가지 더해 드린것 없어...

붓 한자루 총대처럼 쥐고 있는 이 시인  
내 다른것이야 있으랴만  
가장 어려운 나날에  
인민의 마음 담은 시 한편  
정히 최고사령부에 보내고 싶구나  
내 그이께 간절한 심정 아뢰이고 싶구나

장군이시여  
우리 생활에 고난이 많다 하여도  
천만 인민의 아버지로  
혁명의 만단을 헤쳐 나가시는  
장군님의 그 고생에야 어이 비기랴

때로 배 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건만  
우리는 마음속의 고생은 모르고 사나니  
이처럼 어려운 때  
김책, 최현  
그리고 태성할머니, 신포향이 되어  
수령을 받들어 가는  
인민은 말하노라

《장군님!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장군님의 선군령도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원자탄이 두려우라  
억만 채부가 부러우라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필승의 보검을 가졌거니  
그것은 우리의 백전백승의 총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

아, 봄  
전선에서 찾아 온 이 땅의 새봄  
들으라 세계여  
넓어 진 사회주의 새 대지우에  
첫 이랑 번져 가는 우렁찬 발동소리  
이 나라의 크고작은 푸른 강줄기마다에서  
빛과 열이 태동하며 흐르는 소리

도도히 격랑치는 조선의 봄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대하를 이끄시며  
오늘도 우리 장군님 전선길에 계신다  
이 행성에서 우리 인민을  
살아도 제일 행복하게  
살아도 제일 값높이 잘 살게 하시려고  
장군님은 혁명의 최전선에 계신다

아, 화창한 봄  
불 타는 그리움이

하늘 가득 노을로 떠오르는 이 아침  
자욱히 피어나는 물안개를 헤치며  
대동강의 물오리떼 깃을 치며 나는구나  
그 나래우에 내 마음 싣고 평양의 봄을 싣고  
전선으로 전선으로 나래쳐 가고 싶구나

저 멀리 험산고지들이 려련히 이어 진  
전선길의 겨울은 아직 가지 않았어라  
그이의 전선길은 끝나지 않았어라

우리의 이 시도  
그 어느 길우의 차중에서 보시려니  
차창으로는 진눈까비 날아 들고  
산협의 찬바람이 불어 치리

꿈결에도 어려 오는 모습이여  
장군님 그 모습 우리르며  
머나먼 최전선  
그리운 최고사령부에  
이 시를 보내노라!

아, 우리의 시는 여기서 끝났으나  
넘쳐 나는 그리움의 노래여...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  
...

(주체89.4.5)

## 가사

# 한달음에 달려가리

강인숙

한달음에 달려 가 안기고 싶어  
꿈속에도 안겨 보는 그 품이건만  
받아 안은 사랑에 보답이 없이  
그 어이 안기랴 장군님 품에  
아 몇몇한 실적을 안았을 때  
꿈속에서도 안기여 행복하여라

한달음에 달려 가 안기고 싶어  
자나깨나 그러 보는 모습이건만  
조국 위해 내 세운 위훈 없이야

그 어이 달려 가랴 장군님 품에  
아 기쁨의 보고를 안고서야  
그 품 향해 한달음에 달려 가리

한달음에 달려 가 안기고 싶어  
기다리며 그리는 우리 장군님  
아침 저녁 그이만 생각하면서  
날마다 위훈을 새겨 갑니다  
아 그 언제나 그이를 모신다며는  
몇몇이 한달음에 달려 가리라

##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선군정치의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 군인건설자들로 하여금 조국보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게 하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개건된 무지개동굴을 찾으시였던 지난 2월이였다.

동굴입구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중 나온 군인건설자들에게 큰 일을 했다고 하시며 이 공사를 몇년 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공사를 3년동안 했다는 부대장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이 추억 깊은 시선으로 동굴을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승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무지개동굴 개조공사의 첫 삽을 박던 때의 일이 감동깊이 돌이켜졌다.

무지개동굴 개조공사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시기에 시작되였다. 말이 개조이지 사실 웅근 하나의 대형동굴을 새로 건설하는 품에 맞먹는 어려운 공사였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에 그런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며 해당 일군들은 망설이였다.

바로 이런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시기이지만 인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하고 나라의 교통운수를 원만하게 보장할실 웅대한 뜻을 지니시고 무지개동굴 개조공사를 할데 대한 대단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그리고 이 중요하고 거창한 공사를 당의 구상과 의도를 충실히 받아들여 온 인민군대에 맡겨 주시였다.

그때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지개동굴공사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다. 공사의 선후차를 명백히 정해 주시고 공사진척정형에 대하여 수시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나라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풀어 주시였다.

참으로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사와 판

련하여 주신 가르치심만도 무려 수십차에 달하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에게 어서 들어 가 보자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 서시였다.

동굴을 대낮같이 밝혀 주는 조명등들, 그 불빛에 반사되어 이채로운 광경을 펼쳐 놓은 특색 있는 천정장식이며 천연암반처럼 든든한 콘크리트바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사가 질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보기 드문 악조건 속에서 전사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자신께서 몇번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때 어두운 곳에서 병사들이 등불을 켜고 일하는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일하던 모습에 대하여 친히 자신께서 동작해보시였다.

언제인가 전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무지개동굴을 지나게 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군인들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지체하시며 승용차의 전조등불빛을 비쳐 주게 하시였다. 병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차인줄도 모르고 몹시 좋아 하면서 계속 비쳐 달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그때 일을 회고하시면서 무지개동굴을 건설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대단히 고생한다고, 습기가 차고 어두운 곳에서 식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께서 가슴이 아팠다고 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무지개동굴 개조공사를 하는 군인들을 위하여 여러차례 고기를 보내 주시여 푸짐히 먹게 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며 군대에 맡겼기때문에 이 어려운 공사를 빨리 끝낼수 있었다고, 아마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면 달아나고 말았을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새로 개건된 무지개동굴에 비낀 병사들의 자랑찬 위훈을 헤아려 보시는듯 이윽도록 말씀이 없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은 나의 인상에서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것이라고, 전 부대에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줄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무지개동굴안에서는 뜨거운 감격과 격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그 말씀은 군인건설자들의 고귀한 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이었다.

무지개동굴이 명실공히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되도록 잘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이 동무들이 정말 수고 했다고 하시면서 고난의 시기에 후대들에게 물려 줄 귀중한 창조물을 일떠 세웠다고, 이런 일은 오직 우리 군대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뜨겁게 고무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잊지 못하시며 공사에 참가했던 병사들

을 모두 평양에 올려다 식사도 시키고 평양견학도 시킬데 대하여 은정어린 조치까지 취해 주시였다.

정녕 병사들을 극진히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일떠 세운것이라면 천리라도 가시여 그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 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으로 더더욱 빛나는 무지개동굴.

무지개동굴은 이 땅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 세워 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후세에 전설처럼 길이길이 전할것이다.

본사기자

## 가사목록

# 당이 준 생명 당을 위해 바치리

량률

나를 낳은 그 품이 어머니의 품이라면  
내 삶에 영생을 준 그 품은 당의 품  
붉은기 기폭속에 이 몸을 안아 키워  
당원의 참된 삶을 꽃피준 품이어  
아 당이 준 생명 당을 위해 바치리

당의 품에 순직한 충신들의 붉은 넋이  
이 심장과 함께 뛰며 뜨겁게 속삭이네  
값높이 받아 안은 고귀한 그 생명

충성을 다해 갈 때 더없이 빛난다고  
아 당이 준 생명 당을 위해 바치리

순간인들 흐리라 당의 숨결 지닌 마음  
한치인들 헛디디라 당의 믿음 따르는 길  
당앞에 다진 맹세 심장에 되새기며  
불타는 실천으로 우리 당 받들리  
아 당이 준 생명 당을 위해 바치리

## 가사목록

# 조국과 사랑

리성혁

남몰래 움터 나는 새싹이여 말해 다오  
사랑도 너처럼 조용히 움터드나  
어머니 나의 조국 위해 간직한 사랑  
심장속 깊이 고동치여라 아, 사랑은 값높다

진달래 망울 터쳐 봄눈석이 노래할 때  
사랑도 봄 안고 모진 시련 이겼다오

어머니 나의 조국에 바치는 우리의 사랑  
미래를 안고 불타 오르네 아, 사랑은 뜨겁다

천송이 천만송이 꽃향기는 그윽하고  
사랑도 행복의 봄빛 안고 만발하네  
어머니 나의 조국아 영원히 번영하여라  
심장 뿜뛰네 사랑 불타네 아, 사랑은 영원타

## 마지막모습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혁명투쟁은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혈전의 길이었어서 그 과정에 가슴 아픈 희생과 많은 상실의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역사를 펼쳐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 피로움이란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며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 오신분은 없다.

주체21(1932)년 가을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동이 트기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부대를 따라가겠다고 수령님을 찾아 온 김철주동지를 데리고 객주집으로 향하시였다.

이국의 어느 한 못가에 외파로 떨어져 호젓해보이는 자그마한 객주집이였다. 가을바람이 스며들어 방안은 문풍지소리가 궁상스럽게 붕붕거려 더욱 썰렁해 보였다.

방에 들어 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술과 안주를 청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짜늘하게 식은 언두부접시 두개와 그 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를 앞에 놓고 김철주동지와 마주 앉으시였다.

그것을 본 김철주동지께서는 눈물이 글썽해 지시였다. 수령님께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있던 김철주동지께서는 그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시였던것이다.

눈물이 그렇그렇하신 김철주동지의 모습을 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은 무거우시였다.

일찌기 거친 이역땅에서 아버님을 여의신데다가 국내에서 삼촌이 또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여 15년의 장기형을 언도 받았다는 비보를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은 수령님,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님마저 바람 세찬 이국땅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갈대가 처량하게 설령거리는 소사하골짜기에 어린 동생들을 남겨 두고 거치른 복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셔야 하실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머님께서 돌아 가신 때부터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신 수령님께서 그 짐을 나어린 김철주동지에게 넘기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시였다.

그렇스록 언제나 수령님을 위해주고 싶어 지금껏 말없이 진정을 바쳐 온 김철주동지에 대한 추억에 잠기게 되시였다.

사납게 울부짖는 눈보라를 헤쳐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신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김철주동지께서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다루던 하나밖에 없는 보

자기를 기념으로 주던 일, 여름방학이면 객지에서 고생하다 집에 오실 수령님을 위해 김철주동지께서 강가에 나가 고기를 낚아 말리곤 하던 일이며 수령님께서 길림감옥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200리 길을 걸어와 집소식을 알려 주던 김철주동지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집 떠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근심걱정 끼칠세라 앓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시면서도 공청사업을 열정에 넘쳐 해오신 사랑하는 동생 김철주동지이시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김철주동지의 부탁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유격대에 입대시켜 자신의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동생을 보호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시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쌓아 놓으신 안도지구의 혁명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항일혁명투쟁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시키는데 김철주동지께서 한몫 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착잡하게 얹혀드는 아프신 마음을 안으시고 지금껏 마셔 보지 못한 술을 드시였다.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 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 다구. 난들 왜 너를 데리고 다니구 싶은마음이 없겠니. 너를 때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아파서 찢어질것만 같구나. 그렇지만 철주야, 섭섭한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헤어져야 겠다.》

한동안 조용하던 방안에 물기에 젖은 수령님의 말씀이 저력있게 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눈곱이 젖어 드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못내 괴로와하시는것을 보시자 자신의 짧은 생각을 스스로 돌이켜 보며 멀고 먼 혁명의 길을 가시는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렸다는것을 알고 눈물속에 술을 마시였다. 그리고는 수령님을 따라 나오시였다.

이른 아침 쌀쌀한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계시는 수령님곁에 다가서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알겠어요, 형!》라고 하시며 그이의 손을 소리없이 잡았다놓았다. 이렇게 바람 부는 이국의 하늘 아래서 서로 서운하게 헤어지신것이 동생의 마지막모습으로 될줄 우리 수령님께서 어이 아셨으랴.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흐르도록 가슴아픈 추억을 남긴 이 날을 잊지 못하시여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그 음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그날 내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놓고가던 동생의 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잡아 주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였다.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어 주었더라면 동생은 스무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일찌기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헤여 지는 김철주동지에게 아버님의 유언대로 간악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 위해 역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신 김철주동지께서는 그후 안도공청구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시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키시였으며 아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연합

전선로선 관철에서 특출한 공적을 쌓으시였다.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다가 애끓은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시였다. 이렇게 되여 아버이수령님께서 량강구의 어느한 객주집에서 보신 김철주동지의 모습이 마지막모습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가슴 찢어 지는듯한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가슴깊이 묻어 두시고 오직 조국과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생과 시련을 겪으시며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였다.

정녕 이 땅에 넘치는 오늘의 행복과 기쁨은 애국 애족의 숭고한 일념으로 한생을 불같이 사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무한한 헌신성으로 이룩된것이다.

그것은 오늘 만경대혈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굳건하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무궁하리라.

본사기자

## 로박사의 모습

리진철

사색의 그 많은 밤들에  
반나마 희어진 검은 머리는  
탐구의 머나먼 그 길에  
이제는 은발로 날리고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마다  
퍼지던 허리는  
탁상등밑의 굴절을 더듬으며  
또다시 굽어 지고...

허나 등은 굽었어도  
탐구자의 낮은 오늘도 쫓쫓하다  
머리는 백발이여도  
사색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청청하다

보아라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마지막실험을 다그치는 로박사  
제자들의 두뇌를 티워 주며  
설계도면앞에서 설명을 이어 가는 모습  
아 그 얼마나 열정에 넘친것인가

아름다웠어라  
또 하나의 창조물을 부둥켜 안고  
아이들 웃음같은 깨끗한 미소를  
주름 덮인 얼굴에 짓던 그 모습  
젊어 질 조국을 그려 보는 백발의 그 모습은...

아 고심의 나날 쌓이던 피로움은  
가슴속에 깊이깊이 묻었으리  
로박사의 아름다운 미소는  
조국땅우에 성실한 탐구의 자욱 새겨 가는  
보석같은 그 마음 꽃을 피운것이리

이밤도 로박사는  
탁상등밑에 허리를 낮추며  
사색의 나래를 펼치여 간다  
강성부흥할 조국의 키를 솟구며  
끝나지 않을 탐구의 길을 걷는다

아 마치도 그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듯이

# 가림천기슭에서

-보천보전투 승리 63 닢을 맞으며-

김윤철

곤장덕 넘어 아득히 비껴 간  
창창히 밝은 조국의 하늘아래  
한줄기 푸른선을 진하게 그으며  
오늘도 줄기차게 굽이쳐 흐르누나  
가림천, 내 고향땅의 력사의 강

내 오늘 감회깊이 강기슭에 서니  
물안개를 젖은 버들방천에서  
황철나무향기 그윽히 풍겨 오고  
여울을 뛰어 넘는 세찬 물소리  
가슴에 노래를 가득 채워 주는데

내 마음속 깊은곳을 흔들며  
척척...들려 오는 발자욱소리  
마침내 하늘땅을 장엄히 구르며  
걱정의 물결되어 심장에 울리는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아 보천보의 화불 타오르던 그밤  
《김일성장군님 만세!》의 환호성에  
온 삼천리가 진동하는 그밤에  
내 어머니의 치마꼬리 잡고  
유격대원들을 바래왔거니

잊을수 없는 그날 그밤  
그렇게도 간절히 따라가고만 싶던  
강기슭에 높이 올린 발자욱소리여  
장군님 따라서 붉은 기발 휘날리며  
산너머 멀어져 가던 대오의 발자욱소리여

그날 그밤에는  
굽이돌아 령너머 멀어져만 가더니  
그날 그밤 그 시각부터는  
귀가에, 가슴속에 더 가까이만 들려 온  
투사들의 씩씩한 그 발자욱소리였더라

하여 내 언제나 강기슭에 살면서  
백두의 머리우에 높이솟아 빛나는  
장군별을 우리려 마음속에 그리며  
나리꽃 불 타는 강기슭 딸기숲에서  
꽃별을 헤이다 잠들기도 하였거늘

그때마다 나를 찾아 나온 어머니

얼굴에 젖은 밤이슬을 닦아 주며  
백두산을 우리려 오래도록 서 있을제  
그 어머니의 빛나는 눈동자엔  
이슬 아닌 눈물 그득히 고였더라

그날의 어머니와 아들의 눈동자는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살던  
이 나라 인민들의 신념의 별이였고  
그 별은 해방된 조국의 하늘에 빛날  
찬란한 별무리의 그 하나가 아니었던가

정녕 복받은 그 별무리속에서  
빛나는 충성의 별이 되기 위해  
내 그날부터 오늘까지  
반세기를 하루같이 따라 왔어라  
선렬들의 대오, 혁명대오의  
그 거룩한 발자욱소리 심장으로 들으며

오, 가림천, 가림천 력사의 흐름아  
내 오늘 너의 기슭에서  
더 높이 들고 있다, 나만이 아닌  
이 나라 인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충성의 자욱자욱 력사우에 새기며  
대오따라 진군하는 발구름소리를

지금 보고 있다 너의 세찬 흐름우에  
물결이 아니라 대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꼭 같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의 향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행군해 가는  
혁명대오의 거창한 흐름을

통일된 삼천리 조국강토와  
강성대국의 공산주의 새 아침을  
한어깨에 떠메고 한심장에 품안고  
사상도 숨결도 하나로 맞추며  
신념도 투지도 하나로 다지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 따라  
용진용진 나아가는 자랑스런 혁명대오

30년대 투사들의 뒤를 잇닿아 선  
우리의 불패의 혁명대오는

력사의 강 가림천아 너처럼 줄기차게  
 너처럼 맑고 너처럼 변함없이  
 장군님따라 혁명의 한길 가고가리라  
 백두의 행군길 다그쳐 가리라

오, 가림천 가림천아 너는 정녕  
 조국의 먼 북변기슭에 흐르는  
 내 고향땅의 작은 강줄기 아니라  
 영광 빛나는 혁명대오의 숨결 실고

이 나라 한복판을 사철 굽이쳐 흐르는  
 조선의 강

이 세상 사람들의 심장을 다 적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수호자들의 대오  
 투쟁과 삶, 행복과 희망의 노래 실고  
 세기의 한복판을 용용히 굽이치는  
 영원한 혁명의 흐름이여라

## 흰눈우에 눈덩이

김윤걸

밤새 소복이 쌓인 흰눈우에  
 좋아라 떠들썩  
 눈덩이 굴러 가는 아이들아  
 찬바람속에서도  
 즐거움에 빨강게 타는 그 손들은  
 너무 흥겨워  
 너희들의 고운 심장이 튀어 나온것이나

그래 그 눈덩이도  
 무얼 만들어  
 기쁨에 온몸이 단거냐  
 벗어 던진 털모자밑에선  
 깨끗한 흰눈이 녹는구나  
 너희들의 행복 무르녹는구나

행복에 겨운  
 땀젖은 이마에선  
 이 한겨울에도 김이 물물  
 봄의 아지랑이마냥  
 너희들의 꿈이 피어 오르는구나

그래 귀여운 아이들아  
 한껏 웃어라 밤새 뛰놀거라  
 좀 추우면 뭐라니  
 어려운 고난속에서도  
 장군님 입혀주신  
 그 고운 솜옷만 덮지 말어라

그리고 멈추지 말렴  
 행복의 그 눈덩이  
 너희들의 그 맑고 청정한 웃음  
 세상은 굽이 많고  
 세월은 시련 많아도  
 너희들의 행복의 그 눈덩이 커만 지라고

조국이 힘 합쳐 굴러 주지 않느냐

온갖 시련속에서도  
 너희들 앞에서 웃음만 짓는  
 이 나라 어머니들이  
 작으면서도 굳센 어깨 들이 밀어  
 굴러 주는 눈덩이다

꼭 조인 허리띠  
 사랑으로 팽팽히 하며  
 높이 쌓아 가는 석탄산으로  
 탄부아저씨들 떠밀어 주는 눈덩이다

눈덩이다  
 봉쇄의 사슬을 끊으며  
 견인량보다 몇십배 더 짐을 싣고도  
 기세 좋게 달리는 기관사 아저씨들  
 용기백배 기적소리 그 기세참으로  
 굴러 주는 눈덩이다

그래 무어나  
 예쁜 너희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렇게 좋아 웃고 떠드는데  
 티검불같은 봉쇄가 다 무어나  
 핵폭탄, 핵잠수함  
 미제국주의가 도대체 다 무어나

아, 흑한속에서도  
 맑고 청정한 아이들의 웃음 실고  
 흰눈우의 눈덩이는 커만 간다  
 아이들의 꿈이, 행복이 덩실덩실 굴러 간다  
 사회주의를 떠받들 창창한 미래를 안고  
 아이들의 웃음이 굴러 간다  
 조국의 웃음이 굴러 간다

##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심오한 형상

김선일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존엄 떨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하는 불패의 기치로 되고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됨으로써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의 이정표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가 담보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한 격동적인 현실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순결한 량심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권정웅)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던 첫 시기인 1960년대중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몰아치는 수정주의역풍을 맞받아 헤치시면서 조선혁명을 전환의 궤도에 올려 세우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의의 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수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바로 반영한 혁명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참된 길을 밝혀 준다.

그러므로 수령형상문학에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풍모를 그리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게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결

한 인간적풍모에 대한 형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가고 있는 소설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은 무엇보다도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공산당선언》이 나온 후로부터 보아도 공산주의사상리론의 발전력사는 약 100년간이나 된다.

그 기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멀리 전진하여 왔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사상의 발전도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중엽에 이르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적용》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다. 특히 현대수정주의는 수령의 권위와 업적을 허물고 이른바 《시대의 변화》를 떠들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데로 나가고 있었다. 현대수정주의의 위험성은 리론상, 학술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행동으로까지 번져지고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 공산당, 로동당안에 분파가 생겨 옥신각신하게 되고 사회주의나라들은 행동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하면서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그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책을 탐구해 나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라는것을 보여 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면서 주체사상이 온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임을 확신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먼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100년사상사총화를 발기하시고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다.

작품에서 유능한 작가들인 엄한정, 원시준, 리종화 등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산주의 100년사상사에 대한 연구토론을 심화시켜 나가시는 장면들은 참으로 심오한 철학세계로 펼쳐 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산당선언》을 통해 로동계급의 수령의 출현을 발견하시고 《자본론》

을 통해 수령을 받드는 혁명가의 태도와 립장에 대하여 도출해 내신다. 그리고 《고타강령비판》을 통해서 수령의 혁명사상에서 리탈할 때 혁명투쟁은 위기와 극절을 겪게 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 내신다.

그리하여 100년사상사총화 중간단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론증하시어 주체적인 수령론을 내놓으시게 된다.

소설은 이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수령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타당성 있게 밝히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론을 내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심오하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그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수 없는 뛰어난 시대감각과 예민성, 과학적탐구와 정치적판단에서 특출한 대담성을 지니신 천재적인 위인이심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소설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수령론을 리론상으로만 밝히신것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토대하여 엄연한 진리로 확증하신것임을 밝히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철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속에 들어 가시어 자기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에서 자신의 탐구방향이 옳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신다.

더우기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안에 있었던 우연분자, 기회주의자들의 정체를 낱알이 밝혀 내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전진도상에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이 궁극에는 수령론에 귀착된다는것을 해명하신다.

소설에서는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과 외교일군인 허담, 항일혁명투사들이며 군사일군들인 오진우, 오백룡, 제철소 로장인 유상철 등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인 흠모심과 충성심을 감득하시며 위대한 전환의 기치를 마련해 가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숭엄하게 형상하고 있다.

전연구분대 방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진우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 있었던 리봉준 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혁명의 수령에 의해 시작되고 수령에 의해 령도되며 수령에 의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수령중심론을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간직하시는 내용,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 당원증과 함께 간직했던 어버이수령님의 초상사진을 꺼낸 《아바이전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인민의 삶의 목적과 의의를 헤아리시는 내용,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제철소에 오시어 로동자들과 만나시었던 자리를 자기 운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제철소 로동계급에게서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는 내용 등 소설은 풍만한 형상화폭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수령론이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

해서도 명백히 확증된 진리임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한결을 더 나아가 리론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된 수령론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과연 어떤 불멸의 의의를 가지며 그 거대한 공적은 무엇인가를 밝혀 냄으로써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력사적전지에서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시하신 수령론을 받아 안은 엄한정박사의 격동된 내면심리세계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다.

《수령론! 그것은 인류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발견이다.

물론 력사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

… 그러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 의의를 명철하게 정식화하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영명하신 **김정일**동지이시다!

수령론! 이 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공산주의 리념으로 온 인류가 살아 가게 될 그날까지 그 가치와 의의가 확대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맑스에게는〈자본론〉이 있다. 레닌에게는〈제국주의론〉이 있고 **김일성**동지에게는 주체사상론이 있다.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수령론이 놓인다면 인류는 그 개개의 짐검돌을 디디고 정확하고도 안전하게 자주성의 새 세계로 건너 갈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것은〈공산당선언〉맨끝에〈만국의 로동자는 단결하라!〉라고 했던것처럼〈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자!〉라고 결구에 적어 놓을수 있는것이 다.》

이처럼 소설은 리론과 실천, 력사의 과거와 오늘, 미래에 대한 철학적묘사를 통해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고 인류 자주위업완성의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에서는 주체의 수령론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군건설, 경제사업과 문학예술부문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이룩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당시 우리 당내에는 국제적으로 불어 치는 현대 수정주의역풍이 이리저리한 형태로 밀수입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일부 야심가들이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외곡말살하려는 책동이 우습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당사업은 주선이 명백치 못하고 좌왕우왕하고 있었다.

문학예술부문이나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실들도 엄중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아가서 당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소설은 이러한 실태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꿰뚫어 보시고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을 빛나는 형상적화폭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 하시는 평양시민들의 생활문제를 풀기 위해 몸소 뺄스도 타 보시고 식료상점과 농장에도 나가시어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시는 과정에 당사업에서 주선이 명백치 못하고 당사상사업이 왕창같은데서 헤매고 있음을 간파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형상은 그이의 예리한 판단력과 높은 정책적 안목을 보여 주면서 뛰어난 령도자의 품격을 살려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은 주체적인 수령론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을 여러 인물선과의 관계속에서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전상환과 조직지도부 부부장 문춘선에게 당의 창건자, 령도자는 곧 수령이다. 때문에 우리 당안에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수령의 혁명사상, 오직 이 하나만이 있어야 한다고 힘 주어 말씀하신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결심과 단호한 조치가 있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그 어떤 풍랑도 헤쳐 나갈수 있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우리 당건설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들을 제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은 참으로 가슴 뜨겁게 안겨온다.

《오늘은 내가 혁명을 해 오다가 제일 통쾌한말을 듣게 되는구만. 대찬성이요. 28년도에 제명당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공산당의 본보기가 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돌격대가 되면 혁명을 한 보람이 있을거요. 그것은 필요한 거구 또 능히 가능한거요. 그렇게 하거요. 그러니 조선로동당이란 합선은 이제야 영명하고 대답한 타수를 만난 셈이요. 이제는어떤 풍파도 이겨 내고 목적지에 무사히 가닿게될거란 말이요. 아주 통쾌하오, 통쾌해!...》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말씀인가.

철의 론리와 담대한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한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만족과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한 굳은 확신은 크나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설은 이외에도 외교부문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 나고 우리 문학예술은 새로운 혁명문학, 수령형상문학으로 발전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일당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의 군대로 강화되게 되었음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또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성과적으로 건립되고 제철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터에 대형유화관을 일떠 세우게 된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소설은 이와 같은 여러 사건과 사변들을 통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의 서막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은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그들의 운명을 따듯이 보살피 주시고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의 위대성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품모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소설에서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단순히 인정상의 문제로가 아니라 수령론에 기초하여 해명함으로써 형상의 유기적통일을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과오를 범한 일군들의 사상적병집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서의 리탈에서 찾고 그들을 따듯한 사랑의 품에 안아 손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는 주요인물들인 전상환과 천세봉과의 관계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낸 전상환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 안고 어엿한 당일군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그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업하지 못한 결과 적지 않은 결함을 범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자기의 과오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대신 대오

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을 아시고 가차 없는 비판을 들이대신다. 허나 그이의 심중에는 혁명전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으니 이튿날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며 비참한 과거사도 들어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갈 동지로 굳게 믿어 주시는 모습은 크나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전상환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한몫 하는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된다.

소설은 작가동맹위원장 천세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동료작가들도 미처 알아 두기 힘든 작품진척정형도 다 료해하시고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분, 그가 위병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건강에 해로울수 있다고 하시며 자그마한 생활세부까지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는 다심하신분,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수 있는 작가적준비를 갖추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분, 작가가 창작상 과오를 범하여 고민에 빠졌을 때에는 친히 만나보시면서 창작에서 범한 과오는 창작을 통하여 시정해야 한다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의 치료를 위해 외국료양까지 조직해 주시는분, 이러한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작가, 당의 작가로 성장할수 있었으며 새로운 혁명문학이 태어날수 있었음을 소설은 감동 깊게 밝혀 내고 있다.

혁명전사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의식을 잃은 허담을 살려 내는 장면에서도 뜨겁게 형상되고 있다.

머나먼 외국러행의 길에서 평양으로 돌아 오던 허담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료일군들도 어쩔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타까이 그의 이름을 몇번이고 부르고 부르신다.

그러나 좀처럼 반응이 없자 그이께서는 그가 절대로 잘못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가슴에 손을 눌러 대시며 《허담이! 눈을 뜨시오. 김정일이 왔소.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고 헤어 저야 할게 아니요. 허담이!》라고 웨치신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 났다. 허담은 그이의 존함이 들려 오자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것이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다.

자칫하면 영영 일어 나지 못할번 했던 혁명전사를 기적적으로 살려 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믿음

과 사랑의 세계의 숭고한 높이가 있음을 소설은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연극단 연출가 리형걸과 엄한정의 딸 엄영심과의 사랑은 찬서리를 맞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거창한 사상리론 활동을 벌려 나가시는 그 분명한 속에서 엄한정의 얼굴에 비낀 그늘속에서 가정내막을 헤아리시고 몸소 리형걸과 엄영심의 참된 사랑이 꽃피어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베푸신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한창수와 김명옥에게 뜻깊은 선물을 보내주시고 전상환을 직접 보내시여 축하해 주도록 하신다.

이외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진우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돌려 주시며 학자들의 건강을 각근히 념려해 주시는 장면 등은 그이의 숭고한 동지애와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사회적정의는 영명한 지도자에 의하여 수호된다는 진리와 함께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것을 단순히 인정상문제가 아니라 당적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를 감동깊게 밝혀 내고 있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품모는 아버지수령님과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사상과 품모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예술적으로 밝히는데도 힘을 넣고 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넘겨 받으시는 장면, 김정숙어머님의 마지막유언을 들으시는 장면 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품모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무한한 헌신성이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이룬다는것을 밝힌것은 작품이 달성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전환》은 다음으로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높은 예술적품위를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소설의 예술적품위를 담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심오한 철학성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력사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다 위대한 철학자였다. 수령은 종래의 철학사상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



운 철학사상을 내놓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삼는다.

수령의 사상리론활동은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철학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리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도 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수령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 있게 펼쳐보여 형상의 철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에서는 100년사상사총화를 통하여 주체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사상리론활동을 주선으로 세우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활동이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심오하게 형상되었다.

그리고 선행한 맑스-레닌주의 사상리론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폭넓고 심오하게 분석되고 있음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력사의 위인들과의 대조속에서 깊이 있게 밝혀 지고 있다.

하여 소설은 절세의 수령을 맞이한 우리 혁명의 영광, 민족의 행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수령형상창조의 원칙적요구와 고유한 생리에 맞게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심도있게 보여주고 있다.

복잡다단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혁명의 제반 실태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는 심오한 사색세계,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두고 깊이 료해하시고 옳바로 이끌어 주기 위해 마음 쓰시는 체험세계 등은 절세의 위인의 고결한 품모를 보다 가슴 뜨겁게 감득할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받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오늘의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감동깊게 펼쳐보임으로써 형상적의의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눈 내리는 어느날 밤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가 있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을 호위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쓰시었다. 항생을 그렇게 살아 온 어머님이시다. 적탄이 비발치는 항일전의 나날에나 그리고 해방이 되어 반동들이 살판치는 그 삼엄한 속에서 호위에 호위를 계속하시었다...

그런데...그런데 이 **김정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 ...수령님을 호위하는것이란 신변의 안녕을 지키는것과 함께 당,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게 보위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명실공히 수령님의 의도대로 당이 꾸려 지고 활동하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실태는...

그이께서는 뜨거운 입김을 내뿜며 결연히 고개를 드시었다.》

참으로 의미깊은 묘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이의 고결한 품모와 사상정신적원천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 내고 있는 이러한 묘사는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인간학적품위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 해결에로 조화롭게 묶어 세우면서도 력사적사실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다루어 내고 있으며 철학적사색과 풍부한 지성이 숨배인 묘사로써 형상의 품위를 돋구고 있다.

작품은 허담, 오진우, 천세봉과 같은 력사적인물들을 설정하면서도 당시의 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모든 사건, 사실들을 실재한 력사에 맞게 그리면서도 오늘의 견지에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수령론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밝혀냄으로써 작품의 력사문헌적성격을 살려내면서도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사상정신적략식으로 되게 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어울리게 철학적사색이 깃든 언어묘사를 통해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고 풍부한 지적내용을 담고 있다.

심오하고 풍부한 철학적내용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소화하면서 세계적인 명인들의 일화, 명제뿐아니라 고사까지 능란하게 활용한것은 작품의 인상을 한층 돋구어 주고 있다.

맑스가 즐겨 인용하던 단테의 명제나 손자의 병법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상식적인 자료들을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해명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형상의 품위를 돋구어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전환》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투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는 의의 있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것이다.

## 김상오의 시세계

김성우

한 시인의 시세계를 이 짧은 지면에서 다 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인간 세계 전체를 논한다는 것이며 그의 무한대한 시의 바다에 비쳐진 시대와 생활 전체를 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바다물을 다 마셔 보아야 바다물이 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수평선 너머 그 끝까지 가 보아야 바다가 넓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위력은 높은 사상이 고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 데서 생겨 난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상과 고상한 정서로 차넘치는 김상오의 시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 소원과 투쟁

사람을 알려면 그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 소원에는 그의 모든 녀과 열정이 비끼고 그의 사상과 인성미가 담겨 있다.

김상오는 사람이라면 웅당 누구나 지녀야 할 가장 인간적인 소원, 가장 평범한 소원을 지녔던 사람이었다. 1950년대말 김상오의 세번째 시집 《아름다운 기슭》이 출판되었다. 그 시집의 후기에서 시인은 이렇게 썼다.

《...언젠가 한 평론가는 나의 시<소원>을 비평하면서 시인의 소원들이 불과 반년이나 1년 후에 벌써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써 나를 비난한 적이 있었다. 나는 깊은 만족감으로 그 비난을 읽었다. 시인의 소원이(즉 인민의 소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반년이나 1년 후에는 벌써 이루어 지는 그러한 나날, 그러한 시대에 시를 쓴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평론가들로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그 시를 한번 읽어 보자.

나의 소원은 사람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아이들의 두볼이 항상 금강알처럼 붉고  
토끼처럼 즐겁게 뛰놀고 장난 쳤으면  
모든 녀인들이 늙지 않고 젊어 졌으면

나의 소원은 늙으신 나의 부모도 동네 어른도  
오래오래 사시고 여생이 즐거우시고  
지상에 정말로 극락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고 살아 보시었으면

나의 소원은 웃기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이웃집 분이에게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으면  
다만 시집을 가도 안방에는 들어 앉지 말고

소원대로 직포기를 다섯대 더 다루었으면

아이 없는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기고  
아들 없는 나의 친구에게는 옥동자가 생겨 났으면  
그리하여 집집마다 웃음소리 더 높아 지고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해를 잊지 못하였으면  
...

이렇게 이어 지고 또 이어 지는 시인의 소원은 말 그대로 평범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과연 그 소원이 《반년이나 1년 후에》 다 이루어 질 그런 것인가. 그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그런 소원을 가져야만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평론가는 물론 줄릴 했지만 김상오도 너무 서둘러 만족해 하였다. 이 소원들은 결코 반년이나 1년 후에 다 실현되는 그런 평범한 소원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참된 인간이라면 한생을 두고 영원히 간직해야 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소원이며 그 하나하나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의 시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자. 그 소원들은 평범할지언정 속되지 않고 작은 것일지언정 가볍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인간-김상오였다.

시인 김철은 김상오를 회고하는 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정직하고 성실하였다. 시가 진실하고 사람이 진실하였다. 허세란 전혀 모르는 청렴한 선비, 그런가 하면 옳다고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를 모르는 강자이기도 했다.》

김상오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난 말이 모자라거든. 고운 건 곱다 하고 미운 것은 밉다 하고 그저 그렇게 쓰오. 남의 뛰어난 재간을 흉내 내는 능력도 없단 말이야.》

김상오는 자기가 평범한 소원을 가졌기에 가장 인간다웠고 말이 모자랐기에 가장 진실하였으며 남의 재간을 흉내 낼 줄 몰랐기에 가장 독창적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또 그만치 그의 생은 힘들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의 생의 꽃시절은 이 평범하고도 지극히 인간다운 소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두운 세월 속에 흘러 갔다.

그는 주체6(1917)년 7월 5일 해주시 구제동의 빈곤한 하급사무원의 가정에서 태어 났다. 그가 들은 첫 노래는 침울한 파도소리였고 그가 호흡한 첫 대기는 습기 찬 해풍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어린 동심에 비쳐 든 고향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바다는 어두웠다...  
린광처럼 번쩍이는 물이랑에  
촉촉히 해기 서리고  
물결이 소리 없이 밀려 와도  
검푸른 암벽이 흐느꼈다.

삭풍에  
굽이쳐 달린 산맥이 울고  
갈매기도 날지 않는 해변에  
눈이 내릴제

인민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길렀다...

-서정시 《바다》 중에서-

소년의 마음에 안겨 온 침울한 눈물의 바다... 그래서 김상오는 고보시절 10대의 어린 나이에 어두운 바다가에 비쳐 든 한줄기 해살을 쫓아 반일지하조직에 들어 갔다. 백두산바람이 이 수양산기슭, 어두운 바다가에도 불어 오기 시작한것이다. 그것은 어린 김상오의 가슴에도 한점 불씨를 던져 주었다.

그러나 주체22(1933)년에 일제경찰은 조직성원들과 함께 김상오의 팔목에도 수갑을 채워 해주경찰서로 끌고 갔다. 그는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70여일만에 5년간의 집행유예로 출옥하였다. 그사이에 《불온사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고보 3학년에서 퇴학 당하였다. 그후 그는 일제경찰의 감시와 간섭밑에 일정한 직업에도 얻어 볼지 못하고 무직자의 류랑생활을 하다가 끝내 고국을 하직하고 이국살이를 하였다. 일본과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고달픈 3년간의 방랑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전후에 그가 시인 김철에게 통달 삼아 이야기했다는 다음의 일화에 그대로 비껴 있다.

《나도 한번은 배가죽이 두터워 본적이 있었다오. 친일파는 아니였는데 도교에 갔었지. 공부 좀 해보려구. 돈이 있다. 그래서 우유배달을 했지. 우유 받아 먹는 집들에서 대문가에 꽂아 둔 우유병을 들어가지 않는 때가 많았는데 하루에도 그런 집들이 서너집은 됐거든. 그렇게 남는 우유, 신 우유는 다 내 차지였거든. 늘 신 우유 배불리 먹는 덕분에 배가죽이 푹푹해졌던가 보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소. 뜨내기 류랑아 망국노, 앵이...》

이 고달픈 나날에도 늘 고향바다는 그를 따라 다니며 떠나온 조국의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는 자기의 창작수기 《바탕과 계발》에서 이 시절의 체험을 집약화하여 이렇게 썼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항시적으로 부딪치는 민족적차별과 멸시, 고달픈 하바닥로동과 헤여날수 없는 빈궁의 편속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때 두고 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 버릴수가 없었다...》

끝없이 다감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던 김상오는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 모든 울분과 분노의 그리움을 그 무엇으로라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처음엔 음악을 선택했다. 그러나 자기 말마따나 바이올린을 살 돈이 없었다. 고향바다를 그림에 담을 미술공부도 생각했다. 그러나 역시 화구를 장만할 힘이 없었다. 철필 한대, 종이 한장이면 되는 시... 그래 시를 써 보자. 그래서 한줄 두줄 시를 써 보기 시작했다.

그의 첫 시들은 어두운 바다, 습기 찬 해풍이 들려 준 비애의 노래였다. 《삭풍속에서》.. 제목 그대로 삭풍에 우는 수양산의 노래, 기쁨보다도 쓰라림이 더 많은 구슬픈 청춘의 노래들이 울려 나왔다.

그는 3년후 조국으로 돌아 와 순전히 자습으로 의사검정시험을 치르고 구강의사로 일했다. 이런 그에게 운명적인 행운의 날이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파견하신 공작원들이 구월산과 벽성지구에게까지 나와 김상오에게도 손길을 뻗었던것이다. 이미 고보시절부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 동지로 되었던 민덕원이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공작원들과 손을 잡고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꾸리는 맹활동을 벌리면서 김상오를 잊지 않고 불러 주었다.

드디어 시인은 혁명가가 되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겼다. 그의 가슴에서 무겁게 뒤척이던 울분의 바다는 찬란한 태양의 해발을 받아 세차게 뒤설레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8.15해방의 새날이 왔을 때 그날로 동지들과 함께 공산당 도당결성준비에 나섰고 이틀후인 8월17일에 도당결성식을 가졌다. 글 잘 쓰는 김상오는 선전부에서 일하면서 도당기관지 《자유황해》의 주필로 사업하게 되었다.

《자유황해》! 노예의 사슬을 풀어 해친 고향 바다 황해를 마주 하고 시인은 노래를 터쳤다.

바다여!  
이제 너는 너의 몸뚱이를  
마음껏 뒤척여라! 솟구쳐라!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산마루에는  
자유의  
우리 기발이 펴려이지 않는가!

없었던 너의  
장쾌한 노래를 불러라  
나는 언제까지나 서 있고 싶다  
동트는 수평선을 향하여

아침을 향하여  
우리의 청춘을 향하여!

-서정시 《바다》 중에서-

해방전 조국, 시인의 심장속에서 잠자고 있던 열정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어두운 바다가 웃음을 짓고 잃었던 장쾌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웃음, 그 노래는 순탄하게 이어 지지 못하였다.

해방의 그날로부터 한달밖에 지나지 않은 9월 16일 간악한 계급적원수들이 당과 공청사무실을 습격하여 민덕원을 비롯한 핵심성원들을 랍치하여 끌고 가다가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총을 들고 놈들을 추격하던 김상오는 산속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동지들의 시체를 찾아 냈다. 온밤 붉은기를 덮고 누운 동지들곁에서 그는 솟구치는 피눈물을 붓에 찍어 조시를 썼다.

나의 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대들은 누워 있다  
안타까이 불러도  
내마음이 통하지 않는 저쪽에  
그대들은 조용히 누워있다

그대들의 뜨거운 피로  
붉은기가 한층 더 붉게 타는 밤  
총소리 멎은 정적속에  
나는 그대들옆에 앉아 있다

무엇이 일어 났다고  
나는 믿어야 옳은가  
그대들의 육체가 분해를 시작하고  
고귀한 관념이 이미  
그대들의 머리를 떠났다고  
사랑하는 동무들아  
나는 믿어야 되는가?  
...

사랑하는 동무들아  
밤하늘에 핀 찬란한 불꽃처럼  
피자 다시 스러진 그대들아  
그뒤에 따르는 아름다운 새벽을  
어째서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대들의 시체를 넘어  
밝아 오는 아침을 향하여 가리라  
어떠한 힘이 가로 막는다 해도  
머무르지 않으리라  
다음 동무의  
또 그 다음 동무의  
귀한 피 흘려서 앞을 막는다 해도  
그래도 머무르지 않으리라

나는 또  
울지도 않으리라  
기다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모든 원수들을 쳐부신 뒤  
사랑하는 대지에 홀린  
그대들의 피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  
그날 비로소 나는  
목놓아 울리라  
...

-서정시 《그대들 피자옥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중에서-

이 시는 동무들의 권고로 다음날 영결식때 고인들의 령전에서 읊어 졌다. 시인자신이 후날 이에 대하여 《나는 시를 쓴다는 생각으로 쓴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말을 하지 않는 동무들과 나는 나의 마음속의 말이였다》고 한것처럼 이는 그 어떤 《시적기교》도 찾아 볼수 없는 《마음속의 말》 그대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시라고 부른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김상오는 이렇게 시를 쓰게 되었다.

평범한 소원이 그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으며 투사로도 만들고 시인으로도 만들었다.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인민의 소원을 심장에 고이 지닌 사람이었기에 어두운 세상에도 타락하지 않았고 백두산 바람에도 민감하게 호응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지켜 피 흘려 싸우기도 했던것이다. 참된 인간은 투사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의 입당년월일은 주체34(1945)년 8월 17일이였다. 10월 10일은 아직 54일이 남아 있었다.

## 사랑과 증오

아름다운 소원은 아름다운 사랑을 낳는다.

김상오는 한생을 두고 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소원을 변함없이 간직하였으며 그 소원이 안겨 준 열정과 힘을 다 바쳐 인간을 사랑했고 인민을 사랑했으며 조국을 사랑하였다.

이 시인의 시집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면서 우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랑하고 것처럼 열렬하게 사랑하고 것처럼 모든것을 사랑할수 있었던 시인의 고결한 심장앞에 고개 숙이게 된다.

그는 어머니와 안해와 아이들을 사랑했고 고향 바다와 풀과 숲, 해빛을 사랑했다. 청춘을 사랑했고 미래를 사랑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녀성이야 드물라  
지혜 있고 교양 높은 녀성 또한 적으로  
사람들은 찬탄하여라 좋은 말들로

황홀하고 매력 있고 훌륭하거늘...

허나 안해여, 내 그대를 무슨 말로 노래하랴?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보았노라  
아름답다고? 매력 있다고? 훌륭하다고?  
아니, 이는 모두 너무 번쩍이는 말들이여라  
-서정시 《안해에게》 중에서-

용서해다오, 처녀들이여  
만약 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허물없이 그대들과 통을 하고  
지못게 그대들의 모습을 눈길로 쫓았다면  
만약 내 즐겨 그대들과 어울려  
이 밝은 웃음소리를 그리도 듣고 싶어 했다면  
이는 모두 가버린 나의 청춘에의 그리움  
꽃피는 그대들의 청춘에의  
부러움 섞인 사랑이었나니  
탓하지 말아다오  
시대가 나에게 준 특권  
늙어서도 늙지 않는 나의 권리를  
고백하노니  
나는 그대들을 사랑했노라  
그 젊음 그 아름다움 그 발랄함을  
그리고 금빛 노을처럼 찬란한 그 미래를  
나는 사랑했노라 그대들을 조국처럼  
그렇다, 조국처럼  
조국의 딸들인 그대들을 사랑했노라!

-서정시 《청춘》에서-

무수히 인용할수 있는 이런 시구절속에는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 세상 좋은 말들을 다 찾아 놓고도 《이는 모두 너무 번쩍이는 말》들이라고, 자기의 사랑을 보다 더 진실하게 더 소박하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그 인간세계속에, 《늙어서도 늙지 않는 나의 권리》로 처녀들의 《그 젊음, 그 아름다움, 그 발랄함을》 사랑했다고 웨치는 그 고백속에 진실한 사랑의 열도가 있고 빛이 있다.

그가 무엇인들 사랑하지 않았으랴. 그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었다. 《고향의 바다를 향하여 서서》, 《잊지 않으리라 작은 숲이여》, 《고향시초》,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시》, 《참된 삶이 태어나는 집》... 어느 시편을 보나 사랑! 사랑의 노래들이다. 그의 이 모든 사랑은 조국이라는 한마디 말속에 응축되어 있다.

뜨거운 심장 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서정시 《나의 조국》 중에서-

그렇다. 사랑은 심장을 요구한다. 헌신을 요구한다. 사랑은 사랑하는것을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것을 요구하며 그러면서도 끝없이 행복하고 궁지로운 여기에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할줄 아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것이다.

사랑은 그만치 증오를 낳는다. 김상오는 심장을 바쳐 사랑한 그 모든것의 원수들을 누구보다도 격렬히 증오할줄 알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문고편으로 출판된 자그마한 그의 시집 《증오의 불길》에는 그가 얼마나 원수들에 대한 사무친 증오를 안고 살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 주는 증오의 시편들이 담겨 있다.

민들레 핀 논두렁가에  
날개 부러진 폭격기 한대  
그결에 마치 잘못을 사과하듯이  
코를 땅에 박고 옆드린 시체

우리 조선사람은  
죽은 사람을 나뻐 말하지 않는  
판대한 도덕이 있다  
그러나 모리스 올리센-미국비행사여  
나는 너의 시체우에  
침을 배알올테다

-서정시 《증오의 불길로써》 중에서-

사랑이 명백한것만큼 증오도 명백하였다. 사랑이 강렬한것만큼 증오도 강렬하였다. 김상오의 시들에는 뜨뜨미지근한것이 없고 애매몽롱한것이 없다.

전후에 그가 쓴 시들인 《나의 도시를》, 《불길, 힘, 찬란한 래일...》 등을 읽어 보면 그가 얼마나 《나의 도시》 평양을 사랑했으며 그것을 새로 일떠세우는 복구건설장에서 《불길, 힘, 찬란한 래일...》을 보며 얼마나 궁지로와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나는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으리라마는  
응당한 찬사를 사양하지도 않으리

-서정시 《나의 도시를》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토록 겸손하고 허심한 인간 김상오가 자기가 사랑하는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처럼 떳떳하였다.

아마도 그의 일생의 총화작이라고 할수 있는 서정시 《나의 조국》은 그의 거세찬 사랑과 증오의 열풍이 온갖 어지럽고 추악한 모든것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깨끗하고 아름다운것들만을 다듬어 일떠세운 사랑의 기념비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서정시<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한 우수한 작품으로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 있게 형상한 본보기로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은 시가 많지만 서정시 <나의 조국>처럼 조국애를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훌륭히 노래한 작품은 흔치 않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사랑은 어느때나 아름답게 평가되고 보람 있는 결실을 주는것은 아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김상오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한 사람은 흔치 않았다. 사랑때문에 투사가 되고 시인이 되었다. 사랑때문에 울고 사랑때문에 웃었다. 사랑은 그의 온 생명이였다.

이 헌신적인 사랑이 그에게 안겨 준것은 무엇이었던가. 조국을 사랑했다고 하여 일제는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자유를 사랑했다고 하여 반동놈들은 그의 동지들을 빼앗아 갔다. 시를 사랑했다고 하여 음모군들은 그의 붓을 꺾어 버렸다. 그의 사랑이 참되게 꽃피 나고 열매 맺은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자주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정치적생명을 지켜 주고 빛내준 그때에야 가능하였다.

하기에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 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다.

...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릿이 젖어 드는것이나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 와

너를 안는것이나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랴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때 품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

이렇게 흘러 나가는 시는 조국땅우에 굽이친 두 제도의 력사와 조국을 위해 바쳐 진 눈물과 희생의 화폭을 거쳐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마련된 모든 소중한 삶의 환희에 대한 격동적인 묘사를 주고 있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 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 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이 시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을 써왔으므로 여기서 더 길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조국은 수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심오한 철학이 참으로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감정을 타고 힘있게 안겨 오고 있는것이다. 시인은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였으며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조국은 나에게 내가 잃었던 모든것을 찾아 주었고 내가 바라고 지향하던것, 내가 꿈 꾸던 모든것을 이루어 주었다...』

조국은 그가 한생을 두고 간직해 온 그 평범한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었다. 그가 사랑하는 모든것이 그 조국의 품에 있었고 조국은 그의 사랑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조국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그는 사랑할수 있었고 사랑으로 행복할수 있었다!

## 《리치》와 창조

누군가 말한적이 있다. 《리치에 맞지 않게 사고할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창조할수 없다.》

사고력역이 상식의 네 담벽과 보신의 천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자체도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웃을수 있다. 그러나 먼저 부연하고저 하는것은 이 말이 인류과학발전에 하나의 대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전환적계기를 마련한 과학자의 말이라는것이다.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 인류지성의 보물고에 그 무엇인가 새것을 보태준 사람, 남의것이 아닌 제것으로 세계를 더 아름답게, 더 풍요하게 가꾸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은 늘 범속한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리치에 맞지 않게》사고한 사람들이였다. 김상오도 그중의 한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때문에 그는 한때 귀중한 정치적생명까지 잃고 14년이상이라는 긴 세월을 농토에 묻혀 살아야 했다.

우리는 그의 네번째 시집 《나의 조국》에 실려있는 서정시 《천리마동상》을 다시 읽어 본다. 무난한 시이다. 졸작이라고 할수 없다. 하지만 김상오의 시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범상하다.

해가 솟는 동쪽을 향해 나래를 활짝 펼친 천리마우에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높이 쳐들고 로동자, 농민이 앉아 있다. 태양을 향해 동쪽으로 천리마는 난다.

시상은 웅건하나 어쩐지 안타깝고 허전하기 그지 없다. 더 말할것이 있었겠는데... 김상오라면 웅당 더 파고 든 독창적인 창조의 세계가 있었겠는데... 그저 그뿐이다.

이 범상한 시가 그의 운명을 양지에서 음지로, 아니 삶에서 죽음으로 급전환시킨 뜻밖의 사건에서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고 그 누가 생각할수 있겠는가.

주체52(1963)년은 김상오에게서 운명적인 해였다. 자기나름의 《리치》에 맞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천리마동상》을 비롯하여 이무렵 그가 쓴 시들에 수정주의풍이 있소, 부르조아냄새가 풍기오 뭐요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물론 그 근처에는 순결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어 온 충직한 작가들을 당의 품속에서 떼어 내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간교한 모략이 깔려 있었다.

주체35(1946)년 1월 어느날 시인은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 갔던 일이 있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반공모략책동으로 당시 해주시의 정세는 험악하기 그지 없었다.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해주시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해방전부터 백두산바람을 쏘이고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받들어 희생적으로 투쟁해 온 이곳 혁명전사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김상오에 대해서도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그가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조국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감격을 안고 방에 들어 섰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며 들고 계시던 신문 《자유황해》를 펼쳐보이시면서 이 사실을 주필동무가 썼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사실로 말하면 그가 써서 세번에 걸쳐 연재한것으로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정치적으로 옳게 분석판단하고 방향도 옳게 정하고 사실을 잘 썼다고 치하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해주지구의 복잡한 정세에 대하여 물어도 보시고 앞으로의 과업도 밝혀 주시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는 해주시군중대회에서 채택할 문건과 보도기자를 직접 쓸데 대한 임무도 주시었다.

너무도 뜻밖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크나큰 신임과 가르치심을 받게 된 김상오는 걱정에 넘쳐 붓을 달렸다. 그가 쓴 글을 받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 두 글자만 고쳐서 그대로 비준해 주시었다.

몇달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직접 평양에 새로 선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제1기생으로 불러 주시었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부주필로 임명하여 주시었다.

그뒤 현역작가가 되어 10여년...그가 틀어 켜 혁명의 필봉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 주신 신념과 의지가 담긴 사랑과 증오의 시편들이 련이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단 하루도 운명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잊은적 없었고 그가 쓴 모든 시, 그가 부른 모든 노래들에서 수령님의 의도를 정확히 담기 위해 노력을 아끼적 없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땅 청산리를 현지지도 하시고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안아 오시였을 때는 가사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써서 그 크나큰 은덕을 노래 불렀고 북청확대회의를 몸소 소집하시고 온 나라에 과일풍년의 기적을 펼쳐 놓으셨을 때는 가사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써서 그 크나큰 은정을 칭송하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이 맑고 뜨거웠기에 음모군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것처럼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 정치적으로 보면 것처럼 순결하고 대바른 사람에게 루명을 들썩을 구실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비렬한 모략의 발톱을 걸 언터구리를 찾아 낸것이였다. 그것은 그의 시가 점점 더 모가 나게 다듬어 지고 류다르게 물 들어 간다는것이였다.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 발견되였다.

이 시기 그의 가장 가까운 벗의 하나였던 김형직 사범대학의 한 로교수는 당시의 김상오를 생생히 추억하고 있다. 문득 찾아 온 벗앞에서 김상오는 언제나처럼 새로 쓴 시를 읽어 주었다. 《천리마동상》이였다. 시는 그 독특한 시상과 자유분방한 환상, 대담한 표현과 심오한 철학으로 벗을 매혹시켰다. 《종구만!》이 한마디밖에 더는 하지 못하는 감동된 벗앞에서 시인은 웃고 다음은 울었다.

《이건<수정주의>시라는거요!》

《?...》

시는 완고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리치》에 맞게 수정되고 잡지에 무난히 나갔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가 그 시이다.)한편 뒤에서는 역시 《리치》에 맞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그의 문건을 파보고 있었다. 《리치》에 맞지않는 개소들이 많이 발견되였다. 《공산주의자》라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것을 사랑한...



얼마후 김상오는 입당년월일이 주체34(1945)년 8월17일로 되어 있는 당원증을 벗어 놓고 붓마저 빼앗긴채 곡산으로 내려 가 농토에 묻히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9년후 그가 쓴 자서전에는 이때의 심경이 이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뿐이다. 그러나 이 두단어속에서 우리는 모든것을 가늠할수 있다.

해방의 그날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날리며 《장쾌한 노래》를 불렀던 바다는 다시 어두워졌다. 물결이 소리없이 밀려 와도 검푸른 암벽이 흐느끼고 갈매기도 울지 않는 해변에 눈이 내렸다. 것처럼 열정적으로 뒤척이며 숫구치며 사랑과 증오의 노래를 부르던 시의 바다는 잠들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산골의 농민이 된 시인의 그후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은 김상오의 시세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일부 사람들이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그의 창조의 리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김상오는 철학적사색이 깊은 시인이고 그의 시는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지성도 높은 시이다. 그의 시의 높은 지성세계는 시인의 깊이 있고 독창적인 철학적사색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김상오는 먼저 상식을 말한다. 다음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로 독자들을 인도한다. 상식의 울타리, 현상의 껍데기를 벗기고 독자앞에 드러난 새로운 철학적세계앞에 우리가 끝 없는 황홀감에 잠겨 있을 때 시인은 그것을 다시 부정하고 그너머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는 진주보석의 주단우로 독자를 이끌어 간다.

그의 서정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읽어 보기로 하자. 이 시의 시적계기는 한 작업반장이 조국해방전쟁시기 갈라진 자기 작업반원의 누이를 찾아 주기 위하여 무수한 편지를 썼을뿐아니라 무려 174개의 인민반을 직접 찾아 다닌 소재이다.

백일흔네번째만의 인민반에서  
당신은 드디어 찾아 댔습니다.  
당신의 동무 박송하의 누이를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지금도 그냥 들려 옵니다  
백일흔네번째  
백여든네번째  
백아흔다섯번째...  
무쇠망치같은 당신의 주먹이  
가만가만 두드리는 소리  
굵다란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 부드러이 부르는 소리  
《여보시오, 문 좀 여시오. 문 좀 여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벌써 리홍렬영웅이 174번째의 인민반에서 동무의 누이를 찾아냈다는 이야기 가 아니다. 과연 174번째의 인민반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끝났는가. 아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 온다.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가. 무슨 문을 두드리는가. 누구를 찾아 무엇을 찾아 끊임 없이 두드리는가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대화가 진행되고 독자앞에는 새로운 철학세계가 펼쳐 진다.

아닙니다. 당신이 두드리는것은  
그 어느 집 문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누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따뜻하고 커다란 사랑을 불러  
당신은 끊임없이 심장의 문을 '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는 들읍니다  
나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나는 문을 엽니다  
해살 퍼진 봄의 들판으로 열어제깁니다  
나는 나섭니다  
...

시는 더 계속된다. 시인의 사색은 계속된다. 그러면 내가 문을 나선 해살 퍼진 봄의 들판은 어디인가. 이제 거기서는 어떤 삶이, 어떤 사랑이 나를 기다리는가...

이 시에서 보는것처럼 시인은 끊임없는 사색적침투력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진리의 문을 열고 전진하다가 더 그것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것을 찾아 낼수 없으면 비로써 시를 결속한다. 이것이 김상오의 시에서 찾아 보는 고유한 문체적특징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련속되는 물음이 많고 련속되는 부정이 많다. 묻고 묻고 묻고 대답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결론하는 이 집요하고 끈질긴 사색의 흐름을 타고 그의 시는 끊임없이 확대심화된다.

내 나이 네살이 아니다  
열네살도 아니다  
내 나이 마흔넷  
네 아이의 아버지  
하나 학생소년궁전이여 너는  
나에게 너의 문을 열어 다오  
네안에  
나를 들여 놓아다오  
...

물론  
나는 여기서 주인이 아니다

이는, 아이들아  
너희들께 주는 나라의 귀중한 선물  
이는 너의들의것  
그러나 잠깐, 오, 잠깐  
나에게도 이것을 안기어 주렴  
인간에의 사랑의  
이 신성한 기념비를!...

-서정시 《학생소년궁전에서》 중에서-

보다싶이 그의 시에는 《아니다》, 《그러나》가 많이 쓰이고 있다.련이는 부정법을 통해 새라새로운 생활진리로 끊임없이 육박해 들어 가는 그의 놀라운 지성세계는 때로 상식의 계선을 《너무도》 넘어 서서 《리치》에 안맞는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그의 뒤흔이고 창조가 있는것이다.

일찌기 처녀작을 내놓은 그 시절부터 그의 대부분의 시들이 이렇게 씌여졌다.

무릇 서정시는 전광석화라도 같이 순간에 발화하고 꺼져 버리는 불꽃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하나의 계기에서 불꽃처럼 번뜩인 시상을 안고 단마디로 내뿜는 예리한 철학적결구로 명시가 된 작품을 많이 알고있다. 우리 시단에서도 김철의 시 《더 쓰지 못한 시》나 《우리 소대장》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김상오의 시는 대체로 길다. 그는 격동된 시흥을 쫓아 멋진 문구를 한마디로 힘차게 내뿜고 마는 그런 시인이 아니였다. 끝없이 묻고 대답하고 다시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의 시세계는 연달아 심화되고 또 심화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을 보라.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여...》, 《조국이여, 진정 너는 무엇이기여》 이렇게 련이는 자문자답을 통해 조국에 대한 느낌과 주장은 줄기차게 확대심화되다가 마침내 그 유명한 철학적결구에 도달했던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시는 《길어 졌다》. 한편의 시속에 여러편의 시가 《잇대여 졌다》.

열정과 사색의 시인 김상오! 높은 지성과 철학의 소유자 김상오!

우리는 그의 시를 《길다》고 보지 않는다. 때로 그것이 《당에 드리는 노래》에서처럼 무수한 반복법, 련거법, 점층법을 거쳐 폐지와 폐지를 넘어 길어지더라도 그 때 시련과 시련에, 그 때 시행과 시행에 시인에 의해 발견된 생활철학이 있기에 우리는 그 때 시련, 때 시행을 한련한련의 시처럼 감상하고 음미하면서 흥분하고 사색하고 울고 웃는다. 그는 끝까지 《리치》에 맞지 않게 사고한 시인이였고 그로 하여 당에 기쁨을 드린 새것을 무수히 창조할수 있었다.

## 생명과 청춘

서정시 《나의 조국》이 지상에 나타났을 때 필자의 나이를 아는 사람들중에는 놀라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 김상오는 62살이였다. 시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여기에는 아무런 놀랄것도 감탄할것도 없다. 그 시는 늙은 육체, 늙은 손이 쓴것이 아니라 젊고 뜨거운 심장이 쓴것이기 때문이다. 식어 버린 심장으로는 시는커녕 아무런 글도 쓸수 없을것이다.》(수기 《청춘의 심장을 안겨준 사랑》)

육체는 늙어도 시는 늙지 않았다. 그 비결은 그가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젊고 뜨거운 심장을 지닐수 있었는데 있다.

영원히 젊고 뜨거운 심장으로 시를 쓸수 있는 생명은 누가 준것인가.

자연의 밀물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생겨난다면 시인이 지닌 열정의 밀물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숭배에 의해서 생겨난다.

주체59(1970)년 3월 남포에서 민덕원의 유가족들을 접견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김상오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25년의 아득한 세월의 간격을 넘어 어버이수령님의 기억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행복한 시인-그는 그때 곡산의 수로둑에서 뽕나무잎을 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웠던 동지의 유가족들도 그의 행처를 알지 못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가 종파분자들의 모해에 걸렸을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르시였다. 같은 해 10월과 2년후 2월 해주시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김상오에 대하여 심려하시며 거듭 믿음의 교시를 주시였다.

삼가 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 이땅에 삶을 받은 전사의  
심장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끝없이 흐느낄뿐  
목이 메여 울 따름입니다.

-서정시 《노래》 중에서-

처음 저에 대해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또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송구함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세번 네번 거듭 또 심려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빌었습니다.

-수령님! 더는 심려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더는 심려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령님께 이토록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용서할수 없는 죄악이라고...  
-서정시 《심려》 중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김상오에 대하여 친히 료해하시고 어느한 창작사의 책임일군으로 불러 주시었으며 잃었던 정치적생명을 다시 안겨주시었다.  
아, 그날!... 시인은 이렇게 웨쳤다.

주시기만 하시고  
받으시는 일 없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세상의 귀한것 다 받아 안은 저입니다만  
이제 제가 드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 고통치게 해주소  
심장뿐입니다  
저에게 안겨주소  
생명뿐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를  
노래뿐입니다  
-서정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리하여 시인은 다시 찾은 심장과 생명의 노래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치여 로년기의 청춘을 빛내였다.  
그는 14년간 잠들어 있던 시혼을 다시 불 태워 한해동안에 150여편의 시와 평론, 소설들을 써냈다. 기적이였다. 그는 잃었던 세월을 보충하였다. 아니 그 몇배의 생을 단 한해에 누리였다.

조국이며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 싶어  
하루를 십년을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것 다 쏟아 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서정시 《나의 조국》 중에서-

이렇게 시인은 마침내 어두운 바다에서 시작한 삶을 영원히 아름다운 기슭에서 바치는것이 기쁨인 아름다운 삶을 누릴수 있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영예의 《**김일성상**》과 《**조국통일상**》을 수여해 주시었다.

주체81(1992)년 8월 4일 시인이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을 때 영생의 언덕 애국렬사릉에 안치해 주시었다.

김상오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시단에서 그의 젊은 심장은 영원히 뛰고있다. 뛰면서 뜨겁게 노래 부르고 있다.

...  
오직 너희들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을 위해 살라!필요하면 죽으면서도...  
그때 너희들은 가장 빛나는 삶을 영원히 살리니  
굳게 기억하라, 아이들아, 나의 이 말을  
너희들의 생애의 끝까지 지니고 가라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이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 또한 전하게 하라  
-서정시 《아이들에게》 중에서-

그런만큼 그의 시세계를 론하는 나의 이 글도 끝맺을 권리가 없다.

## 명언해설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 우리 혁명의 전도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조국과 인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근본사명이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모든 분

야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굳게 믿고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승리가 담보되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 잊지 못할 사람

리석

내 로동의 첫 길을 떠난 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심한 어머니처럼 일깨워 주던 사람  
내 누이가 영예군인과 가정을 이루던 날  
목마를 태워 주던 그 《힘장수》

힘이 되었다  
별이 총총하던 그 밤에도  
동트는 새벽에도  
몸집은 작고 목소리는 높지 않아도  
그가 곁에 있으면  
힘이 되었다

그는 《고민》이 많은 사람  
그는 언제나 일감을 아름답게 안고 사는 사람  
하루도 작업복 벗을 날 없었다  
하루도 몸에서 기름내 없는 날 없었다.  
그가 어느 큰 회의에 갔다 오던 날  
정문 보위대원 그만 실수했다.  
몇 있게 쪽 빼고 들어 서는  
그 《미남자》를 알아 못보고  
그만 신분증을 요구했다지  
하지만 웃으며 요구에 응한 사람

배꽃 하얗게 피던  
우리 장군님 현지지도기념일 아침  
그 멋 있는 《미남자》가  
사적비의 구절구절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겨줄 때  
사람들은 다시 보았다

속이 깊고 뜻이 높은  
정이 통하고 간격이 없는  
참으로 참된 사람  
누구나 따르고 싶은 그의 모습을

그 언제 알았는지  
가슴에 품고있던 나의 소원을  
그 소원이 그리도 귀중하여  
비 내리는 밤 눈 오는 저녁  
하루도 번짐이 없이  
기대결에서 퇴근길에서  
어이하여 나를 이끌며  
가까이 있었던가

그는 수백명 식술을 책임진 사람  
내 혼자에게만 그렇듯 많은 시간  
바칠줄 알았건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듯 다 가까운 사람이었어라

내 보았다 그 언제인가  
그 어진 손이  
한 일군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량심을 바칠 대신  
량심을 팔아 먹는다고 것처럼 어진 손이  
부들부들 떨며 용서가 없었거니

그처럼 슬퍼할줄 알고  
그처럼 웃을줄 아는 사람  
내 입당청원서를 읽던 날엔  
조용히 문가에 서 있던 그  
그 모습은 마치 나의 어머니같았고  
나의 아버지 같았다

비 오나 눈 오나  
온몸, 온뒀을 태우며  
우리 장군님의 손발이 되어  
나를, 우리모두를 품어 준 삶의 보호자여

그대가 있어  
우리의 출근길 언제나 활기차고  
그대가 있어  
우리가 하는일 언제나 긍지롭고  
장군님 따라 우리가 가는 강성대국전설의 길  
이리도 보람차고 즐거워라

오 어려운 행군길 함께 걸으며  
어머니 사랑을 넘어  
친혈육의 정을 넘어  
이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된  
우리의 모든것이 된 그대

그대는 정녕  
우리결에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이 세상에 더없는  
우리 장군님의 뜻대로  
한치도 빗섬이 없이 살며 일하는  
우리의 길동무  
우리의 시중군

내 그대에게 노래를 바치고 싶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에  
내 가슴팍에 모자라게 단  
그 금빛훈장들과 메달들을  
모두 그대의 가슴에 달아 주고 싶다  
공장 정양소의 아늑한 방에서  
며칠간 잠을 푹 잘수 있게

내 지켜주고 싶다

언제나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생을 묻고 살도록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벗이 되어 준 그대에게  
우리 모두의 보호자가 되어준 그대에게  
심장이 끌려

우리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니

내 영원히 잊을수 없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모습 다시 새겨볼 때면  
한없는 고마움에 마음 젖어라  
이런 당일군을 키워준  
우리 장군님 그 은덕에

## 나의 첫시

구동신

가없이 푸른 저 하늘  
흰 구름도 둥둥 떠가는구나  
한없이 부푼 내 마음  
저 구름처럼 하늘을 나네

오늘은  
나의 첫시가 발표된 날  
우리 집 창가엔  
하얀 국화꽃도 활짝 폈구나  
온 집안의 웃음이 꽃잎에 어렸구나

나의 시가 실린 신문을 보며  
안해의 눈가에도 기쁨이 넘치고  
철없는 막내도 싱글벙글  
-아버지도 시인이 되나요?!  
천진한 그 물음에 내 마음 뜨거워 오는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첫 걸음마 익히는 아이처럼  
너무도 어리고 소박한 나의 시를  
이웃들도 축하해 주고  
한직장 벗들도 축복해 주었어라

송구스러워라  
내 그들의 축하를 받을만큼  
뜨겁게 노래했더냐 나의 붓이여  
인민 위해 끝없이 이어 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의 그 자욱을...

재능이 모자라  
날 새도록 모대긴 밤들이여

내 사색이 미쳐 따를수 없는  
힘한 산발들과 수천리 눈보라속을  
쉽없이 헤쳐 가시는 장군님의 사랑의 길이여

아, 가슴 뜨거워라  
명절날 일요일의 휴식도 없이  
가고 또 가시네 인민의 집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길  
내 나라 강성부흥을 위한 그 길에  
나의 시가 있었거니

나의 첫시-  
이는  
내 재능으로 쓴것이 아니여라

다만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로고  
새길수록 잠들수 없고  
새길수록 목이 메여 와  
천리 험한 최전연의 그 새벽길들에  
금나락 설레이는 강원땅의 대평원우에  
내 마음 실으며 붓을 달렸거니

아직은 내 서투른 시에  
장군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령도의 자욱들을  
다 담지는 못했어도  
나의 첫시  
이는 그이를 받들어  
온넛을 초불처럼 태워 갈  
내 한생의 영원한 맹세  
내 한생의 영원한 신념이여라!

## 기존

리금철

어둠이 덮인 창밖에서는 가랑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점도록 창밖에 눈을 주고 있는 형준의 가슴에도 알수 없는 불안이 축축이 젖어 들었다. 돌이켜 보면 여기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지도 어언 30여년, 지배인사업을 시작한지도 10년이 돼 오지만 지금처럼 일하기 힘들기는 처음이다.

몇해째 생산계획은 상승곡선을 가까스로 지탱하더니 2~3년어간에 와서는 돌연 제자리걸음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비약을 해야 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모두 뛰기는 하나 생산은 좀처럼 추서지 못하고 있다.

그때문에 오는 불안인가?!

그렇다면 원인이 어데 있는가.

느닷없이 혁신경 박덕삼갱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마치도 그가 창밖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 보는듯했다.

《지배인동무, 난 이젠 자리를 내놓아야 할가보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겠소, 석탄을 팡팡 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병약한 이몸이 날 배반하는구려.》

《속대가 약해지면 병이 더 날치는 법이야. 신심을 가지고 병치료에 전심하게.》

《내 몸상태는 내가 잘 알아.》

《그만두게.》

...

형준은 눈을 감았다. 갱장의 수척한 모습도 사라졌다. 며칠전 병원에서 읽은 이야기다. 형준은 담배를 붙였다.

푸르스름한 연기속으로 초급당비서의 얼굴이 떠오른다.

《덕삼동무가 말입니까?》

《예, 갱장동무자신이 해임을 제기해 왔습니다.》

《...》 후두둑!

심장이 금시 귀밑으로 올라와 뛰는듯 했다.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하는 그러면서도 두렵기만 하던 그 예감이 현실로 닥쳐온것이다.

《비서동무도 아시겠지만 덕삼동문 탄광개척기부터 일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제물을 아껴 가며 일해 왔다면 지금처럼 병원신셀 지지 않을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지배인동무.》

《덕삼동문 저와 탄광에 제대배낭을 함께 풀어 놓은 막역지우입니다. 마음이 괴롭군요. 저도 지배인이기전에 인간이 아닙니까.》

《...》 그렇다. 나도 인간이다.

탄전에 새겨진 덕삼의 인생의 성과작은 이제 몇해만 넘기면 깨끗이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데 몇해를 참아 내지 못한단 말인가!

숨이 꺾 막혔다.

감성과 리성이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당비서가 고뿌에 물을 따랐다.

《진정하십시오. 전 지배인동무 이해합니다.》

《...》 그때에야 형준은 당비서의 낮빛도 킁킁해 진것을 띄여 보았다. 그도 분명 괴로와하고 있었다.

...

이것은 어제 아침의 일이다.

형준은 담배를 비벼 켜다.

비발이 점차 굵어 지며 유리창을 두드려 댔다.

형준은 머리를 쳐들었다.

우리의 경제형편은 의연히 어렵고 간고하다.

어려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면 일군들모두가 강의한 의지와 용감무쌍한 투지를 소유해야 한다. 오늘의 형편에서 덕삼의 결심은 참으로 지당한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는 시대앞에 성실하고 순결한 인간인것이다.

제때에 깨닫고 옳게 행동할줄 아는 덕삼이가 눈물겹게 고마웠다.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운것이 아닌가.

드디어 리성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그렇다면...

누구를 그의 후임으로 당조직에 제기할것인가.

덕삼이 당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가.

번거로운 생각의 한 끝이 문득 책임기사 영민에게로 가닿았다.

그는 건강이 나쁜 갱장이 료양소로, 병원으로 자리를 뜰 때마다 갱사업을 막힘없이 대리해왔다. 갱경험과 기술이 해박했고 두뇌가 명석했다.

강한 원칙과 사근사근한 인정미를 겸비하고 있어 일반대중의 평판도 좋았다. 일단락 머리를 정돈한 형준은 사무실을 나섰다.

당비서의 사무실에는 자물쇠가 잠기고 봉인쪽까지 붙어 있었다.

형준은 손기척을 하고 열방으로 들어 갔다.  
 《지배인동지, 어서 오십시오.》  
 무슨 문건을 뒤적이던 젊은 부비서가 일어 나며 반가이 맞아 주었다.  
 《부비서동무, 비서동문 어데 가셨소?》  
 《좁전에 평양에 회의 갔습시다.》  
 《회의가 며칠후에 있다던데 벌써 떠났소?》  
 《평양에 가던 길에 도병원에 들러 덕삼갱장동지를 만나려고 좀 일찍 서둘렀습시다.》  
 《...》 형준은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다.  
 순간 그는 자기의 빈 구석을 깨달았던것이다.  
 덕삼의 제기를 받아 들이고 후임을 선택하느라 제나름대로 모색을 해왔지만 당자의 의견을 좇을 생각은 못했던것이다.  
 이 시각도 덕삼은 생각이 많을것이다.  
 그걸 알자고 당비서가 걸음을 했을게다.  
 《저... 지배인동지.》  
 부비서가 조용히 물었다.  
 《혁신갱장의 후임말입니다. 이미 점찍어 둔 대상이 있습니까?》 형준은 자세를 바로 했다.  
 《솔직히 난 덕삼동무의 해임제기를 전혀 뜻밖의 일로 받아 들였더랬소. 그러나 어제뿐아니라 오늘도 시대의 요구앞에 성실하고 순결한 그의 량심앞에 머리를 수그렸소. 당조직에서도 어렵하겠소만 나는 덕삼동무 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후임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요. 그자신이 순결한 만큼 선택하는 대상도 당의 의도에 빗나가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고 싶구려.》  
 《덕삼갱장동진 자기 후임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형준은 바짝 긴장해졌다.  
 《장충웅동무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라구요?》  
 《혁신갱 2중대장 장충웅...》  
 《충웅이틀?!》  
 순간 형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다. 등골에서 짜릿한 전율이 일기까지 했다.  
 의아쩍어하는 부비서의 시선을 곧추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방금 제 입으로 내뱉지 않았는가, 본인의 의견을 기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그런데도 속이 불끈거렸다. 형준은 애써 자신을 다잡으며 부비서의 방을 나섰다.

×

혁신갱 2중대장 장충웅.  
 형준은 몇번이고 이름을 뇌이며 그의 모습을 더듬어 봤다.  
 향시 그 무엇이 못마땅한듯한 감때사나운 눈매며 우뚝 치솟은 코마루가 두드러진 얼굴.  
 필요이상으로 키가 격두룩한데 비해 몸은 다부지지 못하여 보통 심경게 보이지 않는다.  
 결불안이라고 말도 되는대로이다.

언젠가 혁신갱을 찾아 사진기를 메고 온 도일보사의 기자가 충웅한테서 창피를 당하고 뛰쳐 나가 부비서의 책상을 북 두드리듯 했었다.  
 그때 일을 당했을 때 형준은 자기의 젊은 시절을 추억했었다.  
 세상에서 굴진공이 제일이라고 거의 건방질 지경으로 궁지가 높던 그 시절의 눈으로 본 인간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고 지어 편협하기까지 했었다. 탄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선결기준이었다.  
 상대가 누구이든 관계 없었다.  
 마라초를 말아 피우는 탄부들앞에서 고급담배를 꼬나물거나 석탄가루를 내뿜 탄부들걸로 향수내를 풍기며 다니는것 등이 경멸의 대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로동계급의 궁지보다도 막장에서 탄을 캐는데 대한 일종의 재새며 심술이라 해야겠다. 지금의 충웅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는 적지 않게 한개 갱의 중대장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를 중대장으로 추천할 때 론의가 분분했던걸 덕삼갱장이 완강하게 보충해 나섰다. 중대장이 되어서는 한동안 즉증했다.  
 덕삼이 곁에서 거들어 주며 그의 결점을 감싸주었기에 별 소리가 나지 않았을건 뻔한 일이다.  
 갱장이 자리를 뜨기만 하면 일이 터지군 한다.  
 지금도 갱장사업을 대리하는 책임기사와 찍하면 뿔을 세울 내기를 한다.  
 이런 울퉁불퉁한 친구에게 갱장사업을 맡긴단 말인가.  
 그래놓고 보니 알다가도 모르게 덕삼의 속내다.  
 당비서도 아마 뜻밖의 일이어서 지배인과 상론도 못하고 급한 길을 떠났을게다.  
 형준은 한숨을 내불었다.

×

손기척소리에 이어 출입문이 열렸다.  
 《당신이 어떻게?...》  
 형준은 마누라의 손에 들린 밥보자기를 뻔히 보면서 부러 이마살을 곤두세웠다.  
 《아유, 담배연기... 담배하구 씨름할바치군 집도 코앞인데 더운밥을 잡수구려.》  
 《거기 놓고 가오.》  
 형준은 매일밤 끼니가 늦을세라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누라가 내심 반가우면서도 내색없이 뻔뻔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참, 오늘 큰딸애가 왔던걸 육해서 보냈수다.》  
 《건 왜?》  
 《이젠 살림을 췌으면 제 손으로 살아 갈 궁리를 해야 할게 아니우. 이젠 찍하면 집에 와서 손을 내미니 야단 아니우.》  
 《친정이라 믿고 온 애를 울려서 보내면 되우. 동냥은 못취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소.》  
 《뭘 췌 보내는게 아까와 그러는줄 아시우? 그애

들 사는 방식이 틀려 먹어 그러우다. 옛날에야 일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딸을 낳으라 했지만 지금이야 어떻게 살 때요. 허끝에선 쥐빨두 생겨 나는 게 없수다. 제 손이 보배다 하구 부지런히 놀려야지요.》

《너무 좁쌀같이 놀다가 애들과 멀어 지겠소. 참 요새 소향이가 집에 잘 들어 오지 않는것 같더구만.》

소향이란 형준의 손아래 누이의 딸이다.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들이 있는 도시로 가지 않고 탄광병원에 배치 받아 온 기특한 애다.

정말 요새 그 애를 본지도 오랜듯 하다.

《그믐밤이웨다. 그 애가 삼촌네 집과 간격이 생겨 발길이 뜸해 진줄 아시우?

혁신갱 장충웅중대장한테 정을 두고 있어 노상 불어 산답데다.》

《확실한 소리요?》

《은 탄광이 다 아는 일인데 당신 귀는 그새 출장 보냈됐수?》

《말버릇두 참...》

형준은 악의없이 중얼대며 생각을 토했다.

내가 저런 말을 언제 또 들었던가.

아, 혁신갱 식당책임자가 말했었지.

《하루는 예방주사 놓으러 온 소향을 중대장이 불러넵디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는 열을 올립디다. <내쪽에선 이미 결심을 세웠구 동무도 딴 의견은 있을것 같지 않구만. 이럴 땐 뭐 남자쪽에서 말꼭지를 때야 한다던데.> 이러면서 손을 으스러지게 잡아 쥐는데 처년 아무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합디다. 원 고백인지, 강다짐인지...》

그때는 웃음속에 무심히 지나쳐 보낸 일인데 은 탄광이 다 안다는 마누라의 말까지 듣고 보니 헛말은 아닌것 같았다.

《모를 일이야. 미끈한 총각들도 손가락짹해가며 튀기던 애가...》

《아유, 난 흐린날이 딱 질색입디다. 해가 짹짹 나던가 소나기를 콕 퍼붓던가... 사람두 그렇지요. 뭘 하자든가 말하자든가 좋다던가 나쁘다던가 해야지. 어물어물하는건 겁쟁이란 말이우다.》

마누라는 총알같이 한바탕 퍼붓고 나서 히죽이 웃었다.

《들어 보시겠수?》

지난봄 해토무렵때란다.

눈석이가 한창때여서 계곡의 물은 넘쳐 나고 탄광마을을 품에 끼고 꾸물꾸물 흐르던 실개천이 제법 큰 강처럼 범람했다.

《사람이 빠졌다.》

어데선가 다급한 웨침소리가 날아 왔다.

직업적인 타성으로 소향은 무작정 소리난 쪽으로 달려 갔다.

한껏 불어 난 강물은 사품치며 용을 쓰는데 그속으로 열살정도 나보이는 어린 아이의 얼굴이 위태위태하게 오르내렸다.

소향은 속이 한줄만 해서 가슴만 쥐여 뜯었다.

사람들 서넛이 기슭을 올리뛰고 내리뛰며 맞춘한 나무가지를 쥔느라고 덩벼 치고 있었다.

《비켜라!》

당장 덜미를 잡아 채는듯한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순간 꺾두룩한 웬 청년이 옷을 입은채로 무작정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건져 낸 아이의 얼굴이 불그스레 피여 오를 무렵에야 소향은 청년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동지가 아니었다면...》

어쭙게 두손을 맞비비며 서 있던 주위의 사람들은 도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 두시오. 귀 간지럽소.》

청년이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아이가 빠졌는데 법석 교아대기만 하니... 대체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그가 한마디 쓰겁게 내뱉고 가버린 후에야 몇몇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혁신갱 2중대장이지?》

《젊은 사람이 통도 있고 제길 손도 있는데 딱지 성격때문에 고운 평을 못 받더구만.》

《허끝을 망탕 휘두르지 말게. 성격이 무슨 상관인가. 사람을 살려 냈는데...》

나이 지숙한 사람의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형준은 덤덤히 앉아 마누라의 말을 듣기만 했다.

《이젠 배우자를 택하는 처녀들의 눈도 이전과는 다르우다. 탄광병원에 속탈이 심해 입원한 갓 시집 온 색시가 있는데 하루와 같이 호실에 찾아오는 남편을 되려 나무라더래요. 남들은 석탄 한덩이라도 더 캐내자구 뛰여 다니는데 그렇게 매일 제 안해 병문안이나 다녀서야 일은 언제 하느냐구. 제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일에 열중하라구 짹짹하게 싸주더래요.》

마누라는 할말을 다 했는지 주섬주섬 밥보자기를 싸들었다.

《참, 또 잊을번 했수다. 덕삼아주버니한테서 온 편지우다. 어제 받은건데...》

《...》

형준은 시퍼래서 마누라를 쏘아 보며 편지를 나꾸어 썼다. 덕삼의 편지가 어제 왔단니까 결국 당비서와 지배인앞으로 한낱한시에 보낸것이 틀림없었다.

×

형준은 급히 속지를 꺼냈다.



《지배인동무, 인간의 보신이 이처럼 집요한줄은 여직 몰랐구려.

이제는 석탄생산에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 되려 짐박에 될것이 없는 이 최잔한 육체의 존재를 두고 왜 그리도 애달프게 느껴지던지...

늦게나마 땡혹히 자기를 가다듬고 결심을 정립하고나니 오히려 심신이 홀가분해 지는구려.

난 지금 유감스러운것이 조금도 없네. 한생 정을 들여 온 탄전을 마음 놓고 넘겨줄 미더운 세대가 있기때문일세. 형준동무도 생각날게요. 지난해 우리 갱의 회의에 참가했을 때의 일말이네.》

생각났다. 혁신갱 월생산총화모임때다.

모임에는 덕삼갱장도 참가했으나 료양소에서 갓 돌아 왔으므로 책임기사가 보고를 했었다.

《최근년간 거둬되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된 영민의 보고는 빈틈 없었다.

그때문인지 월생산계획을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그닥 숨가쁘게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참가자들은 마치도 미달한 30%보다도 어려운 속에서도 애써 이룩해놓은 70%라는 수자에 더 매혹을 느끼고 있는듯 했다.

형준은 집행석에 앉아 있기가 불안스러웠다.

물론 생산조건이 그전과는 비할바없이 불리해진 건 사실이다. 동발목과 발파자재, 탄차와 압축기 등 설비운영에 들어야 하는 부속품은 오직 자체로 해결해야만 했다.

이런 속에서 그만큼한 생산수자를 기록한것도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당에서는 오늘도 천리마를 타고 계속 구보행군을 다그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각도로 회의를 몰아 참가자들의 가슴을 달구고 채찍을 휘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책임기사의 보고가 마감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회의장 뒤편에 있는 출입문이 반쯤 열리더니 병어리장갑을 낀채로 팔 하나가 쑥 들어 왔다. 그 장갑에서 떨어 진 쪽지편지가 출입문결의 좌석에서부터 옮겨져 집행석에 날아 올라 왔다.

형준은 덕삼이 펼쳐 든 쪽지편지에 눈길을 던졌다.

《갱장동지, 회의중에 미안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2중대장동지를 내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두루 살펴 보았으나 장충웅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생산총화회의의 참가대상이 소대장이상 초급일군이므로 응당 이 자리에 있어야 할 2중대장이 없었던것이다.

갱장이 형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갑자기 열이 난다기에 병원엘 보냈는데...》

금방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던 영민이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상황을 설명했다.

《엇그제 로동안전교양을 마친 성진이라는 꼬마인데 2중대장이 회의장에 없다니까 얼굴이 백지장이 되더군요.》

덕삼은 무슨 짐작이 가는지 머리를 끄덕였으나 형준은 기분이 언짢아 졌다.

평범한 탄부도 아닌 중대장이란 사람이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열이 좀 난다고 회의에 빠졌으니 말이다. 회의가 끝나자 형준은 갱장과 책임기사를 따로 남게 했다.

지배인은 보고로부터 회의과정에 느낀바를 이야기했다.

책임기사 영민이 비판을 제격 받아 물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에서 성과부분을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것이 지나치게 번져 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규률을 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조퇴승인을 해준데 대해서도 각듯이 뉘우쳤다.

역시 그는 말귀가 빠르고 언행이 준수했다.

왜서인지 덕삼은 앉은 자세에서 한숨만 토하고있었다.

《지배인동무가 회의끝에 한 충고는 바로 나자신이 안고 있던 불안이었네. 그러나 책임기사처럼 쉽게 답변할수가 없더구만. 그래도 갱장이 아닌가. 올바른 대책이 없이 다짐만 할수 없었던 말일세. 그렇다면 걸린 고리가 무엇인가.

발걸음 되는데로 옮기다가 보니 2중대 휴계실앞 이더군. 그제서야 2중대장 장충웅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그의 중대에서 그를 찾아 돌아 왔다는 사실이 머리를 치더군.》

...덕삼은 텅 빈 휴계실에 한동안 망연히 서 있다가 서가로 다갔다.

거기엔 걸표지에 《사색일지》라고 제명을 붙인 책들이 한줄로 걸려 있다.

특이한것은 매책의 첫장에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매일 매시각 사색하자!》라고 써여 있는것이다.

충웅은 자기뿐아니라 온 중대성원이 매일 일지를 무조건 정리하게 했다.

특히 책들이 소대별 순위가 아니라 적혀진 안의 가치에 따라 등수가 정해지고 그 차례로 배열한것이 이채로왔다. 덕삼은 맨 첫자리에 걸린 책을 벗겼다. 짹짹이 아동문학작품을 쓴다는 신입탄부의것이였다. 성진이라는 이름을 보니 방금전에 중대장을

찾아 다니던 꼬마가 분명했다.

《내가 마술사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이미 탄을 캐먹은 막장들에 할일없이 묻혀 있는 갱목들을 마술의 힘을 빌어 모조리 뽑아낼 텐데… 아니, 마술사가 아니라도 아동영화의 쇠메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좋겠다.

허나 이건 동화적인 환상에 불과한것이다.

계속 모자라는 동발나무때문에 하도 속이 타서 심정 그대로 썼는데… 애들 장난이라고 중대장동지한테 꾸중을 듣지나 않을가…》

덕삼은 웃어 버리고 말았다.

다음 순간 강한 의문이 번개치듯 스쳐 지나갔다.

어린애의 장난 같은것을 중대장은 왜서 첫자리에 놓아 주는걸까. 생각해볼수록 이상한것은 웬만한 아픔도 숨기며 병원출입을 거부하던 2중대장이 열이 좀 난다고 조퇴를 한것이였다.

순간 뇌를 스치는 어떤 예감에 덕삼은 몸을 흠칫했다. 덕삼의 예감이 들어 맞았다.

그가 2중단 6편도의 끝막장에 혈금씨금 들어 서니 회수한 동발무지가 뒤광차분가량 쌓여 있었다. 갱목무지에 걸터 앉아 담배연기를 날리던 나이 지숙한 동발공이 갱장을 알아 보고 주춤거리더니 허리를 폈다.

뚝박인것은 그결에서 위생가방을 걸친 소향을 발견한것이였다.

덕삼은 그들을 얼추 훑어 보고 나서 막장의 구석 구석을 간간히 살폈다.

갱천정에 가로 붙은 동발가름목까지 버럭돌로 사개 맞춰 쌓고 췌기를 주어 고정시킨 다음 지주목과 받침목을 빼냈다. 말하자면 지주목과 받침목을 둘로 대신한것이였다.

결국 꼬마의 동화적인 환상이 현실로 된 셈이 아닌가. 그러나 대견스러움은 한순간였다. 보다는 아슬아슬했을 작업광경이 눈에 밟혀 와 등골에서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이러느라고 조퇴놀음을 했겠지. 소대장들까지 모두 회의에 간 조용한 틈을 노려 기능공을 꼬드겨 위험한 시험작업을 했을것이다.

덕삼은 뒤로 돌아 섰다.

《중대장 어데 갔소?》

《콘소린 그만하시우. 아직까지 다리가 후들거리려 죽었는데…》

《무슨 죽을 죄를 졌다구 꺼벅꺼벅 욕을 먹겠나요.》

《이 사람아, 나살이나 건사한 사람이 그래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가늠 못한단 말인가. 사골 치지 않은게 천행인줄 아오.》

덕삼의 눈길에 소향에게로 옮겨 졌다.

《동문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소?》

《아, 갱장동지.》

동발공이 덕삼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러지 않아도 선생이 속을 수태 태웠수다.》

《흑! …》

갑자기 소향이 입을 싸쥐고 뛰쳐 나갔다.

《?! …》

얼퍼름해진 덕삼에게 동발공이 담배쌈지를 꺼내 들었다.

《일인즉 이렇수다.》

그는 손가락처럼 두툼하게 말아 붙인 마라초연기와 함께 뜨직뜨직 입을 터쳤다.

《어제 밤늦게 우리 집에 들린 중대장이 대판으로 들이 대지 않겠나요.

이미 탄을 다 캐먹은 막장들에서 동발을 빼먹으려는데 협력해 달라는거지요. 난 대뜸 골을 냈수다. 그러지 않아도 금방 우리 막내아들 성진이가 <사색일지>에 애들 장난 같은걸 써놓은것때문에 목에 피대줄을 세우고 난 참이였는데 말이우.

내가 하두 뻑뻑하게 나오니 중대장은 더 달라붙지 않습디다.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 당기진 않겠어요. 성진이보다 더 나은 말을 들을가 했더니…> 이러더니 훌쩍 일어 섭디다.

난 밤새 궁식거리며 뜬눈으로 보냈수다.

동창이 새기 바쁘게 난 자리를 털고 일어 났수다. 뭐 중대장이 부탁한 일이 꼭 마음에 내켜서가 아니라 물불을 모르고 덤버치는 젊은 녀석들의 모험을 번연히 알면서도 팔짱을 끼고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소. 삼작문을 열고 나서니 글썩 그 녀석이, 머리며 어깨죽지에 하얀 서리를 엮은 중대장이 망두석처럼 서서 벌죽거리는데 아니요. 노여운 반감이 불끈 치밀었수다.

<너 이놈, 중대장이라구 머리털 허연 놈을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지. 넌 그래 중대장은 한지에서 밤샘을 하며 갱일을 걱정하구 이놈은 아래목에서 고래잠을 잤단 말이지. 어휴 망녕이지.>

그런데도 중대장은 자기 옷깃을 바싹 거머 쥔 내손을 꼭 잡아 흔든디다.

<아바이가 밤새 주무셨을게 뭇니까. 담배를 붙였다가는 도로 눕고 그랬다가는 공공 앓음소릴 내며 온밤 신고하신킨줄 다 압니다.>

<사람두!>

상대는 나를 보고 벌썩거리는데 나는 내 얼굴표정이 어쩐지 알수 없었수다.

새벽바람이 건뚝 불며 얼굴을 스쳐서야 난 불에 홀려 내린 눈물자욱을 느꼈수다.

이때 방문이 벌컥 열렸수다.

<아버지, 중대장동지, 저도 한몫 맡겨 주십시오.> 바로 우리 막내놈이었수다.》

《그놈두 잠자리가 편치 않았던가보군.》

《그놈뿐인줄 아시우? 요즘 젊은놈들의 눈치가 얼마나 켜지 윈... 술한 녀석들이 기웃거리는데 겨우 때났수다. 마침 될 때라 초급일꾼들은 회의에 가구 교대들에선 휴식을 선포했수다.》

《그럼 회의중에 중대장을 찾아 달라던 녀석이 그 집 아들이겠구만.》

《그놈이 거기까지 갈습디까. 그러니 소향선생이 불쑥 나타난것도 결국 그놈의 작간이었구려. 의사 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토의를 결친 다음 기능공들로 조를 무어 사고없이 하자는거지요.

<소향동무, 조직적으로 제기하자니 사전에 그 가능성여부를 확인해야 할게 아니요.>

<중대장동지, 고집 부리지 말구 진정하십시오.>

처음엔 레사롭게 말들이 오가더니 점차 총알처럼 내쏘기를 합니다.

<비키지 못하겠소?>

<안됩니다. 위험해요.>

<시간이 없소. 방해하지 말란 말이요.>

<혼자 생각만 합니까. 탄부들 생각도 해야지요.>

<우린 한몫이 그대로 동발목이 돼서라두 탄을 캐야 할 사람들이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구두 뭐 탄부를 사랑한다구?! 비켜 서오.>

그 말에 풀썩 주저 앉고 맙디다. 그렇게도 웅골치게 딱 버티며 막아 섰던 의사선생이 말이우다. 윈, 내 오십평생에... 이렇게 뽑아낸 동발목들이우다.

전번에 여기서 레루를 뽑아 바쁜 목을 넘길 때두 모두 저 동발목들은 스쳐 보았지요. 정말 하자는 사람 멈춰 세울 힘은 없나보우다.

지성이 감천이라지 않았소.》

《지배인동무, 언제나 난관앞에 말로가 아니라 제 몸부터 내대는 중대장이 정말 대견스러웠네. 그러나 그가 개척해놓은 그 일에 확고히 마음을 놓을수 없었네.》

기술적인 담보가 명백치 않았고 그의 <예비탐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했던거네.

나는 참고도서와 기술잡지들을 들추며 동발회수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했고 도면을 펴 놓고 필요없이 묻혀 있는 갱목들의 수자를 산출해 냈네. 그러느라 밤을 꼬박 앓았으나 피곤한줄을 모르겠더구만.

그런데 새날을 맞는 나의 귀전에 기상천외한 소식 이 날아 들었네.

장충웅이 글썽 회수했던 갱목들을 다시 제자리에 틀어 박는 놀음을 벌렸다질 않겠나.

이런 번덕이 어데 있단 말인가.

모욕을 느꼈네. 조롱 당한듯한 감정으로 온몸에 불길을 뒤집어 쓴것만 같았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 섰네.

장충웅을 만나자 바람으로 따져 물었네.

<2중대장, 품을 들어 회수해 놓은 갱목들을 다시 틀어 박은 이유는 어데 있소?>

무슨 일로인지 충웅이와 싱갱이질을 벌리던 영민이가 곁에서 기름을 쳤네.

<갱장동지, 큰일을 했다구 속보에도 내고 목마를 태워 줄걸 우리가 생각 못해 준것 같습니다.>

<...>

충웅의 낮빛이 한순간 해쓷하게 질렸네.

공교롭다 할지... 이 순간 팽팽한 침묵을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네.

송수화기를 들어 보니 탄광기술과장이었네.

<혁신갱장인가. 한가지 사죄할게 있소.>

<갑자기 사죄란건 또 뭐요?!>

<어제 당신네 2중대장이 찾아 와 다짜고짜로 탐측도면을 보자고 했을 때 난 시끄러워했댔소. 현행 과제도 산더미 같은데 옛날 문서나 들춰선 뭘하겠느냐고 신경질까지 부렸구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사사론 감정따위는 생각도 았더구만. 하도 끈덕지게 달라 불기에 마지 못해 그의 말을 따라 가며 도면을 훑어 보니 아 이게 웬 떡이겠소. 눈뜬 소경이라더니...>

<아, 여보. 좀 차근차근 말하구려.>

<오래전에 구식방법으로 캐먹은 얇은층구역들에 아직 손이 덜 간 탄줄기가 그냥 남아 있더라말이요. 당신네 그<가마치>만 굵어도 석달 생산분은 넉근하겠더구만. 이건 2중단의것만 생각해본거네. 그러니 얼마나 큰 예빈가. 어서 도면을 가져 가게. 우리 기술과에서 밤새 완성한거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는 송수화기를 놓고 충웅에게로 다가갔네.

<!> 그래, 그래서였네.

갱목회수작업을 하는 과정에 충웅은 얇은층구역에 남아 있는 탄줄기를 보았네. 그래서 거기서는 갱목을 뽑아 먹을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을 하여 남은 탄을 모조리 캐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것이었네.

그런데 난 그를 꼭해하지 았었는가.

얼굴이 화끈거렸네.

<사람두.>

나는 중대장의 실박한 어깨를 쓰다듬었네.

<...>

충웅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흘렀네.

항상 그 무었에 불만인듯 우락부락거리던 이 사람에게 저렇듯 따뜻한것이 있었는가. 그것은 철모르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깨끗한것이었네.

뒤미치 사연을 깨달은 책임기사의 태도가 순간에  
일변했네.

<글쎄, 2중대장이 누구라구... 갱장동지, 승인하  
신다면 제가 2중대에 붙어 <가마치> 뜯는 일을 개  
척해 보렵니다.>

역시 영민이다운 행동이었지...>

형준은 머리를 쳐들었다.

그 다음의 일은 자기도 잘 안다.

행정간부회의에서 혁신갱의 경험이 논의되고 그  
것이 탄광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기술과, 탐측과, 굴진과를 비롯한 기관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성을 확증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설계를 새로 갱신보충했다.

경제적효과성이 컸다.

기본굴진, 준비굴진을 하지 않고서도 약간의 갱  
보수만 하면 탄밭을 거저 얻는셈인것이다.

혁신갱을 비롯한 갱막장들에서는 새 탄밭을 마련  
하기 위한 기본굴진을 내밀면서 얹은충구역을 뜯어  
내기 위한 립체전이 벌여 졌다. 그 과정에 료양소  
에서 어느정도 몸을 추세운듯 했던 덕삼갱장이 다  
시 쓰러져 도병원에 실려 갔던것이다.

그때의 일을 더듬노라니 야릇한 후회가 젖어 든  
다. 큰 예비를 찾았다고 회열에 떠서 덕삼이 그렇게  
도 진지하게 하던 말을 들은척만척해 버렸다.

그때 덕삼은 충웅에 대하여, 그의 열정적인 사색  
과 탐구, 완강한 실천에 대하여 이야기했을것이다.  
난 왜 그것을 귀등으로 흘렸는가.

거저 생긴 (그때 실지로 그렇게 느꼈었다.) 탄밭  
에 반해서 거기에 바쳐진 인간의 고뇌와 땀을 알려  
고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손쉽게 얻어지는것이란 없다지 않는가.

...

《지배인동무, 그것은 불씨였네.

우리 일꾼들모두가 2중대장처럼 가슴에 불을 안  
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몸을 내대며 몸부림쳐 왔다  
면 왜서 계획을 못하여 나라앞에 손실을 끼쳤겠는  
가 말일세...》

형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는 독을 쓰던 비발이 한결 뜸해졌다.

그는 창문을 활 열어 제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라 봤단 말인가.

혁신갱에 한두번만 들렀는가.

나는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형준은 송수화기를 들어 혁신갱을 찾으려다 그만  
두었다.

벌써 자정이 넘었던것이다.

×

형준은 새벽 닭이 꽤 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살함박을 들고 앉아 뉘를 고르던 마누라가 눈굽

을 짙으며 일어 났다.

그의 무릎에서 편지봉투가 미끄러졌다.

무슨 편지에 저러노...

《소향이 제 동무한테 보냈던건데 되돌이 왔구려.  
주소불명으로...》

《남의 편지를 망탕 보면 어찌우. 아무리 조카딸  
의것이래두...》

《흠쳐보기라두 했다가 버락치겠구려. 그애가 보  
라구 한거웨다.》

마누라가 부엌으로 나가자 형준은 편지를 집어  
들었다.

《잊을수 없는 내 동무 영미, 너의 가슴아픈 이야  
기를 들었다. 너무 경솔했다는 뉘우침의 고백을 들  
으니 늦게나마 바른 눈을 가지게 된 너를 다행스런  
게 생각한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우는 사람에게 쉽게 현혹되어  
넌 눈이 어두웠겠지. 진실에 못지 않게 허위에도  
설득력이 있는거란다. 첫사랑을 포기한 너에게 어  
쩔수 없이 내 사랑의 한끝을 헤쳐 놓아야겠구나. 용  
서해. 네가 허를 차던 독쟁이탄부, 그 중대장동무에  
대한 이야기야.

동발회수사건이 있은후 난 한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단다. 박충구역을 뜯어 내는 전투로 시간이 바  
쁜건 사실이였어.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탄부를 사  
랑할 자격이 있는가고 하던 그날의 아픔이 파편처  
럼 박혔는데 그걸 뽑아 주고 쓸어 주면 큰일나겠니.

말 한마디면 되겠는데... 그래 우정 피해 다녔지.

그러다가 그가 작업중에 다리를 다쳤다기에 자존  
심을 누르며 찾아 갔었지.

방에 들어 서니 그가 어찌나 책에 열중했던지 사  
람이 들어 선것도 모르더구나.

난 한동안 놀라움을 안고 서 있었어.

탄밭이요, 동밭이요 하는것밖에 모르는줄 알았는  
데 글쎄 그가 것처럼 독서에 열중하여 인기척도 느  
끼지 못하니 말이지.

잠시후 나를 알아 보더니 투박한 손으로 눈굽을  
꼭꼭 짊으며 어색하게 웃더구나.

<이 소설책을 봤소?>

<예, 이미전에...>

<그래도 이 대목을 한번 다시 보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철도기관구 로동자  
들앞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산에서 씨우다나니 빈  
배낭밖에 가져 온것아 없다, 당장은 돈도 없고 쌀도  
없다,

그러나 우린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 난국  
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시는 장면이요. 생  
각이 깊어지오.>

그는 벽에서 기타를 벗겨 들었어.

은은한 기타반주와 어울려 웅글은 노래가 흘러나  
왔지.

불빛도 아름다운 락원의 밤이여  
꽃물결 흘러 가는 조국의 거리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난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어.  
글쎄 노래를 부르는 그의 눈가에 맑은것이 가랑  
가랑 섬을 파고 있는게 아니겠니.  
저 사람한테 저런 정서, 저런 눈물도 있었는가.  
영미, 그도 인간이었어.  
동발을 들고 탄맥을 뚫어 가는 탄부-이들이라  
고 왜 정서가 없겠니.

아니 이들에겐 그것이 넘치도록 있었어.  
그래서 사랑과 증오의 계선이 뚜렷하고 뜨겁게  
분출하곤 했던거야.  
<소향이.>

나는 아프도록 꼭 움켜 쥐는 그의 줌안에 손을  
말기고 말았단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건 사실이요. 그러나 빈터가  
아니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토록 마련해 놓으  
신 든든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지 않소.

얼마나 기쁜진 탄맥이 지심깊이 묻혀 있는줄 아  
우?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문제는 자신을 깡  
그리 바쳐야 하는거요.>

그래, 우리 탄부들의 온몸이 불길이 되어 심장을  
끓이며 캐내는 석탄은 그래서 검지 않고 붉은거야.  
그래서 뜨거운것이구.

...

가슴 아픈 눈물도 흘렸구나.

한번은 휴게실을 지나는데 벼락치듯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니. 문을 차고 들어가니 충웅중대  
장이 벌떡 일어나 몇걸음 옮기다가 밀둥찍힌 통나  
무처럼 모채비로 넘어 가더구나.

급히 다가가보니 글쎄 허벅다리에 고무줄을 졸라  
맨것이 눈에 띄우더구나.

언젠가 꼭 필요하다가에 끊어진 점적호수 한토막  
을 주었더니 그게 그의 다리를 칭칭 감고 있지 않  
겠니.

그가 다리를 주무르며 변명하더구나. 너무 피곤  
에 몰려 잠에 들면 자명종소리도 못듣는데. 그러나  
고무줄을 졸라 매면 영낙없이 삼사십분정도면 깨여  
난다는거야. 피가 막히고 다리가 부어 올라서말이  
야.

난 고무줄을 뺐었어. 그걸 들여다 보느라니 마치  
도 그것이 내 심장의 한 토막을 꼭 졸라 맨것처럼  
숨이 가빠지더구나.

<에이, 꿈, 미옥쟁이.>

그가 울먹거리는 나를 열리겠지.

<소향이, 내 말 들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  
도의 길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피곤을 푸는 약  
은 없는가고 말씀하셨겠소. 난 장군님의 그 피로를

조금이라두 풀어 드리자는거야.>

영미.

내 이야기가 너의 아픈 가슴을 더 허비는지도 모  
르겠구나. 그러나 네가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래  
서 그러는거야.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심장속 깊은 곳에서 끓어  
번지는 진실을 봐야 한단다. 그 진실을 가려 보는  
시금석은 성실한 사랑이라구 생각한다...>

형준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하고 깨끗한 새벽대  
기가 폐부에 깊숙이 흘러 들었다.

×

혁신깡을 찾은 형준은 지령실로부터 들렸다.

《어떻소? 생산이...》

지령원이 차렷자세를 취했다.

《새벽교대 실적까지 합쳐야 겨우 예정대로 나잡  
니다.》

《음...》

《그런데...》

《뭐요?》

지령원이 맞잡아 왼 손을 어쭙게 비벼댔다.

《이달엔 그럭저럭 맞춰 나가는데 다음이 야단입  
니다. 예비탄발은 어느정도 마련했는데...》

《동발이 걸렸겠지.》

《...》

지령원이 머리를 수그렸다.

형준은 지령실을 나섰다.

동발, 역시 동발이 문제다.

경사무실에선 의자 몇개를 붙여 놓고 누워 잠자  
던 책임기사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지배인을 맞  
았다.

《집에 들어 가 편히 쉬게지...》

《경장동지가 없는데 저까지 자릴 떠서야 되겠습  
니까.》

형준은 이것저것 물었다.

《걸린것이 많을레지?》

《제일 골 아픈게 사람문제입니다. 2중대장말입니  
다...》

경목을 적게 쓰는 콩크리트보를 시험한다면서 한  
동안 볶아 대더니 술한 로력과 자재를 흘려 보내고  
말았다는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사고심의를 열고 단단히 문젠 세  
워야 할일인데... 이번엔 무슨 무동발법이란걸 벌려  
놓구 성합니다.》

《가만!》

형준은 책임기사의 말을 제지시켰다.

벌써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것이다.

콩크리트보, 무동발법...

막연하게나마 무언가 잡힐듯 말듯 떠오르다가는  
사라진다.

《2중대장을 찾소.》

《지금 없습니다. 어제 휴가신청서를 내고 떠났습니다. 도소재지에 일떠 서는 다리건설장에 가봐야 한다면서...》

《다리건설장에?》

은연중 놀라운 소리가 터졌다.

어떤 룬파적인 실체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순간 놀라운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혁신갱입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영민이 송수화기를 넘겨 준다.

《뭘 덕삼이라구? 어데서 전화하오?》

형준은 벌써 일어서기까지 했다.

전화하는곳이 다리건설장 지휘부란다.

2중대장이 도방송에서 《군민다리》건설장의 군인들이 벌침목을 전혀 쓰지 않는 새 공법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듣고 이백리길을 달려 왔다고 한다.

다리건설장에서 하는 달아매기식 휘틀조립법의 원리대로 막장의 암반들을 서로 잡아 엮어매놓으면 동발을 대신할것 같다는거다.

《여보, 가능할것 같소, 무동발법이 말이요. 뭐 레일이면 도착하겠나? 그때 토론해보자구?》

늦어. 한시가 새롭소, 꼼짝말고 기다리거나 하오. 뉘시간이면 도착할테니. 귀가 먹었소? 내 차로 당신들을 태우러 가겠다는데...》

형준은 송수화기를 덜컥 놓았다.

《저... 식당엘 줌...》

그렇게도 명료하고 류창하던 영민이 이 순간엔 말까지 더듬는다.

《지배인동지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

형준의 시꺼먼 눈썹이 쫓긋거렸다. 허무감이 밀물쳐 든다. 내 이런 사람을... 아니, 사람의 진속을 바로 볼줄 모르는 내가 얼뜨기였지.

《여보, 이제라도 그렇게 살지 마오.》

형준은 기가 죽어 어깨죽지를 떨구고 서있는 영민을 뒤에 남기고 자리를 뒀다.

승용차는 패속으로 달렸다.

높아 지는 차의 속도에 비례하여 무르익은 사색의 령감이 비발쳐 든다.

막장안이다.

암반의 여러곳에 천공을 하고 거기에 철근을 박아 세멘트혼합물을 싸 넣는다.

고정된 철근끝머리마다를 철판띠로 서로 맞잡아 용접해준다면?! ...

십분가능하다. 무동발법이...

충웅이만 반대 없다면 이걸 막대동발이라 이름지으려나.

얼마나 좋으나. 적은 량의 철근과 세멘트만 들이면 술한 갱목을 대신할수 있다.

아니, 나무를 전혀 쓰지 않고 갱을 영구화할수 있겠다.

동발나무를 구해오고 그걸 막장에까지 운반하느라고, 규격에 맞춰 말구어 대느라 들이던 술한 로력과 공수는 또 어덴가.

차가 달린다.

승용차의 고르로운 진동속에서 형준은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 상식

# 감자의 원산지

원래 감자와 강냉이의 원산지는 페루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항해가 콜롬부스가 1492년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동반구에서는 감자와 강냉이를 모르고 살았다. 페루의 잉카족들은 옛날부터 안데스산줄기의 가파로운 계곡에 계단식으로 다락밭을 일구고 거기에 감자와 강냉이를 심었다. 1532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이 페루에 있던 당시의 잉카제국을 무자비하게 정복한후 거기서 감자와 강냉이를 에스빠냐에 가져다 심었다. 그때부터 감자는 유럽에 급속히 퍼졌으며 훗날로 기근이 든 유럽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고 한다. 그후 유럽지역은 감자를 가장 많이 먹는 지역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이 감자가 1700년대 말~1800년대 초에 들어 온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산간지대에서 많이 심었다. 감자는 우리 나라에서도 긴장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작물로 되었다.

리조시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쓴 책 《북학의》에는 감자가 먹는 문제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구황식료품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 5 시간 40 분

김명길

유철은 참으로 우연히 이 뺨스에 올랐다. 그저 사곡으로 가는 차편을 물었는데 운전사가 《타십시오, 그쪽으로 갑니다.》 하는 바람에 다행이다 싶어 얼른 올랐을뿐이었다. 《승리-58》형뺨스였다.

뺨스에는 세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람 좋아보는 50대의 운전사와 그 나이또래의 거울진 남자 그리고 운전사가 《박아바이》라고 부르는 기골이 장대하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패인 로인이었다.

운전사는 유철이를 태워놓고도 그의 색다른 차림새와 백발의 머리에 비해서는 혈색이 좋은 얼굴이며가 다 이상해 보이는지 몇번이나 훑길 훑길 돌아다 본다. 평양에서 떠날때 농립모까지 얻어 썼는데도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바이는 어디서 오십니까?》

유철은 자기를 《남아메리카주에서 온 교포》라고 소개하기가 싫었다. 《평양서 오는 길입니다.》

《사곡에는 누가 있는가요?》

《에-조카가 둘이 있는데 초행이여서...》

《역에 마중 오라구 할걸 그랬수다. 백리길이 넘는데 나 많은 분이 혼자 떠나시다니요?》

운전사는 더 길게 묻지 않았다. 유철은 눈을 쪼프리고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더듬어 보았다. 송월, 청암, 청계, 월사, 사곡, 운곡 중부산악지대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멀었다.

한시간가까이 달리는 동안 그는 운전사옆에 앉은 사람이 이곳 트랙트르부속품공장의 자재과장이라는 것과 《박아바이》는 읍에 있는 손주며느리한테 다녀 온다는것, 뺨스는 운곡광산에 갔던 걸음에 무슨 부속을 실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과장이라는 사람은 유철이가 뺨스에 오를때 잠깐 쳐다 보았을 뿐 계속 눈을 감고 있다고 차가 산골길에 접어들어서야 눈을 떴다. 그가 깨어나자 뺨스안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박아바이, 손주며느리가 대접 잘해줍니까?》 과장이 담배를 붙여 물며 큰 소리로 문자 박령감이 걸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옹색해서 혼났네 .어찌나 극성인지.》

《그럼 며칠 더 있다 오시지요?》

《농장에 일감이 많아 전년 큰물피해두 다 가지지 못했는데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아바이야 이제 좀 쉬어야지요.》

《아닐세.》

박령감은 침중히 말했다.

《복속에 복을 모른다구 우린 그저 나라에서 다 돌봐 주니 지금껏 땅을 뜯어 먹기만 했지 가꾸지는 못했거든.우리 죄가 커. 내 죽기전에 땅 한뼉이라도 살 찌워 놓아야지.》

《참 아바이두. 아바이네 세대야 피와 땀으루 재더미가 된 나라를 일떠세운 세대인데 탓하려면 우릴 탓해야지요.》

운전사가 석심한 소리로 그 말을 받으며 과장을 돌아다 본다.

《과장동무, 이번에 가면 그걸 가져 올수 있을가요?》

《틀림없소. 운곡자재과장이 의문스럽다니까. 언제 그걸 다 가져다 놓았는지...》

《그러니 주자고 하겠소? 광산기계에도 써야 하는 거겠지요?》

《광산기계야 대용품을 쓰면 되지. 하지만 우리 기사장동무가 설계한 신행발동기에는 <강-50>이 꼭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걸 우린 못만드우? 다른건 다 만들면서.》

《고성능활성첨가제라는것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질 않소. 정밀기계에 유명한 박사선생이 내려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한다는데 요즘은 그 첨가제를 찾느라고 온 산판을 뒤지고 있는 모양이요.》

《얼마 쓰지도 않는건데 조금씩 사다 쓰면 되지 않소?》

《지금까지야 유럽에서 사다 썼지. 그런데 그것두 작년부터 길이 막혔다니까.》

《왜요?》

《미국놈들이 주지 말라구 압력을 가하니까 움츠러 든거지.》

《그것도 미국놈이요? 그놈들 사등뺨부터 꺾어 버려야지.》

운전사는 화가 나서 창밖으로 침을 탁 뱉었다.

《불질만 해보래. 제놈들 땅엔 포탄 한발 안떨어졌다고 으시대는데 이번엔 불바다가 안되나.》

유철은 《불바다》요, 《사등뺨》요 하는 소리들을 건너집 혼사말 하듯하는 세사람을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았다. 어쩐지 모두 감때사납게 느껴진다.

(어째 사람들이 모두 사나와졌어.)

조심해야 했다. 인정보다 분노가 가슴속에 고인 사람들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갑자기 뺨스가 멎어 섰다. 운전사가 창밖으로 머

리를 내밀었다.

《연구사선생, 안녕하시우?》

《아이 아바이, 안녕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은곡광산엘 가우다.》

단정한 작업복차림에 커다란 지함을 등에 진 처녀가 창밖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유철은 처녀를 눈여겨 살펴 보았다. 햇빛이 춤추고 있는 샘물처럼 맑은 눈, 벌에 그을은 가름한 얼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물결쳐 내린 날씬한 몸매, 보기 드물게 매력적인 처녀이다.

《그걸 지고 또 령길을 넘었구려. 시간이 있으면 태워다 드리겠는데.》

《일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수정작업이에요. 그럼 조심히 다녀 오세요.》

목소리도 옥을 굴리는듯 하다.

《수고하시우다.》

처녀는 멀어져 갔다.

《누구요?》

과장이 묻자 운전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곡시험포의 벼육종연구사요.》

(사곡!) 유철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고향의 연구사 처녀이다. 그러니 서덜밭에 조와 피만을 심어 먹던 고향땅에도 벼육종연구사가 생긴 모양이다.

《산골사람들 흰쌀밥 먹이겠다구 사곡하구 청계에다 시험포를 만들어 놓고 몇해째 저렇게 령길을 넘나 들며 애쓰는데 참... 작년엔 그 다수확벼품종이 다 났다구 과학원에서두 나오구 모두들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놈의 큰물이 시험포를 쓸어가지 않았겠소. 모래가 한벌 깔린 논판에 혼자 서서 소리를 안내겠다구 입술을 깨문채 울고 있더구만. 저렇게 고운 체네가... 목석같은 이놈두 같이 울었수다. 망할놈의 하늘!》

운전사가 목이 메어 하자 박령감이 목갈린 소리로 중얼거린다.

유철은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할수는 없었으나 조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는 다시한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연구사처녀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사곡과 청계, 줄잡아도 50리 길이다. 그 길을 저 처녀는 분명 벼포기가 들었을 지함을 지고 걸고 있다. 말을 들어 보면 하루가 아니라 몇해째 계속... 도대체 무엇때문에? ...

빠스는 령길에 잡아 들자 양양 소리를 내며 모지름을 쓰기 시작했다. 몇해째 겪고 있다는 고난의 흔적이 이 빠스에도 박령감의 깊은 주름살과 연구사 처녀가 등에 진 지함에도 짙게 배여 있는듯 했다.

창밖으로는 첩첩한 산발들이 느릿느릿 다가 온다. 유정한 산천이요, 잊을수 없는 고향땅이다. 그러나 알아 볼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이 고장을 떠날

땐 여기에 오솔길밖에 없었다. 골짜기마다 펼쳐진 논벌도 산기슭의 오붓한 마을들도 광산도 없었다. 처음 만난 고향사람들- 이 세사람과 연구사처녀의 눈길과 말투, 체취에서도 그때의 순박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의지와 서리찬 분노, 타는듯한 열정이 느껴질뿐이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젠 50년이란 긴 시간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 웅근 반세기.

타향살이 몇해런가

손 꼽아 세어 보니

이민으로 팔려 간 남아메리카의 녹거리술집에 앉아 누군가가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락을 따라 외며 짹짹한 눈물과 함께 쓰거운 술을 마셨다. 두고 온 고향산천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저주로운 주체39(1950)년 가을 강산마저 폭연에 그슬리고 피에 젖었던 그 가을 피난을 간다고 떠난것이 철원에서 대폭격을 만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굴러가다 보니 열다섯에 난 자기와 아버지는 남쪽땅에 남았고 어머니와 형은 행방조차 알수 없었다. 뒤이어 아버지의 죽음 이민수출...

고향 떠난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

치량한 노래가락과 함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열세살난 아들도 거치른 이국땅에 묻었다. 몇푼의 돈이 없어 길가에서 싸늘히 식어 가는 아들에 시신을 불안고 피눈물을 흘렸다. 아, 돈! 그 피눈물이 그가 이 세상에 보인 마지막눈물이었다. 우는자와 죽은자는 패배자이다. 세상에 더 살아 있을 리유가 없을 때는 죽으면 되지만 살아 있을 때까지는 가혹해야 했다. 그는 돈을 모으려 미친듯이 돌아쳤다. 조출한 기업을 차려 놓고 이제는 웬만한 놈이 장갑을 던져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덧 백발이 되었다. 지난해에야 고향에 어머니와 형의 묘소가 있고 두 조카가 살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벽계수 흐르는 골짜기, 다박술 푸른 언덕, 앞산덕의 진달래, 등잔불 고요히 흐르던 정든 초가집, 죽어서 뉘이라도 가보고 싶던 고향이었다. 그는 고향에 갈 차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뒤미처 조국이 여전히 미국과 맞서 간고한 행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겹쳐 들었다.

미국과의 싸움, 그의 노리에 첩경 떠오른것은 재가루 날리는 거리와 피에 젖은 산야였다. 그때부터 유철은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사서 읽었고 조국의 소식이라면 어디라도 찾아 가 들었다.

미국은 이 행성의 제왕처럼 행세하는 유일초대강국이다. 미국앞에서 《예스》하면 살고 《노》하면



죽는다는것이 낱말로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조국과의 대결에서만은 계속 계절을 치고 있었다. 이해할수 없었다. 더우기 이해할수 없는것은 조국이 것처럼 간고한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비상한 도약을 시작하였다는것이였다. 인공위성발사로 세상을 들었다 놓은것도 사실이다.

부국강병이란 재력이 없이는 안되는 법이다. 그래서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는 순박하기만 한 고향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믿음보다 의문이 앞서 저도 몰래 고개를 비틀어 꺾게 되는 유철이였다. 그러다가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국이 련전련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앞에서는 그 고개가 다시 바로 쳐들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쨌든 대양 건너 조국땅에서 신비의 그 무엇이 태동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남아메리카주의 무더운 하늘아래 앉아서 복잡하게 생각해 보아야 자기 머리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유철은 이 길을 떠났다. 자기 눈으로 모든것을 보고 싶었다. 그는 세상만사를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는 법을 몰랐다. 오랜 세월 속히우고 속이는 속에서 살아 온 생활의 타성인지...

빠스도 낡았고 자재도 부족한 모양이다. 고난의 흔적은 어디서나 엿보인다. 이것이 고향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는가. 역시 진실은 생활속에 있었다.

(혼자 떠나오길 잘했구나!)

《여기서 좀 쉬여 갑시다. 차도 식힐겸.》

과장의 말에 그는 깊은 상념에서 깨여 났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흘러 내리는 골짜기초입이였다.

(고향땅이로구나!)

유철이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벽계수에 손을 잠그자 여름인데도 물은 얼음처럼 차다.

《평양아바이도 빨리 여기 오시우다.》

어느새 세사람은 잔디밭에 늦은 점심을 펼쳐 놓고 운전사가 소리쳐 부른다. 유철은 거기에 얼핏 눈길을 주었다. 몇이삭의 삶은 풋강냉이와 빵, 감자, 주먹밥, 먼길을 떠난 사람들의 식사준비치고는 너무나도 간소했다.

(다들 어렵게 사는구나!)

유철은 가방에서 통줄임과 훈제한 고기, 몇개의 음료를 꺼내 들고 다가갔다. 이들의 간소한 식사차림과 다른것이 어색하고 미안했다.

《허, 평양손님차림이 다르긴 다르군.》

박령감이 고뿌에 술을 부어 내밀다 말고 놀란다.

《자- 우리 운곡 약술이웨다. 한고뿌 드시우.》

《고맙습니다.》

브란디의 덜큼하면서도 콕-찌르는 맛이 아닌 순

한 느낌과 함께 명치끝이 찌르르해나며 속이 확 열리였다.

《술맛이 참 별맛입니다.》

《운곡특산이지요. 초면친구라구 평양손님두 우리 운곡에 한번 들리시우.》

《가만!》

운전사가 박령감의 말을 급히 막았다.

《이자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소?》

《소린 무슨 소리, 바람소리지.》

《아니, 소리가 들렸소. 웨침소리 같았는데...》

과장도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 순간 숲속에서 《여보세요!》하는 녀인의 가냘픈 웨침이 바람결을 타고 푹푹히 들려왔다.

과장과 운전사가 벌떡 일어 섰다. 또다시 녀인의 웨침소리.

(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살인인가? 아니면 녀인이 폭행을? ... 유철은 몸을 떨었다.

세사람은 퍼그나 시간이 걸려서야(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였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맞들고 땀을 철철 흘리며 숲속에서 나왔다. 그들의 뒤로 땀에 뜨고 머리가 형클어진 처녀가 배낭을 멘채 따라왔다.

《조심, 조심, 그 모포를 깔라구. 자- 눕혀.》

어느새 지휘자격이 된 박령감이 운전사의 좌석에 있던 모포를 깔게 하고는 부상자를 눕혔다.

《체네의 배낭을 머리에 고이라구. 과장은 다리쪽에 높이고.》

《빨리 차를 돌리우. 군병원으로 가야겠소.》

과장이 소리쳤다.

《차라리 가까운 월사진료소로 가는게 낫지 않겠소?》

《아니요. 상처를 보니 수술을 해야 할것 같소.》

빠스는 방금 내려 온 령길을 돌아서 다시 뚝아 오르기 시작했다.

유철은 그제야 부상자와 처녀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스무살을 갓 넘긴것 같은 예뻐 젊은이들이다. 총각의 머리와 바른쪽 다리에는 푸르스름한 천이 칭칭 감겨졌는데 거기에 피가 어떻게 내배여있었다. 그 푸른 천은 아마도 처녀의 옷웃을 찢어 감은것 같았다. 처녀는 하얀 난방샤쯔차림이였다. 땀에 젖은 그 샤쯔에도 피가 군데군데 묻어있다.

(차까지 돌리는걸 보니 지체높은 가문의 젊은이들인가 보군.)

《아무튼 체네가 용해. 그 험한 산속에서 혼자 업고 나오자니 얼마나 혼났겠나?》

박령감은 기특한 손녀를 칭찬하듯 한다.

《정말 혼났어요. 암만 소리쳐두 사람 하나 없지. 할아버지, 고마워요.》

《원, 누가 할 소릴.》

물에 추진 수건으로 짧은이의 얼굴에 묻은 피를 조심조심 닦아 내는 처녀의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다. 유철은 처녀의 복스럽게 생긴 둥그런 얼굴을 바라 보았다. 지체높은 가문의 자손이 분명하다. 빈부귀천은 하느님도 어쩔수 없는것이니 여기라고 돈 많고 지체높은 가문이 없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 산속에는 무엇하러 갔겠을까? 등산복차림은 아닌데 저 배낭은 또 뭐고? ...

령길을 내려 꽤속으로 달리던 빠스가 속도를 늦추었다. 아까 만났던 연구사의 뒤모습이 보이더니 어느새 우줄우줄 자라나듯 가까와 졌다.

《연구사선생, 어서 타시우.》

《아바이, 왜 돌아 오세요?》

《급한 환자가 생겼소.》

빠스에 오르던 연구사처녀는 가벼운 비명을 지르다 말고 열린 한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지함을 벗어 뒤자리에 놓더니 조심히 과장에게로 다가갔다.

《제가 좀...》

부상자의 발치에 앉아 다리를 잡고 있던 과장이 연구사처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환자의 상처를 유심히 살피던 연구사가 과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지혈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저- 이걸로 허벅다릴 한번 더 동여 주세요.》

연구사처녀는 목에 걸쳤던 하르르한 수건을 벗어 과장에게 내밀며 마주앉은 처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동무가 이 동물 구원했군요. 고마워요.》

《아이 뭘...》

연구사처녀의 그 모든 움직임과 말투가 얼마나 부드럽고 상냥한지 유철은 그저 침만 꿀꺽 삼키었다. 고향방- 사곡의 육종연구사, 얼마나 사랑스런 녀성인가. 만약 이때 빠스가 토끼털을 하며 벗어나지 않았던들 그는 이 매혹적인 처녀에게 무엇인가 묻고싶은 심정을 억제하지 못했을것이다.

《이건 또 뭐야?》

운전사와 과장이 거의 동시에 뛰어 내렸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그들의 말소리가 흘러 들어 온다.

《어떻게 됐소?》

《피대가 끊어 졌수다.》

《예비가 없소?》

《뉘아만 치다나니... 이걸 어쩌면 좋수다?》

유철은 넋지시 밖을 내다 보았다. 순간 가슴이 후두두 떨린다. 남아메리카주의 댄스계곡, 그 운명적인 계곡의 다리와 신통히도 같았다. 그는 눈을 홑떴다. 계곡을 씻어 내리는 물소리가 피할수 없는 운명의 속삭임인양 가슴을 압박한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불안고 댄스계곡의 다리우에서 몸부림치던 그때처럼 불안스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니다. 님은데는 적었다. 댄스계곡엔 이처럼 울

창한 수림도 없었고 이끼덮인 바위들도 없었다. 그저 희뿌연 강물만이 메마른 기슭을 핏고 있을뿐이었다. 그 강기슭에서 한 알갱이의 사금을 얻기 위해 수천의 인종이 와글와글 끓었다. 아들도 한그람의 금을 더 얻으려다 계곡에서 곤두박치고 말았다. 그애를 안고 다리우에 서서 목갈린 소리로 오가는 자동차들을 세웠으나 누구도 가난한 이민인부인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 한방울, 두방울 아들의 몸에서 피는 말라 갔고 끝내는 그렇게 숨지고 말았다. 그렇다. 님은데는 없었다. 굳이 꼬집어 댄다면 계곡에 높이 걸린 다리라는 점. 똑같이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가 그 다리우에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이는 가난한 이민인부가 아니라 이 고장의 지체높은 가문의 자손이다. 그리고 지금 그를 살리겠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속에 있다. 그러니 그가 구태여 후독거리는 가슴을 안고 불안에 시달릴 까닭은 없는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과장이 결심한듯 차에 올랐다.

《담가를 만들어 청계진료소까지 후송해야겠소. 운전사동문 저기 가서 장대 두대를 찍어 오우. 천동무들은 이 모포루 담가만들 준비를 하고... 자 서두르오.》

빠스안이 분주해졌다.

《이사람 과장, 됐네. 저기 차가 한대 오누만.》

줄곧 뒤만 바라 보고 있던 박령감이 소리쳤다. 정말 화물차 한대가 꽤속으로 달려 오더니 어느새 뒤꽂무니에 와서 멎었다.

과장과 운전사가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운전칸에서 깨끗하게 차린 서른남짓한 짧은이 하나가 튀어 나오고 적제함에서 한쪽 어깨에 배낭을 걸친 군인이 뛰어 내렸다. 그들은 곧장 빠스로 달려 왔다.

《어디 좀 봅시다. 부소대장동문 어깨를 좀 잡아주오.》

짧은이는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머리에 감은 천을 풀더니 이어 다리에 감은 천도 풀기 시작했다. 상처를 꼼꼼히 살피던 짧은이가 밖에 대고 소리쳤다.

《삼촌, 내 치료가방!》

《어떻소?》

부소대장이 근심이 가득해서 물었다.

《큰일날번 했소. 하퇴골절에 슬관절이 상했소.》

《그럼 어떻게 된다는거요?》

《제때에 수술만 받으면 일없소.》

《다행이군. 길가에서 외과의사를 면바로 만났으니.》

둘러 섰던 사람들이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다리의 상처를 슬쩍있게 소독하고 주사를 놓더니 명령하듯 말했다.

《부목!》

군인은 두말없이 자기의 배낭에서 알팍하나 큼직한 지함을 꺼냈다.

《이거면 되겠소?》

《종구만.》

지함의 물건들이 의자우에 쏟아졌다.

유철은 연구사처녀의 놀란 눈길이 군인의 손에서 배낭으로 그리고 얼굴에로 재빨리 옮겨지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처녀의 눈길은 군인의 얼굴, 아니 목덜미의 유표한 화상자리에서 떨어질줄 모른다. 무슨 일인가? 그는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처녀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찾아 내려 애썼다. 팻팻한 지함을 툭툭 꺾어 접는 군인의 억센 두손과 다부진 몸에서는 용수철같은 탄력이 넘쳐났다. 다만 얼굴만은 이상하게 창백해 보인다.

의사와 군인이 부목을 대고 머리의 상처까지 처치했을 때 부상자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군인이 머리를 쳐들었다.

《물을 찾소.》

《물! 물은 안되오.》

《선생, 여기 끝이 있는데?》

박명감이 서둘러 꿀병을 내들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알콜은 어떻소?》

과장이 덤벼치며 묻자 의사는 또 고개를 저었다. 군인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소독솜을 잡더니 오른쪽 약손가락을 문지른다.

《어찌하는지요?》

의사의 날카로운 부르짖음-

유철은 미처 《앗》 소리를 칠 사이도 없었다. 《앗》 하는 비명소리는 등뒤에 서 있던 연구사처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칼로 베인 군인의 손가락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 내린다. 부상자의 입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 군인을 보며 모두 입술만 감빳았다.

《너무 많이 뽑지 마오.》

《일없소. 팔뚝에 피가 한동이라지 않소.》

유철은 그들의 말을 꿈결에서처럼 들었다.

《됐습시다. 이젠 빨리 군병원으로!》

《그럼 화물차에 옮길가요?》

그 말에 의사가 대바람에 눈을 모로 세운다.

《왜 그러니까?》

《이 차는 피대가...》

《참, 피대가 못쓰게 됐다구 했지요. 그렇지만 화물칸 안됩니다.》

의사는 창박으로 머리를 쭉 내밀었다.

《운전사동무, 우리 차 피대 벗기시오. 시간이 없소. 빨리!》

《그런데 자넨 어쩔려구 그러나?》

화물차운전사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맞받아 소리쳤다.

《환자를 후송하고 가요. 삼촌은 여기서 피대 얹어 끼우고 먼저 가시라요.》

《정신 있나? 대사 망칠려구 그래?》

《의사가 붙어 있어야 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화물차운전수의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아바이, 새서방까지 떼웠으니 상빈대접 받긴 코집이 글렀습다. 허허허.》

《참, 이거 무슨 판인지. 좌우지간 잘 갔다 오라구.》

그들이 떠들썩 웃으며 하는 말을 유철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었다. 머리가 뻥해 왔다. 빠스가 떠나자 그 흔들림에 눈앞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일들이 더우기 종잡을수 없는 환각처럼 느껴진다.

(정말 귀한 집 자손인가? 혹시 평양에서 온 고위급의? ...) 그는 자기의 예감에 온몸이 짜릿해났다. 그럴수 있다. 차를 돌리고 가던 길을 에돌고 또 손가락을 베여 피까지 먹이면서라도 기어이 구원해야 할 젊은이일것이다. 그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응당한 보수와 행운이 차례지고...

《아바이, 차를 세우십시오.》

20분도 못가서 의사가 지시했다. 부상자의 맥박을 재고 있는 그의 얼굴이 컴컴해졌다.

부소대장이 다급히 물었다.

《왜 그러오?》

《수혈을 해야겠소.》

《수혈! 그런데 피형을 알수가 있소?》

의사가 좌중을 둘러 보았다.

《이 동무의 공민증이 어데 있습니까?》

유철은 긴장해졌다. 모든 시선이 어린 처녀에게 쏠렸다.

《찾아 보지 않았습시다. 전 그저...》

처녀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그럼 이 동무가 누구요? 어데 있는 동무요?》

《모릅시다.》

《모르다니?》

의사보다 더 놀란것은 유철이었다. 모르다니? 그럼... 그는 부지중 이 차에 오른뒤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물었다.

《이 젊은이가 뉘신지 모른단 말씀이요?》

《네.》

《동문 누구입니까?》

의사가 또 물었다.

《전 읍농장 축산기수입니다. 방목지조사를 하다가 비명소리가 나기에 달려 가 보니 이 동무가 벼랑 밑에 쓰러져 있었습시다.》

《음- 그렇게 됐구만.》

유철은 눈을 감았다. 어느새 부상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던 군인이 손수건에 싼 물건을 의사앞에 내들었다.

《무슨 광석같소. 보시오. 부소대장동무, 이렇단 말이요. 그래 신경 안나게 됐소? 그제 일만 알지 몸

건산 통 모른다니까.》

《제 피가 0형입니다.》

담담하면서도 옥을 굴리는듯한 목소리. 유철은 흠칫 눈길을 들었다. 연구사처녀가 하얀 팔을 의사 앞에 내밀고 있다.

《일없겠습니까?》

의사가 벌써 굵직한 주사기를 들어 미안쩍게 연구사처녀를 바라본다.

《뭘 주저하세요. 다행히 전 아직까지 크게 앓아 본적이 없답니다.》

처녀는 상국이 웃었다.

《그럼 좀...》

유철은 눈길을 떨구었다. 차마 그들의 모습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또다시 눈앞이 흐릿해졌다. 저들은 모두 이 짧은이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틀림없다. 그런데 왜 땀과 눈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바치는가? 이 모든것이 병원에 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산되는가? 설사 그렇다 해도... 그의 머리는 불로 지지는듯 아파났다. 50년만에 만난 고향사람들-이들은 과연 누구들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자- 떠납시다. 이제 정신을 차릴겁니다.》

《저- 선생, 담배 피우면 안되겠지?》

박령감이 입원실이거나 한듯 조심히 물었다.

《아, 담배는 피우십시오. 한대씩만.》

의사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이 비끼자 제일 좋아하는것은 운전사였다.

《선생, 우리 통성이나 합세다. 이 과장동지하구 난 프락포르부속품공장에 있수다. 그리구 저 처녀 선생은 사곡에 있는 연구사구 앞에 앉은분은 평양 손님 그리구...》

《난 운곡령감이웨다. 운곡에 와서 <박령감 있소?> 하면 다 알아. 선생, 운곡엘 한번 오시우. 내 좋은 술 대접하지.》

《고맙습니다, 아버님. 전 월사리진료소 외과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기쁜거야 우리지오다. 저 군대동무도 비밀이 아니라면 어데 있는지 좀 대줄수 없겠소?》

운전사의 말에 군인이 싱긋 웃었다.

《참 아바이두. 전 가막봉초소에 있습니다. 지금 휴가 가는 길입니다.》

《고향은 어디시오?》

《평양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가워 하시겠소.》

《제가 이제 주소를 적어 드릴테니 운전사아바이랑 모두들 평양에 오면 꼭 들리십시오. 제가 없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절 대신해서 반가이 맞아 줄겁니다. 오늘 일도 옛말 삼아 하고...》

차가 굽인돌이를 돌아 서자 길 가던 사람이 한옆으로 비켜서며 손을 쳐들었다.

### 3

《이거 오늘은 분주한 날이로군.》

운전사가 차를 세우며 중얼거렸다.

작업복차림에 배낭을 메고 딱따구리마치를 든, 흰칠한 이마와 사색질은 눈길, 어디서나 높은 지성이 느껴지는 중년사나이가 다가왔다.

《빨리 타오. 급한 환자요.》

과장이 문을 여는참 소리쳤다.

《네?! 그럼 그냥 가십시오. 전...》

한걸음 물러 시며 뺄스안으로 얼핏 눈길을 주던 그는 급기야 뛰여 올랐다. 오르는참에 부상자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아니? 철웅이, 철웅아, 이게 웬일이냐. 응!》

모두들 깜짝 놀라 그를 주시했다.

《아는 동무입니까?》

의사가 그를 제지하며 낮게 물었다.

《네. 한공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뺄스가 조용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었다.

《벼랑에서 떨어져 사경에 처한걸 저 축산기수동무가 구원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 산속엘 갔겠는지 모르겠는데 저 동무가 아니면 큰일날번 했습니다.》

《모두 저때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생각만 하다니...》

《그럼 함께 떠났습니까?》

《네. 사실 꼭 필요한 원료를 찾겠다기에 오늘저녁 공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3일전에 헤어졌는데 이렇게 되었군요.》

《3일이요?》 의사는 눈을 홑떴다. 《그러니 동지도 지금 3일동안 혼자 산속을 다니다 오는 길입니까?》

《네. 그런데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들 있습니까?》 의사는 그의 물음은 들은척도 않고 어느새 성이 나서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왜들 그렇게 모험을 합니까? 동지들의 몸이 어디 개인의 몸입니까? 그 깊은 산속을 혼자 돌아다니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공장입니까?》

그는 죄 지은듯 모자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눈을 내리 깔았다.

《정밀기계입니다. 제 생각만 하다 보니 잘 안됐습니다.》

《글쎄 다른 잘못은 몰라도 혼자서 모험하는건... 난 의사로서 동지네 공장에 정식신소를 해야 하겠습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요.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의 진심어린 애원조에 의사도 한결 수그러졌다.

《머리의 상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퇴골절에 슬관절이 크게 상했는데 1차처치는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만 받으면 인차 나올겁니다.》  
 그는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의사선생,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니, 이리저 마십시오.》 의사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사실 나도 도중에... 이 동무를 구원한 건 저 처녀동무들과 이분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매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중년의 눈길은 자기에게로 향해지자 유철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난...》 그러나 인사는 이미 받아 놓은 뒤다. 가슴이 뭉클했다. 갑자기 성이 나서 따지고 들던 의사도, 중년의 사나이도, 이 사람들모두가 혈육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철웅이! 철웅이!》 그는 부상자의 볼을 어루쓸며 또다시 나직이 부른다. 그 나직한 부름이 마음의 메아리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기척이 없던 부상자가 눈을 떴다.  
 《의식을 차렸소. 아바이, 좀 천천히!》 의사가 환성을 올렸다.  
 철웅은 무슨 기억을 더듬는듯 눈을 쏘프리고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는 의사와 중년사나이, 군인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 보더니 불시에 손을 들어 중년사나이의 팔을 잡았다.  
 《선생님!》  
 《응, 나요. 뭘시 아프지?》  
 《선생님, 찾았습니다. 찾았...》  
 철웅은 옷주머니에서 군인이 꺼냈던 그 손수건을 힘겹게 끄집어 냈다.  
 《어디서 찾았소? 어디서...》  
 《주머니입니다. 화강암과 편마암이 엇갈린사이로 길다랗게 뻗어 있었습니니다. 그걸 따라 오르다가...》  
 《그뉘엔 꼭 광상이 있을거요. 철웅이, 동문 정말 큰일을 했소.》  
 그의 어깨가 소리없이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갑자기 중년사나이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차를 세우십시오.》  
 《왜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서 부르짖었다.  
 《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네?...》  
 《선생님, 거긴 혼자 못갑니다. 안돼요...》  
 일어 나려고 애쓰는 철웅이의 어깨를 잡아 도로 눕히고난 그는 배낭과 마치를 찾아 들고 일어섰다.  
 《가야지. 동무가 피 흘려 열어 놓은 길인데 지체할수 없지.》  
 그는 뜨거운 손길로 의사의 손을 잡았다.  
 《의사선생, 우리 철웅일 부탁드립니다.》  
 《환자걱정은 마십시오. 그렇지만 어떻게...》  
 혼자 산속을 다닌다고 방금 화를 내던 의사도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울뿐 철웅이만이 손을 허우적

거렸다. 뺨스가 몇자 그달음에 뛰어 내린 중년사나이는 손을 흔들었다.  
 《안돼요. 여러분, 저 박사선생님을 못가게...》  
 《저 사람이 박사요?》 과장이 놀라서 물었다.  
 《박사일뿐아니라 모두가 아껴야 할 금속공학자입니다. 우린 공장에 와서 특수합금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젠 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뭐요? <강-50>! 그럼 동문 조수요?》 과장이 벌컥 돌아 앉았다.  
 《아니요. 난 노동자이지만 활성첨가제를 찾으려고... 저 선생님 혼자 보내선 안됩니다.》  
 박사는 벌써 산길로 들어 섰다. 멀어져 가는 박사를 바라보는 유철은 전류에 닿았을 때처럼 찌릿해났다. 운전수와 과장이 미국의 사등뺨을 꺾어버리겠다고 으르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비상한 순간이 이 평범한 날에, 이 낯은 뺨스안에서 마련되고 있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거긴 제가 잘 알아요.》  
 축산기수처녀가 발딱 일어 섰다. 박사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래우고 있던 연구사처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기의 옷을 벗어 어린 처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정말 고맙군요. 동무, 이걸 입고 가요.》  
 《연구사언니, 우리 농장에 전화해 주어요.》  
 《알겠어요.》  
 축산기수처녀는 철웅이가 베고 누운 배낭을 조심스레 바로잡으며 속삭였다.  
 《배낭을... 입원실에 갖고 계세요. 제가 들리겠어요.》  
 《그럼 동무가 날... 고맙소. 기다리겠소.》  
 두 청춘남녀의 타는듯한 눈길들이 마주쳤다.  
 《체네, 이걸 가지구 가라구. 원기를 돌구는덴 제일이야.》  
 박령감이 꿀병을 내밀자 과장도 얼른 점심식사를 한데 썬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것도 가지고 가오. 박사선생 식사부터...》  
 《자- 그럴것 없이 그걸 모두 여기 넣으십시오.》 부소대장이 자기의 배낭을 헤쳤다. 《산발을 타는덴 박사선생이나 처녀동무보다 내가 낫겠지요.》  
 유철은 어리둥절해서 이 사람 저사람 바라보기만 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가? 금방 산속을 헤쳐 나오고 피를 뿜고 하더니 또 어디로 간다고?...  
 《동문 처음 휴가를 간다면서? ...》 의사가 부소대장의 팔을 잡았다. 마주치는 초연한 눈길, 부소대장은 싱긋 웃었다.  
 《이 동무들은 피까지 바치고 있는데 휴가쯤이야 못 바치겠소. 선생, 철웅이를 부탁하오. 후에 다시

만남시다.》

《동문 정말...》 의사는 눈을 슴벅였다.

과장이 큼직한 알콜병을 배낭에 넣어 주며 부소대장에게 수군댄다.

《98%요. 박사선생께 조금씩만...》

《알겠습니다.》

유철은 버릇처럼 돈지갑에 손을 가져가다 말고 흠칫 놀라 움츠러뜨렸다. 자기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바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퍼런 지폐장이 무슨 소용이라. 여기선 돈으로 살건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깨끗한 마음과 것처럼 고귀한 피를, 또 이처럼 억센 의지를 어떻게 돈으로 산단 말인가. 그렇다. 돈으로 순간의 사치와 향락을 살지는 몰라라 그것만은, 그것만은 결코 살수도 얻을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연구사처녀가 부소대장의 손에 봉대를 감아 주며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을 또다시 꿈결에서처럼 보았고 꿈결에서처럼 들었다.

《산속에서 손을... 주의하세요. 저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부소대장은 그 인상깊은 웃음을 띠었다.

《시간을 놓치면 한해를 놓치는데 선생은 안되지요.》

《사곡에 오시면 시험포에 들리세요.》

《꼭 가겠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이다. 가슴이 후터워났다. 부소대장은 내리기전에 철웅의 어깨를 잡았다.

《철웅이, 우린 좋은 형제가 될거요. 형 하나 생긴 줄 알라구. 박사선생 모시구 병원에 가겠소.》

《형님.》 철웅이가 군인의 손을 꼭 부여준다.

군인과 농장원처녀는 내렸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히들 가십시오.》

손을 흔드는 연구사처녀의 눈이 샘물처럼 뚫어 오른다. 박령감이 중얼거렸다.

《귀한 사람들이야...》

《그 군대 어디서 본 사람 같다.》

운전사가 변속을 넣으며 기웃거렸다.

《쉽지 않은 사람ियो. 그래서 그렇게 보이겠지.》

《글쎄 그렇긴 하지만. 아니, 꼭 어디서 본 사람이 우다.》

《그 동문 공화국영웅입니다.》

뒤에서 연구사처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렸다.

《뭐요?!》

과장이 또 벌췌 돌아 앉았다.

《몇달전 사곡탁아소에 뜻밖의 화재가 났을 때 불길속에서 스무명의 아이들과 보육원을 구원해낸 동무입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도 아이들의 놀이감까지 다...》 처녀는 목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울수다. 신문에 났겠지요? 보구래. 과장동무가 아무리 그래두 눈 밝은덴 운전사 못당해요.》 운전사가 으쓱해서 떠들자 박령감이 무릎을 쳤다.

《아뵐사! 방금 불속에서 나온 사람을 또 보냈구나!》

《의사선생도 몰랐소?》

《몰랐지요. 휴가 가는 길이라구 타차고 하기에 통성만 했습니다. 얼굴색이 별로 창백하다 생각하면서...》

《참, 만류하기라도 했을걸. 고향에선 부모님들이 완쾌된 아들을 기다리고 있겠는데...》

《그래도 그 동문 갔을겁니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또다시 옥을 굴리는듯한 목소리, 고르로운 발동소리만이 차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산길을 벗어나자 푸른 논벌이 펼쳐졌다. 길가에 《청계2km》라는 리정표가 나타났다.

《아바이, 전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연구사처녀의 말에 운전사는 말없이 차를 멈추었다.

《동문 병원에 가서 좀 안정해야 합니다.》 의사가 연구사처녀의 지함을 잡았다.

유철은 이번에는 의사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할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일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놓치면 또 일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선생님, 환자를 부탁합니다.》 처녀는 싱긋 웃었다.

처녀도 부소대장처럼 철웅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그 세세한 몸동작이며 말투며가 모두 아까와 같이 반복되었다.

《철웅동무라 했지요. 고마워요, 철웅동무, 저도 연구사랍니다. 동문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주었어요. 동무들의 그런 마음에 떠받들려 있다고 생각하니 각오가 깊어져요. 치료를 잘 받아요. 의사선생님이 곧 나올거라고 해요.》

아픈상처를 쓸어 주듯, 불안한 마음을 달래이듯 처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선생님...》

《제 이름은 숙이에요. 라숙, 그저 누이라고 불러요. 응, 병원에 꼭 가겠어요.》

연구사처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눈인사를 보내고 내렸다. 과장이 한숨을 쉬며 운전사를 나무랐다.

《왜, 가만있소? 피까지 뽑은 몸인데 좀 말리지 않구...》

《어떻게 말립니까? 이자 그러지 않습니다까. 모두 그렇게 산다구요.》

《쉽지 않은 체네야.》 박령감이 중얼거리더니 자기도 가방을 들고 일어 섰다.

《아바인 왜 또 그러시오?》

《나두 내리겠네. 아무 차나 잡아 타구 빨리 가서 일을 해야겠어. 총각, 인차 나으라우. 축산반체네가 총각을 살렸어. 의사선생, 마저 수고하시우.》

박령감까지 내리자 파장이 이마를 찼다.

《하긴 다들 저렇게 뛰고 있지. 우물대는건 이 잘난 자재파장뿐이야.》

《파장동무야 그렇게 말할것 있소. 예비피대도 없이 돌아 치는 나 들으라는 소리같은요.》

《아니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요.》

유철은 판자노리를 힘껏 눌렀다놓았다. 고막이 징- 울린다.

## 4

의사와 파장은 수술실로 가고 운전사는 등받이에 몸을 젖힌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17시 40분이었다. 이 뺄스에 오른 때로부터 5시간 40분이 흘렀다. 5시간 40분,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 웅근 한생이 실린것 같았다. 모든것이 폭풍처럼 밀려 왔다 폭풍처럼 밀려갔다.

술속에서 들려 오던 처녀의 가냘픈 웨침소리, 뒤이어 나타난 피투성이의 젊은이, 되돌아 선 뺄스, 샘물처럼 끓어오르던 연구사처녀의 맑은 눈, 의사의 날카로운 부르짖음, 군인의 손가락에서 솟구치던 피, 불길이 이글거리던 박사의 타는듯한 눈길,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귀한 사람들이야.》 박령감의 목소리이다. 유철은 뺄스안을 휘둘러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젊은이가 베고 누웠던 배낭만이 한가운데 동그라니 남아 있다. 아, 의롭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들이었던가? 50년만에 만난 고향사람들이었다. 그 어떤 신비의 힘이 그들을 그처럼 의롭게, 그처럼 역세계 변모시켰는가? 유철은 자기가 울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오랜 세월 뒹눴다게 일어 불고 모질게도 말라 버렸던 눈물이 눈굽을 적시었다.

유철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름 못할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비로소 이 평범한 고향사람들에 의하여 강성부흥의 새 시대가 개척되고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속에 바로 자기의 조카들도 있으리라는것을...

유철은 축축해진 눈굽을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아니, 그는 자기자신도 그들속에 함께 서고 싶었다. 고향길에서 만난 이 의로운 사람들처럼... 인생의 말년에나마 수십년 이국땅에서 찢기고 터졌긴 넓이 고향의 향기속에 환생됨을 느꼈다.

파장과 의사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회색이 만면하여 나타났다. 그래도 운전사가 자못 근심스레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자 파장은 허부터 내들렸다.

《정말 귀신같은 숨씨요. 난 우리 군 외과파장이 그런 재간등인줄 몰랐소. 이제 한상 잘 차려 놓고 그를 청할테요.》

의사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제는 세 분이 저와 함께 가십시오. 오늘 수고들 하셨는데 제가 한상 차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잔 말ियो?》 파장이 의아스레 물었다. 의사는 얼굴을 붉혔다.

《사실은 오늘이 제 결혼식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시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운전사가 기가 막히다는듯 조향륜을 두드렸다.

《아니, 그럼 장가 들려 가는 길이겠소?》

《새서방이 실종됐다구 아마 소동일겁니다.》

뺄스에 오른 이래, 아니 고향에 발을 들여 놓은 그때부터 줄곧 놀래 가지고 있던 유철은 다시한번 놀랐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다.

《갑시다. 평양아바이도 초행이라니 아침에 모셔다 드려야지요. 새서방의 보증도 서주어야지. 그러구 보면 뭐 구실이 많구만.》

파장과 운전사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가 뺄스에 남아 있던 축산기수처녀의 배낭을 집어 들었다.

《철웅이한테 이 <접선암호>를 가져다 주고 오겠습니다.》

《접선암호》를 둘러 멘 의사가 입원실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던 유철은 저도 몰래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참말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이로군.》

문득 손목시계를 본 그는 이 짧은 시간동안에 일생을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새로와졌다.

# 가을이 온다

한대준

장알진 손바닥

침 발라 비비고

어허라 갈아줘라 《낫》을!

풍성한 가을이 마중 오누나

아직은 우리 걷는 자옥자옥

모진 눈보라는 쌓이고쌓여도

걸어차는 호기찬 발걸음

주저앉지 않은 주인된 기상이 력력타

웃으며 헤쳐 온 시련의 눈보라

발밑에 밟히어 눈석이로다

호호탕탕 두려운게 있었어나

몰아치는 먹장구름 모질었어도

마음도 밝게 바라본 래일이 온다

웃으며 헤쳐 온 걸음걸음

제손으로 가꿔 온 열매가 익는다

오호라 가을이 온다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천년대의 가장 시련 많던 이 세기의 언덕까지

남의 손 남의 힘 빌지 않았다

주인된 권리가 떼떽하다

사나운 눈보라에 동면한 이 있다면

들판의 돌피처럼 숨아내리라

어허 주인은 자기의 열매만을 거둘 때

이 시대의 참된 주인이로다

혼자서는 걷지 못해

의지함이 있었다면 백번을 쓰러져도

심장과 심장이 의지하고

넋과 넋이 의탁하고 온 길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천만리

걸어 온 길에 후회가 없어라

풍성한 가을이 마중 오누나

피줄 두드러진 팔뚝에 힘이 넘쳐나

가슴에 신심은 백배해진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바라보아 흐뭇한 강성대국작황

장군님품에서 익은 열매 흐뭇하구나

걸어 온 길 멀었어도 공지는 높아

헤쳐 온 길 모질었어도 떼떽하다

에둘지도 앓고 남의 신세 청함 없이

조국과 함께 시련도 아픔도 나누며

운명을 함께 한 인민이여

아, 조국과 생을 같이했다면

수확의 《낫》을 쥔 권리가 있다

가장 엄혹한 시련의 계절을 이기며

장군님 가꾸신 가을

어허, 승리의 가을이 온다

가사

## 전호여 너와 함께

림성희

찬비가 내려도 전호가에서

해 가도 달 가도 전호가에서

전호여 너는 영원한 나의 사랑

너와 함께 나의 청춘 값 높이 흘러 왔네

눈보라 날리는 전호가에서

장군님 모시고 노래도 불렀네

전호여 너는 못잊을 나의 추억

너와 함께 나의 청춘 위훈속에 흘러 왔네

그리운 고향과 잇닿아 있어

어머니품처럼 안고 산다네

전호여 너는 귀중한 나의 조국

준엄한 날엔 너를 지켜 이 한몸 총폭탄 되리



## 그들이 택한길

랑호신

동 터오는 가을날씨는 제법 서늘러운 감을 준다.  
그러나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밤 새워 산중턱을 타고 달려 온 성철이와 기남이의 잔등엔 땀이 질퍽하니 내배였다.

달린것도 달린것이지만 기운이 지친 그들인것만큼 어지간히 힘도 들었다.

《기남이, 이제 좀 쉬고 갈가?》

성철이 머리를 뒤로 돌리며 갈린 소리를 냈다.

《예, 좀 쉬자요.》

기남은 여직껏 말 한마디 없던 성철인지라 그 목소리가 반가와 제격 응수하였다.

락엽 진 언덕받이에 퍼터앉은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과 목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느끼지 못하던 시원한 공기가 그들의 드러난 살결에 어리광 부리듯 사물거렸다.

하지만 기남은 왜 그런지 구덩이에 빠진듯 가슴이 답답해 났다.

기남이 옷웃단추를 두개나 벗기였으나 이상하게도 그 중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옆에 앉은 성철이도 자기와 같은 심정인지 신통히도 자기처럼 단추 두개를 벗기고 나서는 기남이가 들을세라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그제서야 기남은 그것이 그 무슨 자연현상이나 육체적부담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몇시간전에 있는 일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성철이 역시 그 감정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내 심정이 이럴진대 조장동지야 오죽할가. 하지만 조장동지두, 자꾸 그러면 난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기남은 순간 눈부리가 띠끔하더니 망막에 물기가 핑 고임을 느꼈다.

그럴수록 성철의 마음을 돌려 봐야 하겠는데 기남이로서는 성철이가 볼세라 손등으로 눈굽을 뺨문지르고서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다리만 버둥거리었다.

성철은 기남의 부질 없는 행동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동 터오는 하늘만 멍청히 쳐다 보고 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어 마라초를 종이에 꺾꺾 비벼 말아서 침칠을 한 다음 입에 물고는 피운다.

물론 담배불을 두손으로 감싸 쥐고 피우긴 하지만 이것은 적구활동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었다.

《조장동지!》

기남이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그러오?》

《하늘이 푸르지요?》

《음? 음, 정말 맑고 푸르구만.》

《저런 하늘은 우리 나라뿐이래요.》

《글쎄, 그렇다는것 같애.》

기남이의 생뚱같은 말에 진성 대답하는 성철은 마음이 애잡팔해 졌다.

(이 친구...)

성철은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기남이가 기특히 느껴져 그를 한쪽 팔로 끌어 안으며 너스레를 피웠다.

《어, 출출한데... 뭐 좀 없어?》

《조장동지두, 아침밥은 부대에 도착하여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랬던가? 참, 그렇지!》

《허허, 조장동지두, 모르는척 하면서. 정말 있어요. 여기에!》

기남은 앉은 허리를 뒤로 젖히며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몽테기를 꺼내었다.

《뭇이게?》

《보라요, 뭇지.》

기남은 서둘러 종이에 싼것을 헤쳤다.

한줌가량 되는 다래였다.

《이거, 어디에서 났어?》

《왜요. 신기하지요. 예-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

말끝을 흐린 기남은 제 먼저 다래를 맛 있게 꿀꺽 넘긴다.

기남은 또 눈물이 핑 고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장동지두, 하필이면 배 고프다는 소리는 왜 꺼내면서...)

《하여간 어떻게 생겼던 우선 먹구 보자구.》

성철은 히죽이 웃으며 다래 한알을 입에 넣었다.

상긋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주는 다래였으나 왜서인지 목구멍으로 넘어 가지 않았다.

(옥영이, 고맙소!)

성철은 망막이 흐려 지고 울대가 오르내리는것을 참느라 애썼다.

아릿다운 옥영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물거렸다.  
어제 저녁이었다.

당장 부대의 공격을 앞두고 성철은 적 무장배치  
상태를 정찰하여 보고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다.

정찰과장은 임무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녀성무  
선수를 배속시켜 준다고 하면서 옆방에 대기시켰던  
무선수를 불렀다.

뜻밖에도 무전기를 멘 옥영이가 살며시 문을 열  
고 들어 와 그들앞에 섰다.

(아니... 당신이?)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옥영이가 아들 광수와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군  
복을 입었을까 하는 의혹이 짙어 졌다. 성철은 심장  
이 화닥닥 뛰고 숨결이 높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  
다.

옥영이도 놀란듯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인차 속  
눈섭을 내려 깔며 마음을 다잡느라 애썼다.

《서로 아는 사이요?》

정찰과장이 의아스러운 시선을 그들사이에 옮겼  
다.

《아...아닙니다.》

성철은 자칫 잘못 처신하면 자기에게 맡겨 졌던  
정찰임무가 변경될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아닌보살  
하였다.

《어- 모르겠다. 하여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알아 보지요.》

이렇게 되어 그들 셋은 적구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성철은 임무수행 전기간 옥영이에게 말  
을 줄수가 없었다.

기남이 그들결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였기때문  
만이 아니었다.

옥영이가 군복을 입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전선으로 떠난 후 가정에 닥친 불행을 짐작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성철은 정찰임무를 수행하는것으로써 아들과 어  
머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음먹었다.

×

그들은 말은 정찰임무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수림  
속에 모였다.

모두들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기쁨에 마음이 붕-  
뒸다.

그중에서도 첫 전투에 참가한 옥영의 가슴은 느  
닷없이 긴장되었다.

옥영은 전투라면 항상 죽음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나니 일생에 느  
낄수 없었던 희열을 맛 보게 되었다.

가슴에 맺혔던 웅이가 다 풀려 나가는것 같았다.

《모두들 정말 수고했어요.》

말을 해놓고 보니 제 할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얼굴이 활짝 붉어졌으나 어쩔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기분에 어색한 감은 인차 사라졌다.

《옥영동무, 부대에 무전을 연결하시오. 빨리 부  
대에 정찰자료를 보고하여야 하겠소.》

성철이도 어지간히 흥분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전투임무수행은 류다른 감정이 가  
슴속에서 물결 쳤다.

예상외로 사랑하는 안해와 함께 침략자들을 물리  
치고 조국을 해방하는 성스러운 싸움마당에서 위훈  
을 세운것으로 하여 가슴 뿌듯하게 안겨오는 기쁨  
을 삭일수가 없었다.

기남이만 없다면 장한 일을 한 옥영이를 얼싸안  
고 머리가 핑- 돌게 빙빙 돌고 싶은 심정이였다.

성철은 불빛이 새여 나가지 않게 손전지를 가리  
우고 정찰자료를 알려 주었다.

전건을 두드리는 옥영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  
다.

《이젠 됐소. 제격 요기를 하고 떠나지요.》

성철의 말이 떨어 지기 바쁘게 기남은 주먹밥을  
싼 종이를 풀었다.

《자요, 제일 큰것은 우리의 전투행동에 크게 기  
여한 옥영동지에게. 그 다음 큰것은...》

《기남이, 큰지 작은지 새까만 밤에 보이오?》

《예? 조장동지도, 보이다마다요. 보십시오. 이 주  
먹밥에 옥영동지의 전투성가를 축하하는 조장동지  
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 지는데 작아질수 있습니  
까?》

기남이 실지 주먹밥이 커지는것처럼 진실감 있게  
억양을 내는바람에 성철은 저도모르는새 가슴이  
찌르르해 왔다.

(기남이, 고맙소! 동무는 어찌면 내 마음을 그리  
도 잘 알아 주오.)

성철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뜨거운 말을 하고  
있었으나 특한 소리를 냈다.

《심거운 소리. 동무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내 마  
음까지는 어떻게 알고?》

《아니 그러면?》

《됐소, 됐소. 빨리 먹고 떠나지요.》

성철이 먼저 주먹밥을 한입 떼 물었다.

배가 출출했던 기남은 게는 감추듯 잠간새에 주  
먹밥 한덩이를 다 먹어 치웠다.

《기남동지, 자요.》

《뭇데요?》

기남은 캄캄한 밤이라 무엇인지 인차 가늠할수  
없었다.

《밥이 예요. 주먹밥이 지내 커서 다 못먹겠군  
요.》

《아... 아니 이리저 마십시오. 제몫은 제가 다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전투임무수행중의 한 부분인걸요.》

《그래요? 하지만 그 임무만은 채 수행 못하겠는걸 어떡해요. 자요, 받으랴요.》

옥영이 소리 없는 웃음을 지으며 기남이의 손에 절반 남아 있는 주먹밥을 쥐여 주었다.

《기남이, 받으랴구!》

《에라 모르겠다. 싸늘한 주먹밥 뜨겁게 먹는다.》

기남이 한입 몽청 떼물었다.

순간 기남은 엄엄한 적구이지만 불 밝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누이와 같이 밥먹던 추억이 되살아 났다.

(어쩌면 우리 누이 같을가! 우리 누이도 군복을 입었다는데 꼭 옥영동지 같을거야!)

기남의 가슴이 몽클 젖어 울랐다.

이때였다.

주위에서 가랑잎 부스러지는 소리가 와삭거렸다. 모두의 신경이 일시에 긴장해졌다. 적들이 분명했다.

《동무들, 전투준비!》

성철의 낮으면서도 힘 있는 구령에 따라 그들은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무조건 산중턱을 타되 내 뒤를 따를것!》

성철은 제먼저 달려 나가며 사격했다.

그러면서도 위기일발의 순간이지만 놈들이 어떻게 발견했을까 하는 생각이 성철의 머리속에서 떨어 지지 않았다. 사실 그는 무선을 날린 지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적들의 은폐된 전파탐지소가 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적아간의 사격이 맹렬해 졌다.

놈들속에서 생포하라는 소리가 연방 튀어 나왔다.

성철이네는 얼마후 놈들의 포위속에서 빠져 나왔으나 적들은 집요하게 추격하여 왔다.

《기남동무, 옥영동무를 데리고 먼저 가오. 내가 놈들을 따돌리고 인차 뒤따라 가겠소.》

《조장동지,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조장동지, 저두 할수 있어요.》

《무슨 소리들이요. 빨리 명령대로 하시오.》

성철이 휙 돌아서서 적들에게 사격을 하며 판데로 유인하는데 뒤에서 《옥영동지!》하는 기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성철의 뇌리를 쳤다. 허나 그는 돌아 설수 없었다.

적들의 눈먼 사격이지만 그의 주변에 총탄이 우박 떨어 지듯 하였다.

성철은 놈들을 향해 연발사격을 했다.

그러나 놈들도 주눅이 들지 않고 맞받아 총질을 하였다. 철볼이 어둠을 헤가르며 엇갈려 지나갔다.

그렇수록 성철은 놈들에게 드센 사격을 들이 대며 나무사이를 빠져 달렸다.

적들이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그러면 그럴테지.)

성철은 순간의 패체가 나왔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뿐, 기남이 옥영이를 애타게 찾던 소리가 가슴에 파고 들었다.

(설마!)

마음이 불안하여 졌다.

사격을 중지한 그는 적들을 떼버리고 기남이네를 찾아 달렸다.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소리쳐 부를수도 없어 한참이나 이리 달고 저리 달고 해서야 그들의 뒤를 따라 설수 있었다.

《기남동무!》

《예, 여기 있습니다.》

《모두 무사하오?》

《조장동지!》

울음섞인 기남의 목소리였다.

《뭐요?》

성철은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 감을 느끼며 기남이에게로 달려 갔다.

옥영이가 기남의 잔등에 업혀 있었다.

《어느... 정도요?》

성철은 당황하여 말이 잘 나가지 않았다.

《치명상입니다.》

《뭐라구? 내려 놓소!》

성철은 기남이와 같이 옥영이를 부축하여 내려 놓았다.

옥영은 의식이 없었다.

《옥영동무! 옥영동무!》

《조장동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남은 무엇을 어쨌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옥영이, 당신이 이렇게 되다니 웬일이요.)

성철은 눈물이 왈칵 솟구쳐 울랐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금시까지지만 해도 정찰성파에 그렇게도 기뻐하던 옥영이가 아닌가.

《옥영! 옥영이, 정신을 차리라구. 내가 왔소!》

성철은 북받치는 설음을 녹찾히며 옥영이를 흔들었다.

허나 옥영은 잠잠하였다.

얼마후에야 겨우 의식을 차린 옥영은 성철의 손을 부여잡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우린 꼭 이겨야 해요.》

《옥영이, 알겠소. 꼭 이기요. 아무렴. 꼭 이기고말고. 옥영이!》

옥영의 입은 더는 열리지 않았다.

하많은 사연을 가슴속에 묻은채 옥영은 눈을 감았다.

《옥영이!》

《옥영동지!》

저쪽릉선에서 헤덤비며 쏘아 대는 적들의 총성이 어지럽게 들려 왔다.

옥영이를 바위밑에 안치한 그들은 길을 떠났다.

(옥영이, 내 꼭 다시 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오.)

성철은 솟구치는 눈물을 숲속에 뿌리었다.

성철의 뒤를 따르는 기남이는 눈물을 삼키었다.

《기남동무, 무선기는 어떻게 되었소?》

《적탄에 못쓰게 되었습니다.》

옥영이가 전사한후 그들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

다래를 입에 물고 씹었지만 기남이는 차마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옥영이가 부상당한 몸으로 종이에 쓴 다래를 넘겨 주며 하던 말이 금시런듯 귀전에서 쟁쟁하였다.

《기남동지, 이걸 조장동지와 같이 잡수세요. 다래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다.

기남은 옥영의 이 말을 성철이에게 하지 못하였다. 아니,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공연히 불는 불에 키질이라고 성철의 아픈 마음을 더 상하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때였다.

뜻밖에도 그들앞에 적이 나타났다.

《조장동지!》

《췌!》

순간에 긴장해 진 그들은 적의 행동을 주시했다.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 난듯 적병놈은 하품을 하며 그들앞으로 엉기적엉기적 걸어 왔다.

그러던 놈은 정신나간것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아래로 쪽 내리며 엉거주춤 주저 앉았다.

다음순간 성철은 바짝 정신이 긴장되었다.

(놈들이 여기에 있다는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조금만 가면 아군 관할지역이다.

그러므로 적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놈들의 진지를 여기에다 굴설하지는 않을것이다. 하다면?

성철은 무엇인가 놈들의 심상치 않은 흥계가 꾸며지고 있다고 간파하였다.

《엄호!》

성철은 기남이에게 나직이 한마디하고는 놈이 뒤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배밀이로 접근하였다.

적병놈이 일어서는 순간 성철은 그놈의 입을 틀어막으며 와락 덮치었다. 일은 눈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적병놈을 숲속에 끌고 온 성철은 다급히 질문을 들이댔다.

적병놈은 어찌나 혼이 났는지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이놈아, 묻는 말에 대답하면 죽이지 않을테니 바른대로 말해. 떨지 말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엔 왜 왔어?》

《모릅니다.》

《이놈아, 이제 방금 뒤를 보고도 몰라?》

《그것밖엔 모릅니다.》

《그렇다. 죽는것도 몰라?》

《모릅니다.》

《좋아, 그럼 알려 주지. 기남동무!》

성철이 기남이 앞에 손을 내밀었다.

기남은 성철의 의도를 제격 알고 피춤에서 단도를 꺼내여 던졌다.

성철은 단도를 받아 쥐는 즉시 적병놈의 턱밑에 칼끝을 바싹 들이 댔다.

《아, 이러지 마쇼. 다 말하겠습니다.》

《자식, 죽는다는것은 알면서도 뱀을 써? 어서 말해. 여기에 왜 와있지?》

《공산군을 일망타진하자고. 아 아니 인민군대형님들을 저승에 보내자고요.》

《무엇으로?》

《저...》

《빨리 말해!》

성철은 단도날끝을 놈의 턱밑에 더 바투 들이 밀었다.

《저...저... 지하폭발로!》

《깡도를 파고 폭약을 장진했다 그 말이지?》

《웁습니다.》

놈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성철은 사위를 휘둘러 봤다.

앞뒤로 산이 꼭 막힌데다 넓지 않게 난 자동차길은 틀림 없는 부대의 공격로였다.

놈들은 고지의 돌출부와도 같은 이 지대를 장악함으로써 부대의 공격을 저지시키자는 심산이었다.

성철은 놈들의 기도를 파악할수록 심중해졌다.

무선수도 없는 조건에서 새로 나타난 정황을 부대에 알릴수도 없었다.

(어떻게 할가!)

쉽게 내릴수 없는 정황이고 결심이였다. 이 순간 옥영이가 떠오르고 그의 말이 들리어 왔다.

《우린 꼭 이겨야 해요.》

(옥영이, 알겠소!)

성철은 기남이를 돌아 보았다.

《조장동지, 명령하십시오.》

기남이 한걸음 나서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저놈의 말을 다 들었지?》  
《예, 그런데...》  
《뭐요?》  
《우리의 역량이...》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오. 적들의 흥계를 좌절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게 되오.》  
《조장동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무조건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소. 우린 다 죽는 한이 있어도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저지시켜야 하오.》  
《알았습니다.》  
기남은 자책에 잠겨 머리를 수그리었다.  
성철은 다시 적병에게 다가갔다.  
《모두 몇놈이 있어?》  
《다섯명입니다.》  
《꼭바로 말해!》  
《정말입니다.》  
《군호는?》  
《죽제비!》  
《이놈아, 똑똑히 들어 두라. 네놈이 한 말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틀리는 날엔 해빛구경을 다하는줄 알라.》  
《정말입니다.》  
《좋다. 기남동무, 나를 엄호할것!》  
《알았습니다.》  
《이놈아, 너의 진지를 향해 걸었! 네놈들이 나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공산군에 정찰 갔다 오는 동료라고 해.》  
《알았습니다.》  
성철은 놈을 앞세우고 뒤따랐다.  
성철과 갈라진 기남은 은밀히 적진지에 접근하였다.  
성철이 몇분 걷지 않아서 숲속에 은폐되어 있는 적진지를 알아 봤다.  
(교활한 놈들!)  
성철이 분개한 감정을 미처 삭이기도 전에 숲속에서 적 보초가 불쑥 나타났다.  
《정지!》  
긴장된 한 순간이었다.  
포로된 놈이 성철이를 힐끗 돌아 보더니 가드라진 목소리로 지껄었다.  
《저기... 공산군에... 정찰 갔다 오는 정찰병이야!》  
《군호!》  
보초놈은 상관없이 따져 물었다.  
《죽제비!》  
성철이가 놈을 노려 보며 대답하였다.  
그 순간 성철은 보초놈의 총구가 번쩍하는것을 촉감했다.  
(속았구나!)  
성철은 지체없이 보초놈을 쏘아쳤다.

포로되었던 놈이 《공산군이다!》하고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내뛰었다.  
성철은 그놈마저 쏘아치며 적진을 향해 달려 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전투정황에 갈팡질팡하던 적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다섯놈이 아니라 열핏 눈짐작에도 열놈은 더 되어 보였다.  
포로놈에게서 그것도 속았던것이다.  
어느새 달려 왔는지 기남이도 놈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  
치열한 공방전끝에 놈들을 모조리 쓸어 눕혔다.  
그들은 갯도에 들어 섰다.  
《폭파스위치를 찾아야 하오!》  
《알았습니다.》  
완전전투태세를 갖춘 그들은 폭파스위치가 있을 만한 곳에 눈길을 주었으나 보이지 않았다.  
갯도는 점점 들어 갈수록 어둠이 짙게 드리웠다.  
성철은 전지불을 켜 들고 사방을 살펴 보았다.  
이때 그들앞에서 탐조등 같은 불빛이 확 안겨왔다.  
《기남이!》  
성철이가 기남의 앞을 막아 서며 총을 갈기자 그에게로 적탄이 날아 왔다.  
성철은 갯도바닥에 쓰러 졌다.  
《조장동지!》  
기남이 성철을 와락 그러안았다.  
《조장동지, 정신 차리랴요.》  
기남은 성철을 마구 흔들었다.  
성철은 가물가물해 지는 정신을 애써 차리려 하였으나 점점 심연속으로 말려 들어 가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폭파스위치를 찾아야 한다. 폭파스위치!)  
그는 마음속으로 모질게 웅크으나 온 몸이 천길 나락속으로 찾아 들었다.  
누군가 속삭인다.  
《우린 꼭 이겨야 해요.》  
옥영이의 얼굴이 안개에 잠긴 자태로 안겨 왔다.  
(옥영이, 우린 꼭 이겨야 해. 당신말이 맞아. 이겨야 장군님품을 지킬수 있어.)  
성철은 눈을 떴다.  
기남이가 눈물을 흘리며 찾고 있다.  
《기남이, 나를 일으켜 세우라구.》  
《조장동지, 폭파스위치는 내가 찾을테니 걱정말아요.》  
《어서!》  
성철은 기남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다. 온 몸엔 땀이 물 흐르듯 하였다.  
성철은 기남이에게 의지한채 전지불을 휘둘렀다.  
그들은 한참만에야 쓰러진 놈의 뒤에 설치된 폭파스위치를 발견하였다.

《기남이, 나를 놓고 저 폭파스위치를 빨리 짓뭇개 버리라구.》

《예.》

기남이 폭파스위치를 파괴하고 뒤돌아 섰을 때 성철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조장동지!》

의식을 잃은 성철은 불러불러도 대답을 못했다.

성철을 끌어 안은 기남은 갱박을 나왔다.

미소를 지은채 정신을 잃은 성철의 얼굴엔 승리만이 지닐수 있는 기쁨과 긍지가 어려 있었다.

기남은 무작정 성철을 살려 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업기 위해 추슬렀다.

그 통에 성철의 호주머니에서 수첩이 떨어 지며 한장의 사진이 나왔다.

기남은 사진을 집어 들었다.

거기에는 기남이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성철이와 그의 아들 그리고 옥영이가 찍혀져 있었다.

기남은 사진을 천채 마음속으로 꿰찼다.

(조장동지-! 옥영동지-!)

멀지 않은곳에서 포성이 울리었다.

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조장동지, 우린 이겼어요. 이겼어요.》

기남의 그 말이 힘이 된듯 성철이 정신을 차리었다.

뒤이어 요란한 굉음이 울리더니 땅크서렬이 나타났다.

성철은 기남이에게 의지한채 그들을 맞이했다.

전우들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옥영이, 내 꼭 찾아 가겠소. 우린 또 이겼소! 승리의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요.)

## 끝나지 않는 수업

김순학

나는 교원

그러나 오늘은 제자 되어

정중히 마음 다잡고 수업을 받는다

리수복영웅을 키워 낸

담임선생님앞에서

수수한 검은색 단긴옷에

인자하고 평범한 얼굴

영채 도는 그 눈빛은

나의 마음속까지 들여다 보는듯

정력에 넘치는 젊은분

《백두산》시를 열정 넘쳐 읊으며

영웅의 붉은 뺨을 안겨 준

선생님의 그 뜨거운 목소리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 오는듯

전화의 그날에는 남진의 길에 올라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

남녘인민들의 가슴에 불씨를 심어 준

열혈의 문학선생님

그 심장의 불길

이 가슴도 더웁혀 주어라

선생님 우리결을 떠난 후

세월은 멀리도 흘러 반세기

포연은 가시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인민의 가슴에 다시 돌아 온 선생님

오늘도 장군님의 교육자

우리앞에서 수업을 한다

리수복영웅을 가르치던 그 나날처럼

선생님의 불 같은 열정의 목소리

내 가슴에 새기노라

《김정일장군님의 전사는 판 길을 모른다!》

아, 30 살 청춘의 값비싼 피로

이 가슴에 안겨 주는 불굴의 뉘이어!

육탄영웅을 키워 낸 선생님이며

그대는 혁명앞에 한생을 바친 참된 전사

이 나라 교육자들 모두의 가슴에 새겨 주누나

충신의 심장을 지닌 교육자만이

육탄영웅을 키워 낼수 있다는

참된 교육의 진리를

아, 선생님은 정력에 넘친 모습 그대로

온 나라 교육자들앞에서

온 나라 학생들앞에서

부장조국건설의 영웅들을 키워 내는 수업을 한다

오늘도 래일도 그 수업은 끝나지 않으리라

## 침묵의 웨침

박경심

### 이상한 발자국

아무리 눈여겨 보아도  
여기선 찾을 길 없다  
발자국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승냥이? 아니  
그보다도 더 악착하고 흉물스러운  
인간이 그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괴물이  
신천! 이땅을 짓밟고 갔다

애당초 사람의 언어를 모르고  
신음하는 어머니들의 눈물과  
갈증에 목 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볼줄도 가려 들을줄도 모르는  
눈 멀고 귀 먹은 야수가  
인간! 그의 심장을 송두리채 파먹고 갔다

어디로 갔는가  
이상한 발자국을 남긴 그 괴물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면  
지구상의 얼마나 많은 곳을  
인간의 무덤으로 만들었을것인가

아직은 이 행성우엔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채 진화하지 못한  
짐승보다 못한 야만들이 사는  
장글의 땅덩어리가 분명히 있거니

똑, 똑 피를 떨구며  
거기로 이상한 발자국은 사라져 갔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 준  
세상에 돌도 없는 보금자리-  
식인종의 고향이어서

오, 높이 뛰는 이 심장에  
말조차 모자라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었던  
그 괴물의 이름은 다름아닌 미국

인류여 불을 지르라  
미국이라는 괴물이 사는 짐승의 집  
세계의 재난을 제조하는  
악마의 왕국- 미국에!

### 분노의 파도

강도의 터럭손에 눈 못감고 생매장된  
신천의 원혼들앞에 목도하는  
나의 가슴속에선 분노가 파도친다  
길길이 노호하며 사뭇치며  
그 무엇 짓부실듯 노도친다  
해변의 파도는 때로  
속삭임마냥  
잔잔히 기슭을 어루만져도  
그러나 오 상처 많은 신천아  
그처럼은 너를 달래여 줄수 없구나

나의 마음 차라리 폭풍을 불러  
원췌의 머리를 박산내는  
수백의 철추가 되고 싶다  
성조기를 찢어 발기는 우뢰가 되고 싶다  
백악관을 불 태우는 벼락이 되고 싶다

파도, 분노의 파도소리  
내 마음속에 울려 나와  
원한의 화약창고를 흔들고  
밤나무풀안에 메아리치는  
뜨거운 격랑이여

어찌 이 땅에서 총 권 병사만이  
복수를 만탄창하며 잠 못든다하랴  
온 신천이  
온 삼천리에 파도치거늘

제 소굴에서 못나오는 살인귀들  
그 마지막 한놈까지 끌어 내어  
명줄을 거머쥐고 토막쳐 내기전엔  
노도는 잠들지 못하리  
조선은 잠들지 않으리

## 자라는 아이들

살았으면  
오붓하고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으리  
어머니가 되었으리

허나 대양 건너 해적들에게  
다시 없는 구만리 인생길을 도적맞힌채  
여기서 숨져 간 너희들은 아이  
영원히 자라지 못한 백돌 어린이

피서린 화약창고앞에서  
소년단원 넥타이  
방울방울 눈물로 적시던  
어제날 이 소년도 이젠 다 자라  
너희 또래 아들이 있는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울고 있구나  
너희들은 아직도 자라지 못했구나

아이들이 잊을수 없었더란다  
나무가 크면 그늘도 커지듯  
내가 나무라면 너희들은 그늘  
그처럼 행복이 클수록

못잊어 차마 못잊어

내 어이 이렇게 자랄수 있었으랴  
만일 한시라도 너희들을 잊은적 있다면  
내 어이 이렇게 어머니가 될수 있었으랴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깃들게 할수 없는  
그 피 흐르는 울음소리를  
마음의 귀전에서 지워 버릴수 있었다면...

오, 아니다  
너희들은 자라고 또 자라고 있었구나  
어제는 어린 나의 가슴속에서  
오늘은 내 아들의 피줄기속에서  
잊으면 우린 다시 노예가 되고  
잊으면 우린 다시 피 흘려야 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너희들은 영원히 자라는  
신천의 백돌 어린이  
최후심판의 그날까지  
저것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미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인들이다, 재판관들이다!

## 침묵의 웨침

죽은 사람은  
말을 할수 없다  
산 사람도 여기선  
더더구나 말을 하지 않는다

죄없이 도살당한 생의 흔적앞을  
말없이 아무말없이  
백, 천, 만  
이 나라 아들딸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10 년... 50 년  
세월이 다져온 무거운 침묵  
끝도 없이 밀도 없이  
깊이 깊어만가는 신천의 침묵

이 땅에서는 복수라는 한마디 말조차  
함부로 쉽게 하지 않는다  
영원히 웃음을 잊은 이 땅에서는  
다만 침묵만이 소리높이 웨치는것이어늘

포신을 벗어 난 수천발의 포탄과도 같이  
이미 안전고리를 뜯  
수만발의 수류탄과도 같이  
이 침묵은 무자비한것!

미제, 너의 운명을 알겠거든  
이 서리찬 침묵의 웨침에  
잠간만 귀를 기울여 보라

## 권고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죽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는  
당신들의 이름은 어머니이지요

이 세상 모든 아들딸들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진대  
신천의 이 끔찍한 참상앞에서



미국의 어머니 당신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과연 무엇이라 부를것입니까

세월이 아직도 가서 내지 못한  
신천의 사백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는 피타는 부르짖음이  
기나긴 밤마다  
당신들의 꿈자리를 서늘케 했지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엄마의 품에서 아이들을 떼어 내어  
물대신 휘발유를 먹이고 너털웃음치는  
그 살인마의 조국이 미국이라면  
그를 낳은 어머니는  
미국의 어머니 바로 당신들이지요

미국 아닌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사람의 가족을 버기고  
사람의 머리에 대못을 박고  
사람의 사지를 찢어 낸  
인간백정들이...

과연 당신들도  
어머니라 불러야 할가요  
수천년 세월 인류가 아껴 오지 않은  
위대한 모성애에 대한 격찬의 붓을

미국의 어머니 당신들로 하여  
내 오늘 멈춰 세워야만 하는가요

아아 저주로운 미국의 사회에서  
그나마 인간성이 남아 있다면  
그나마 수치를 알고  
량심에 부끄러움을 느낄줄 안다면  
단 하나 당신들 어머니들이겠기에  
제가 낳은 자식도 자식이라 부르기 힘들고  
제가 낳은 인간도 인간이라 부르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운명의 녀인들이  
어머니의 권리를 상실한  
어머니 아닌 어머니! 당신들이기에

아량을 가지고 권고합니다  
인류가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를  
더는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짐승이 아닌 인간의 어머니로  
참말로 부활할수 없고  
백정의 피를 잊지 않는  
새로운 미국을  
당신의 젖가슴으로 낳아 기를수 없다면

대를 이어 가는  
당신들의 모국어사전에서  
어머니! 그 신성의 부름만은  
영원히 지워 버리십시오  
야만들이 추악한 입에  
영원히 담지 못하도록!

## 교훈시

# 인생길에서 얻은 금싸락 한줌

안정기

풀숲속에 있는 나무는 시들어도  
동지들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 자란다

×

행복중의 행복은 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

돈으로 가까이와 진 벼은  
돈으로 멀어 진다

×

같은 병의 술이라도 부어 주는 손에 따라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

×

칭찬을 좋아하고 충고를 싫어하면  
마음 주는 벼들이 없어 진다

×

참된 벼은 잔이 오가는 식탁이 아니라  
총탄이 오가는 전장에서 알수 있다

##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

리창유

우리 인민들에 대한 반제계급교양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당 사상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반제계급교양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를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반제투쟁정신으로 수호하기 위한 혁명적양식을 줄뿐아니라 언제나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않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싸워 나가도록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게 하여 준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수십년동안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다져 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계급적진지를 철벽으로 다지며 제국주의자들의 갖은 압살책동을 단매에 짓부실수 있게끔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보다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년간에 우리 작가들은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그 가운데서 단편소설 《군관신분증》(전인광, 《조선문학》주체87년 7호), 《모성의 권리》(김혜영, 《조선문학》주체88년 7호), 《나의 가정이야기》(강귀미, 《조선문학》주체88년 10호), 《류다른 결혼식》(김덕철 《조선문학》주체89년 3호)등은 비교적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은 작품들로서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일련의 시사를 줄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작품들에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비교적 심오한 사회적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명되고 있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풀어 나가는것은 소설창작의 성과를 좌우하는 선결조건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벽으로 지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힘차게 건설해 나가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로부터 총대를 중시할때 대한 문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편소설 《군관신분증》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문제는 시대의 절박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다.

작품에서는 3대에 걸치는 한 가정의 운명사를 통하여 무장이 강해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지켜 낼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앞날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문제의 해명과정을 통하여 일제놈들은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 비인간적만행과 학살을 감행하였을뿐 아니라 패망한 후에도 원수 미제의 침략을 도와 나선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 백년숙적이며 따라서 우리 인민은 놈들로부터 조선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철저히 계산하고 받아 내야 한다는 사상을 깊이 심어 주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와 사상이 반제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 있는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를 풀어 나갈 전제를 지어 주고 있으며 소설의 사상예술적풍격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여 나갈수 있는 조건을 확고히 마련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작가가 반제계급교양주제를 두고 깊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발견한 공로가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작가의 높은 당적안목과 형상세계의 진가가 있다.

물론 작품에는 이야기를 공부정인물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분산시킨것으로 하여 웅당 거들수 있는 형상적높이를 보장 못한 부족점도 있지만 3대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의 이야기를 단편소설에 흥미있게 집약시켜 반영한것은 창작기교상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평가할수 있는 점들이라고 본다.

단편소설 《모성의 권리》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문제도 예리하며 특색이 있다.

작품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모성의 권리를 소유한다는것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권리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이고도 신성불가침의것이며 모성애는 이 세상 사랑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 일제시기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실천할수도 없었고 바랄수도 없는것이였으며 자칫하면 무참히 짓밟혀 지는것이였다는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품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볼 때 참된 모성의 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워 주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만 향유할수 있는것이라는 사회적문제의 해명을 중요한 형상과제로 제기하고 재치 있게 풀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흔히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 작가가 예리한 사회적문제, 심각한 인간의 운명문제를 탐구하지 못하고 그저 착취계급에 속하는 부정인물의 교활하고도 악랄한 착취행위와 비인간적행동 등을 점철식으로 라벨하여 그리고 착취사회의 수난자인 피압박 근로인민대중으로 등장한 긍정인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보여 준 다음 마침내 투쟁에 일떠서는 사실을 첨부하여 이야기를 끝 맺는 경우를 찾아 보게 되는데 이런 작품이야말로 사건기록식으로 서술된 류형과 도식의 허물을 벗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런 소설들에서는 레외없이 사건속에 인간성격이 파묻혀 버려 생동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작품이 제기한 문제와 사상을 형상적으로 깊이 감득할수 없게 한다.

이와는 달리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고 특색 있는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안은 그런 단편소설은 독자들에게 하여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된 민족반역자들, 지주, 자본가놈들에 대한 증오로 가슴 불 태우게 하는 높은 형상적감화력을 조건지어 주게 된다.

여기에 이런 작품이 있다.

일본땅에서 갓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과학으로 학문을 익힌 한 조선인과학자가 수공업적방법으로 집안에 실험실을 꾸리고 잡관목으로부터 천연물감을 추출할 연구를 거듭하던중 실험용 흰천이 요구되어 부득불 안해가 시집을 때 장만한 첫날옷에서 문령 잘라 내어 쓴다. 살림살이는 나날이 쪼들고 더는 지탱할수 없어 안해는 아들을 앞세우고 몰래 집을 나와 버린다. 처와 아들과 생리별 당한 비극적수난자인 그 과학자는 집까지 팔아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침내 천연물감을 얻어 내는데 성공한다. 그는 그 물감생산과 관련한 기술문건을 가지고 어느 한 방직회사로 찾아 간다.

그를 만난 회사의 한 관리는 기술자료를 보더니 환성을 지르며 중간시험을 기꺼이 해주겠다고, 성공하면 공장에서 도입할 의향까지 있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새 기술개발이 현 생산품의 실현에 저해가 된다면서 음흉하게도 기술문건을 없애 버리고 만나주지조차 않는다.

생노알도 뿔아 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과학자는 그제야 남의 나라 땅에서 《내 고향의 색깔》을 찾으려던 그 희망이 허망한것이며 그자체가 어리석은 실책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던 끝에 숨을 거두고 만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 귀국한 《나》는 무료교육의 혜택으로 과학의 전당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 마음껏 배움의 행복을 누리고 과학탐구의 길에 나서서 불과 7년만에 잡관목에 의한 천연물감추출에 성공하였고 30대에 박사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되어 과학기술대표단 한 성원으로 일본에 간다...

단편소설 《나의 가정 이야기》는 이렇듯 아버지와 아들의 상반되는 생활과정을 엮은 한 가정의 운명사를 통하여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연구사업은 뿌리 없는 초목과 같은 것이며 자본주의사회 과학자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과 운명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와 인간문제를 설정하고 깊이 있게 풀어보이고 있다.

자그마한 고향의 시골마을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친 아름다운 한 인간이 황금만능의 남의 나라 자본주의세계에서 과학의 길로 가면 갈수록 모든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안해의 버림까지 받는 비참한 생활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과학의 길에서 만사람의 축복속에 성공의 꽃방석에 앉아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나》의 생활,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되는 생활로 엮어 진 한 가정의 극적인 운명사...

이렇듯 심오한 사회적문제와 예리한 인간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하여 작품은 독자들에게 《과학과 조국이라는 인생철학》, 다시말하여 《과학을 하기 전에 조국을 먼저 알》아야 참된 과학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 확고한 계급적자각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이렇듯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고 특색있는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문제가 담긴 예리한 사회적문제가 제기되고 이야기가 흘러 가야 형상의 과녁이 뚜렷하고 인식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우에서 언급한 단편소설들에는 또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끝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된 민족반역자, 지주, 자본가놈들로 전형화된 부정인물들의 형상이 긍정인물들과의 적대적인 갈등속에서 비교적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 놓은 장본인이며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이다.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원수놈들의 교활하고도 악랄하며 포악하고도 야만적인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들을 날날이 까밝혀 폭로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가의 일반적인 서술로 써가 아니라 부정인물들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로 그려져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이 드러나게끔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군관신분증》에 그려진 일본장교 야스게는 참으로 악랄하고도 포악한 놈으로 그려져 있다.

일제놈들에 의한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이 단행된 직후 이에 분개하여 펼쳐 일어난 조선군인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70여명이나 사살하고 100여명의 부상자를 내게 한 야스게중위놈은 한팔이 잘린 조선청년군사가 갑자기 뛰어들어 내지른 칼에

중상을 당한다. 그놈은 그후 다리를 절단하고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 가게 되었을 때 할복자살하려다가 극도의 수치감에 몸을 떨면서 조선사람들을 기어이 정복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에 뼈가루를 묻겠다고 이를 갈며 나선다. 그놈은 그후 조선강토를 다 뒤져서라도 자기를 장검으로 일격하던 《외팔사나이》를 찾아 내어 그의 목에 칼을 박겠다고 버른다.

얼마나 포악하고 지독한 놈인가. 드디어 그놈은 20여년세월이 흐른 뒤 통천제염소에서 목선을 수리하고 있는 이 《외팔사나이》를 발견한다. 이리하여 그 다음날 영문도 모르고 소금을 실은 목선에 오른 《외팔사나이》는 이 야스께놈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한다.

그로부터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그놈은 《외팔사나이》의 외아들 첫째의 애인인 본이를 룡육하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련행해가게 하고 첫째는 《징용》에 뽑아 태평양의 외진섬의 군사기지공사장에 끌려 가게 한다.

어찌 그뿐이랴. 일제의 패망후에는 미제의 조선 침략에 동조하여 조선에서 전쟁이 개시되자 놈들의 수로안내자로 나섰다. 그놈은 조선인민군해군군관이 된 《첫째》-강철국에게 걸려 개죽음을 당하고 만다.

참으로 작품에 그려진 부정인물 야스께놈은 포악무도하기 이룰데 없는 야수들이 일제침략자들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질을 체현한 자이다. 그 형상에는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별의별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왜놈의 성격적속성이 기질화되어 있다가 하면 패망후에는 미제의 사환군이 되어 조선채찍의 유리한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제놈들의 침략적본성이 체질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작품은 단편소설치고 참으로 방대한 생활화폭과 장구한 기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정인물 야스께놈의 온갖 반동적정체를 드러내어 단죄하고 있으며 일제놈들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불행과 고통들을 까밝혀 놓는다. 일본군 《위안부》로 조선처녀들을 닥치는대로 끌고 가고 징용으로 끌려다가 죽음의 교역장으로 조선청년들을 무자비하게 내모는 장면도 놓치지 않고...

그러나 이렇듯 장구한 기간의 이야기와 귀에 익도록 들어 온 역사적사실들이 지루하게 느껴 지지 않고 단숨에 읽혀 내려 가게 되는것은 이 모든 생활들과 사실자료들이 공부정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소화되고 이들의 생활장면으로 그려 지고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부정인물관계가 인생관의 측면에서 예리하게 대조되어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해명으로 이야기가 줄기차게 한곳으로 흐르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창작기교상의 부족점들은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중심주인공이 없이 3대로 내려 가면서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라렬되어 근 한세기에 달하는 한 가정의 력사가 취급되었으니 때로는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력사적사실의 《삽입》으로 하여 이야기흐름이 순탄치 않고...

이와는 달리 단편소설 《모성의 권리》에 취급된 이야기는 어머니와 딸 두 인물의 두 체도하에서의 대조되는 생활장면으로 비교적 구성이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한 부정인물들로서는 어머니 조순경과 관계되는 공장감독님과 일관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인공인 조순정의 딸 송예향과 관계되는 자본가인 다까무라 겐지로와 그의 녀편네가 등장한다.

이 부정인물들은 서로 특징적인 개성을 가진 성격적특질이 있다. 왜놈감독은 이룰데없이 포악한 놈이며 자본가인 다까무라 겐지로는 보다 음흉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도 제 자식으로 만들며 이름까지 바꾸어 달다가도 재간둥이라던 그 아이가 병신이 되자 제 낮이 깎인다고 수년동안 키우던 정도 순간에 잘라버리고 제집에서 내쫓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 부정인물들의 성격에는 조선인민을 마소와 같이 부려 먹던 과거 일제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적본성이 있는가 하면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행위를 다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비위가 거슬리면 인정사정도 없이 파렴치하게 행동하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야수와 같은 조폭성이 주도적인 특성으로 충만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독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본성과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비인간적행위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이것은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어디까지나 공부정인물들의 인생관을 대조시켜 인물들의 운명문제해결에 모를 박고 이러저러한 사회적문제를 풀어 나가야 공부정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독자들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더 잘 알게 되고 고마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굳건히 지켜 내기 위한 정치사상적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는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제계급교양주제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작품의 구성을 잘 조직해 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이 주제의 작품들이 대체로 작중인물들의 장구한 기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때문이다.

류형별로 본다면 대체로 그 내용에서 단편소설 《군관신분증》, 《모성의 권리》, 《나의 가정이야기》처럼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 아니면 과거 일제식민지통치시기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대조로 생활화폭과 장면들을 련결시키고 이야기를 펼쳐 나간 경우가 적지 않으며 드물게는 단

편소설 《류다른 결혼식》과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확정아래서 밝은 미래는 커녕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는 한 체육인의 운명사를 취급한 작품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도 공부정인물들이 설정되기 마련이며 또 적대적갈등으로 나타나는 이 인물들의 관계속에서 이야기가 펼쳐 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대조의 수법으로 작중인물들의 운명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오랜 기간의 이야기가 펼쳐 저야 하므로 작품의 구성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이 주제의 작품창작실천상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형상적요구이다.

단편소설 《모성의 권리》나 《나의 가정이야기》는 작품의 이야기가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자유분방하게 엮바꾸어 가면서 흘러 가고 있으며 그것도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등으로 나타나는 각기 다른 인물들의 운명선으로 엮어져 독자들의 가슴을 조였다 늦추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굴곡 있게 펼쳐 지고 있다. 여기에 딸이 어머니를 고향해하고(《모성의 권리》), 남편이 안해의 버림을 받는(《나의 가정이야기》) 오해선이 기본이야기선에 잘 맞물려 있음으로 하여 작품의 구성이 단조롭지 않고 비교적 립체감이 나게 짜여 있다.

다만 창작실천상의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면 단편소설 《나의 가정이야기》에서 적대적갈등관계로

기본이야기를 펼쳐야 하는 《아버지》와 그가 고심하여 만든 기술문헌을 자기네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감쪽같이 없애버리고 시치미를 떼는 왜놈회사측 부정인물과의 관계를 전혀 펼쳐 주지 않고 《정말 생눈알 뽑아갈 세상》이었다는 식으로 간단히 처리한것은 구성조직에서 하나의 실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작품은 제나라도 아닌 일본땅에 가서 연구사업을 하느라고 안해의 버림까지 받으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한 이름없는 한 과학자의 형상을 통하여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체의 조국이 있다는 우리 지식인들의 신념으로 되어 있는 명언의 참뜻, 작품의 기본 문제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형상을 통하여 잘 안겨 오지 않는다.

이상에서 필자는 간단히 반제계급교양주제의 단편소설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작품분석과 결부시켜 논의하였다.

단편소설창작에서도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들이 다른 주제와 결합되어 씌여 진것들이 왕왕 나타나곤 한다.

독자는 말할것이다. 단일주제설정을 형태상 특성으로 하고 있는 단편소설에서 다른 주제에 결합되어 반제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이 나타날수 있는가고?

그렇다, 나타날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단편소설에서는 기본주제가 아니라 기본주제에 융합되어 나타날뿐이다.

## 가사

# 통일거리 가로수

최정수

몰라보게 컸구나 통일거리 가로수야  
너를 심던 그 봄날엔 애어린 나무였지  
새로 선 이 거리에 우리 너를 심으며  
남녘겨레 일싸 안을 통일의 날 그랬지

푸른 잎새 설레는 통일거리 가로수야  
너를 심어 한해두해 이젠 벌써 그 몇해나

분렬의 한을 품고 네 이렇게 크도록  
꿈에도 소원이던 통일은 못왔구나

가슴 치며 안아 보는 통일거리 가로수야  
네가 더 크기전에 통일을 안아 오마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아래서  
통일년륜 첫 돌기를 기어이 새겨 주마

## 복무

유현

전방군의소 간호원 정성애는 전선에 나온 후 단 한번도 신발을 벗고 누워 본적이 없었다. 군의소에서 화선까지는 불과 10여리 남짓하였다. 낮과 밤이 전투로 이어 지는 고지에서 부상병들이 때없이 들이닥치곤 하여 벌써 잠을 잊은지가 오래였다.

이른 새벽 우유틈안개를 떠신고 소연히 굽이쳐 흐르는 산골짜기의 물소리가 숲속의 고요를 흔들어 깨웠다. 폭격에 허리를 꺾이온 통나무들이 열기설기 물속에 잠겨 툭툭 부풀었다. 나무아지에 매달린 바늘잎모양의 잎사귀들은 여직 생신한 푸른 빛을 띠며 이슬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늘 새벽엔 어째서 자꾸만 허탈일까?)

성희는 울상이 되어 은근히 속이 달았다. 반두에 걸리는것은 풀파위와 모래자갈뿐이었다. 물이끼가 낀 들서덕은 미끌미끌하였다. 그는 군복바지를 바싹 걷어 올리고 풀섶을 들쭉서 보기도 하고 돌바위를 흔들어도 보았다. 엷은 가제천이 되어선지 반두는 풀뿌리같은것에 걸릴적마다 늘어 나면서 꺾여지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전방에 고기그물이야 없는것은 당연하지만 이런줄 알았더라면 전선으로 떠나올 때 배낭속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왔을걸. 군의장동지는 정말 너무해. 달포전에 처음으로 만들어 쓰던 반두는 그래도 그럴듯 한것이였다. 그런데 지난밤 군의장이 아타가지 않았던가.

《집중사격구역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다니, 정신이 있소? 그래 부상병들과 같이 후방병원으로 실려 가고 싶은가. 잠은 안자구 다람쥐처럼 술술 빠져서 꼭두새벽마다 어딜 가는가 했더니... 허참, 상등병 정성희, 동문 이 시각부터 날이 밝을때까지 처벌이요. <군무중지>를 선언하오.》

천진스런 빛이 새물거리던 오목한 눈구석에 눈물방울이 가랑가랑 피여 오른 성희는 보풀이 인 입술을 감쌀며 훌쩍 훌쩍 울었다. 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명령》이였다. 군의장이 세상에 더없이 미워 죽을 지경이였다.

《군의장동진 부상병들의 입맛을 돌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을 왜 방해해나십니까?》

하지만 군의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다른 간호원들은 부상병들이 있는 병실로 가고 없었다. 성희는 카바이드등불이 어슴푸레 비치는 천막안에 홀로 남았다. 그 반두가 없다고 고기잡이를 못할줄 아나 보지. 그는 발이 성글어진 가제천조박들을 두루 모아 보았다. 유년시절 교향의 백학천

에서 총각애들이 반두질을 할적이면 그는 물기슭에 쪼그리고 앉아 흐리어진 물속을 벗어 나 황황히 내뺄는 고기떼를 보며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린것을 바구니에 담기도 하였었다. 조무래기들도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할건 뭐람.

적막과 의로움에 휩싸여 바느질을 하던 성희는 바쁘게 뛰어 다니던 그동안엔 미처 느껴 보지 못하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물밀듯이 몰려 와 온몸이 노근해 졌다. 잠이란건 왜 있담... 새벽... 시내물, 처녀는 깜박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편쪽 눈을 뜨고 다시 일손을 든 그는 어둑새벽 가만히 병동을 빠져 나와 강변으로 달려 온것이였다.

(여울물이 흐르는 강 웃쪽으로 올라 가볼까?)

집중사격구역에 감히 들어 와 물녘에서 어물거리는 처녀를 시가스르며 고기들도 어디론가 말짱 피해 달아난듯 싶다. 수림우에 드리운 희뿌연 하늘을 쪽 가르며 까마귀 한마리가 휙 지나갔다. (어마! ...) 그는 어깨를 움츠렸다. 금시라도 허공에서 포탄이 날아 와 물속에 처박힐것 같다. 조금만 더... 물살이 센 산골짜기는 성급하게 바빠 흘러 갔다. 군의장동지가 이 일을 알면 또 성낼거야.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해내지 않고는 못건디겠는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도 온 신경이 고개너머에 있는 군의소쪽으로 쏠리는것이였다. 지금 혹시 우리 병실 부상병들이 깨어나 날 찾으면 어쩌나...

성희는 자기가 말고 있는 1호병실 구석쪽에 자리잡은 한 부상병의 뒤통자거리리는 형상을 그려보았다. 저격수인 그는 담가에 실려 고지에서 내려 올때부터 전투장을 뜨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려 성희의 속을 태웠었다. 수술을 하여 총탄에 부러졌던 팔목뼈가 이어 붙어 이즘은 병세가 호전되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의 마음은 서둘러 고지에 가있었다. 그래서인지 엇그제 아침에는 봉대끈에 의지한 팔을 목에 건채 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그를 찾아 온 산속을 헤매이지 않았던가. 전우들이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고지로 가겠다고 강짜를 부리는 그를 겨우 달래여 데려 오긴 하였지만 그때문에 늘 원심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성희는 그의 병실로 들어 갈적마다 그 부상병이 있는가부터 보았다. 그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까딱 앉고 있었다. 점심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난 뒤였으나 그의 머리맡에 놓인 밥식기는 뚜껑이 닫힌채로 있었으며 국그릇도 그대로였다.

모포안에서 들리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똑 멎었다. 부상병들은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간호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뭐 전선으로 보내 달라구요?》

처녀는 자못 성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여느때처럼 맑고 쟁쟁하였다.

《흥, 군의장동질 따라 다니면서 암만 줄라도 어림도 없어요. 이 식사를 다하기전엔…》

《…》

《왜 말 안해요? 들었어요?》

긴 몸체가 움찔하더니 성가스러운 늘어진 목청이 들리었다.

《거 잔소리두 참. 우리 동네 우물집 아낙네같이… 제길!》

《뭐라고요? 말 다했어요? 에이 정말…》

성희는 그의 어깨박죽이며 등을 조그만 주먹으로 두들겨 댔다. 그 다음 모포자락을 벗기려고 그의 머리부위에 손이 닿을 때 처녀는 흠칫하였다.

《어마, 열이 있네. 보라고, 이런 몸으로 어떻게 싸운다고 그래요. 정말 한심하네. 잡숫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요. 그리고 속내의랑 뒹어 쪼던데 벗어놓으세요. 빨아드릴게…》

산너머 고지쪽에서 포소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하였다. 여울목으로 거슬러 오르던 성희는 무춤거리었다. 풀부스레기며 나무뿌리줄기들이 떠내려오는 물결에 휘감긴 장판지부위에 어떤 매끈한 감촉이 스치었다. 순간 찢터한 흥분이 온몸에 쭉 뻗어 갔다.

흐리여진 물바닥에서 새끼손가락만큼 가늘고 감실 감실한것들이 지느러미로 다리살갓을 어루만지며 떼지어 내려 가고 있었다. 찰나, 성희는 물속에서 헤엄버쳤다. 모래와 물이 뒤범벅이 되고 물방울이 튀겨 올랐다. 불품없이 헤어진 반두안에 한웅큼이나 뒹직한 작은 고기들이 파들쭈거리고 있었다. 종개, 똑치 그리고 요건…

(됐어! 인젠 됐어! 갑자기 몸이 왜 이리 가누기 힘들가. 집중사격구역을 빨리 벗어 나야 할텐데.)

성희는 군복잔등이 축축한 감을 느꼈다. 온몸의 기력이 끊임없이 새어 나와 저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것 같았다. 물기슁은 향해 휘청휘청 걸어 가던 그는 내가의 한가운데 넘어져 있는 솔나무에 시선을 멈추었다. 저 솔잎사귀를 찌서 저격수동무의 상한 허리에 붙여 주면… 그는 다시 물속에 들어 섰다. 저기 강웃쪽에서 군복을 입은 작달막한 웬 사람이 장대기로 강바닥을 이곳저곳 마구 쭈셔놓으면서 물가운데로 내려 오고 있었다. 성희는 가슴이 죄여드는 감을 누르며 그쪽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그 사람은 물넋에서 몸을 수긋하고 걸어 붙였던 바지

가랭이를 내리우고 있었다. 누굴가? 허리를 뚫다. 군의장이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나?)

군의장은 지난밤 성희에게 《근무중지》를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는 짐짓 엄중한 표정을 짓고 이쪽으로 슥스릭 걸어 왔다. 성희는 반두를 슬그머니 몸뒤로 가져갔다. 《저 빨래를…》 그때 한쪽발이 미끌면서 몸이 휘친하는 바람에 손에 쥔것이 물위에 털썩 떨어졌다. 《저런?!》 군의장은 어쩔새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뚱뚱 떠내려 가는것을 붙잡았다.

《하마트면 되려 놔줄번 했군.》 그는 부석부석한 얼굴로 히죽 웃었다.

성희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비는 장난꾸러기의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 보았다.

《잘못…했습니다. 군의장동지…》

《흠, 처벌이 가벼웠던가부지. 응?!》

《다신 안그러겠…》

《좀 꼭 잘것이지. 다람쥐같은것… 물이 차지?…》

《?! …》

성희는 별안간 눈굽이 뜨끔하였다.

군의장은 군복가슴주머니를 뒤적이며 혼연스레 말했다. 《어제밤 담가대로 고지에 올라 갔는데 그곳 친구들이 동무한테 뭘 보내더군. 그걸 전해 주려고 병실에 갔더니 어디 있어야지. 자, 화선친구들이 보낸 편지요.》

《그렇습니까! 야…》

《자 편지를 보오. 그럼 우리가 보내는 복무의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될게요. 전사들의 누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성희는 병동을 향해 냅다 달리었다. 단발머리 뒤꽂지를 가튼히 줄라 맨 하얀 삼각수건이 머리뒤에서 흰 나비처럼 팔랑거렸다.

박우물 맑은 샘터에

마을처녀 나오다가

…

수림속을 꿰질러 명랑한 곡조를 날리며 달음질하는 성희는 완쾌되어 전선으로 떠나보낸 병사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마주 달려 오는것 같았다. 다들 건강했어요?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처녀는 이팔나무들이 우거진 안침진곳에 들어 앉은 군의소천막안에 나는듯이 뛰어들었다. 누구의 편지일가? 성희는 주사기를 소독하곤 하던 화독우에 군용밥통을 올려 놓고 물을 부었다. 전우들의 편지를 읽느라면 그동안 물이 끓을것이고, 그러면 생선을 넣고… 저격수동무에게 그 생선국을 대접하면 밥맛이 돌아설가? 저 편지들은 누구거람?

성희는 곁봉에 썩인 이름만 보아도 그 병사의 얼굴이며 성격이며 부상자리마저 떠올라 그가 누구인지 인츰 알아 맞힐것 같았다. 그는 화독결에 오금을 꺾고 앉아 첫번째 편지를 펼쳐 보았다. 인제는 사나이들의 부대낌과 체취가 어지간히 몸에 배이다싶이한 그였던만 어떤 일인지 자꾸만 숨이 가빠 올랐다. 전쟁마당에서 갖 치녀시절을 맞이하여 난생처음 받아 보는 편지가 아닌가. 치녀는 생긋이 웃음지며 전우들의 숨결을 빨아 들였다.

정성희간호원동무, 나는 달아 오른 중기관총 령각수처럼 뚫어 번지는 감격을 왜 그런지 동무와 함께 나누고 싶어 군단지휘부에서 돌아 오자마자 이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나는 여섯명의 전우들과 함께 XX고지를 마지막까지 사수한 공적으로 영광스럽게도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습니다.

(아니?! ) 성희는 벌떡 일어 섰다. 숨막히는듯한 기쁨의 물결이 가슴벽을 들이 쳤다.

(믿었어요.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리라고 믿었어요. 군의소앞에 핀 들국화꽃송이를 꺾어 들고 고지로, 동무들에게로 달려 가고 싶어요.) 치녀는 자그마한 천막안을 오락가락 하며 띄창유리에 비친 구름너머 먼곳을 바라보았다. 나도 언제면 동무들처럼 그렇게 위훈을 세울수 있을가요.

...50년 가을, 그곳 군의소에 《간헐》을 때 (용서하십시오.) 동무의 극진한 정성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중기사수 김유진은 동무에게 병사의 경례를 보냅니다.

(김유진??)

치녀는 뜻밖에도 당황해났다. 누구던가? 지형학에 밝으며 무엇인가 늘 소책자에 적곤하던 그 안경 쓴 아바이전사일까? 혹시 그림 잘 그리던, 전선에는 사진관이 없다면 군복 입은 나를 그려 주며 고향에 보내라던 그 엄살쟁이가? 누굴까? 나와 동갑이라며 너스레를 떨던 그 우뚝쟁이? 우린 하루에도 수십번씩이나 티각태각했지... 호호, 왜 생각 안날까. 이 안타까비같은것.)

하지만 치녀는 그 병사의 생김새도 목소리도 기억속에 전혀 되살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잘 알아! 알고말고...)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혼자 즐거운 생각에 잠겨 있던 치녀는 내치글줄을 더듬어갔다.

그날밤, 기나긴 그밤에 밖에서 내리는 가을비는 얼마나 세차게 천막을 두드리던지. 비물이라도 실컷 들이켰으면... 수술대위에 누웠던 나는 몸부림치는 고통과 갈증속에서 오로지 그 한생각뿐이었습니

다. 죽음의 악마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 들었지만 나는 그에 항거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파편투성이인데다 고지에서 후송될 때부터 심하게 출혈하여 온몸의 피마저 다 빠져 버린듯 했으니까요. ... 초불처럼 가물가물 스러져 가는 의식속에 뼈를 까는 소리사이로 <군의장동지, 저의 피혈이 O 형입니다!>하고 막 애원하는것 같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누이동생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젖은 음성같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 내 머리맡에서 울리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노래소리같은것이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는것이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촌...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먹이면서 부르는 그 음향과 함께 내 얼굴우엔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습니다. 천막에 구멍이 난게 아닌지? 라는듯한 갈증에 시달리던 나는 가가스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머리맡에는 남쪽에 있는 고향의 누이동생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지켜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시절 비둘기를 잡으려 교회당지붕우에 오르다가 떨어 졌을 때 사흘동안 눈 한번 붙이지 않고 한시도 아들결을 떠나지 않던 그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어머니! 이 아들은 죽지 않을겁니다. 꼭 살아 날겁니다!>하고 속으로 부르짖었으나 그의 눈동자에선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간호원동무였습니다! ...

(어마, 아이 참! ...) 성희의 두볼우엔 오미자단물의 발그스레한 그 빛갈이 물들어 졌다. 치녀는 옆머리칼을 조용히 쓸어 넘기었다. 내가 정말 그랬던가?

군용बाट에서 가느다란 김발이 새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이, 이 정신 봐. 성희는 날렵한 동작으로 생선을 끓는 물에 넣고는 화독밑에 얹드려 입바람을 불어 넣었다. 재민지가 혹 들썩위지며 눈알이 짙갈래 갔다.

문득 밤동안 일시 떨어 졌던 담담환자들이 못견디게 보고 싶어졌다. 1호병실쪽으로 총알같이 뛰어간 치녀는 천막앞에 거의 이르자 조용조용 발끝걸음으로 다가가 살며시 귀를 기울이었다. 잠을 켜 부상병들이 부시럭대고 있었다.

《이보게 까칠봉소대장, 난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정식 굶으려네. 그래야 이 아픔이 푹 멎을것 같구만.》

《꺾다니, 세상에 그런 치료법두 있나?》

《있지. 놀라진... 성희동무한테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게 아닌가. 요전번날 동무처럼 말야.》

《헐, 그때야 진짜루 되게 앓아서 그런건데 괜히 그러지 말라구. 그 치녀를 집중사격구역에 들어 보내서 경을 치자구 그래.》

《쉬워, 나두 말이야, 그한테 한번 좀 걸려 봤으면 해서 그러는게야.》



《뭐라구? 허허 참.》

《하하하.》

안에서 터져 오른 폭소에 온 천막이 다 들썩거렸다. 중환자처럼 꾸며 보자는거지. 흥, 내가 모를줄 알구. 헌데 그 저격수동무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을가? 지금 이 시각도 침상에 엎드려 끄끙 가슴앓이를 하는지도 모른다.

성희는 총총히 되돌아 와 환자의 이마를 짚어보듯 초조한 심정으로 군용밥통을 만져 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다음 편지를 펼쳐 볼 무렵 급작스럽게 피창을 세판게 두드리는 손가락이 울렸다. 주먹으로 광광 들부시는듯한 그 소리에 화딱 놀라 창을 열려고 성큼 걸어 갔다. 구급환자인가?

천막을 들추는 소리에 흠칫 되돌아 보았다. 땀병복장을 한 역대우같이 헌걸차게 생긴 병사가 육중한 몸체를 구부정하고 쑥 들어 왔다.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바위돌》은 위협하듯 낯은 《어린 나무》앞에 떡 막아 섰다.

《안녕하오, 간호원동무!》

《?!》

중사는 땀병코를 벗어 쥐더니 큼직한 손을 내밀었다. 웃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우에 찰싹 달라붙은 그는 구면친구라도 대하듯 히물히물 웃고 있었다.

《잘 있었소? 여전하구만. 크레졸냄새랑... 동무랑...》 그의 거뭇거뭇한 턱밑은 땀방울이 내배여 번질거렸다. 《전선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소. 왜 그리 찬찬히 보우? 침 보는 사람처럼...》

건장한 그의 몸체에선 땀내와 연유냄새가 한데 섞여 물씬 풍겼다. 어데선가 꼭 본듯한 사람같은데? ...

《저 누구신지? ...》

《누구라니, 이거 참, 모르는척 하지 마오. 울보동무!》

《네?! 어마...》

《그래 내가 생각 안나우? 그때 기총탄이 우리 병실을 뚫고 들어 왔을 때말이요. 그날 동문 열명이나 되는 부상병들을 들쳐 업구 저쪽 은폐호로 뛰어갔었지. 그때만 해도 난 중환자였소. 탄알이 비발치는 속으로 동문 나를 업구 전호로 운반하였는데... 갑자기 내 이 넓적다리에 총알이 박혔더랬지요. 지혈시키자니 봉대가 있어야지. 그 순간에 동문 그... 소...속내의를 찢어서 구급처치를 했는데 이 무거운 걸 질질 끌고 가면서 <황소같은거. 황소... 황소.> 하면서 막 울지 않았소.》

《아, 95키로?!》 그제야 비로소 그를 알아 본 처녀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생각나요. 인제야 생각나요. 중사동진 그때 날 보고 고향에 가서 엄마젖을 더 먹고 오라고 하면서 찍하면 날 울려 놓군 하던 그 익살군이였지요? 인제 그때보담 체중이 서너키론 더 불었겠네. 맞지요? 호호, 야 정말 반가워요!》

성희는 고무공처럼 튀어 오르며 그의 우람진 체구에 매달려 팔소매를 부여 안고 마구 흔들었다. 《여, -아직 멀었어?》 바깥에서 웨쳐 대는 거센 목소리에 처녀는 피곳 피창을 열어 보았다. 꼬리를 물고 늘어 선 땀병들, 옷뚜껑을 제끼며 불쑥 불쑥 몸을 솟구고 이쪽을 바라보는 땀병들... 앞쪽에 선 땀병포신우에 걸터 앉은 땀병이 《왜 세웠나?》 하고 뒤에서 소리지르는 물음에 《1분간만 참으라구. 우리 운전수친구가 간호원동무를 잠깐 면회하러 갔네. 자기 생명을 건져 준...》 그리고는 한쪽눈을 끔찍하였다.

중사는 군복가슴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쥐고는 망설이듯 한동안 우물쭈물했다. 녀교원앞에선 남학생처럼 그러고 있던 그의 입술이 뜨직뜨직 열리었다.

《군의소를 떠날 때 동문 나한테 이 빨간 대추를 쥐여 주면서 <우리 집 앞뜰에 심었던거예요. 폭격에 그 나무 뿌리채 없어졌어요.>하고 말했었지요...》

군용밥통에서 뽀얀 김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며 칙칙 소리를 내었다. 《아니?》 성희는 닝큼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앗, 뜨거워.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고는 조금 떠서 입술에 대보았다. 별써 구수한 맛이 도는것 같다. 지금쯤이면 그 저격수동무가 일어났을가. 처녀는 더운 김과 땀방울이 한데 맺혀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로 다시금 중사앞에 마주섰다. 그의 손바닥에 말라 조그라든 대추 한알이 놓여 있었다.

《야, 이 달콤한걸 우리 병실 동무들에게 먹이면 얼마나들 좋아할가요.》

중사는 거무점점한 낮을 찌프리며 어색하게 웃음지었다. 그는 어쩐지 서글픈 눈길을 떨어뜨리며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환자가 왜야 그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겠군.》 그의 눈부위는 점점 이그러졌다. 그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난 원썬놈들을 저 땀병로 짓밟개버리면서 동무가 준 이 대추를 씹었더랬소. 그때마다 왜 그런지 내결엔 늘... 동무가 있는것 같았소. 이 역대우를 돌보면서 말이지. 다시, 또다시 부상당해 죽는다고 해도 겁나지 않더군. 왜냐하면 성희가 날... 또... 살려 놓을테니까! 물론이구말구요... 참 생선국냄새가... 좋구만. 유별나게... 이 화선에서! ...》

성희는 충혈진 눈길을 치여들고 그를 쳐다 보았다. 마치 눈겨름이라도 하듯 뚫어지게 봐 보는 그의 우렁한 눈확속에서 맴돌던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굴러내리었다.

돌연, 성희는 저도 모르게 찌르르 저려 오는 눈시울을 들어 땀방울을, 걷어 붙인 팔소매가 터질 듯이 부푼 울근불근한 근육이며 병색이라곤 한점도 찾아 볼수 없는 혈색좋은 얼굴이며 건강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이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전선으로 달려 나갔던가. 그 무쇠같이 억세고 체통 큰 대장부들이 과연 나의 작은 애무, 나의 조그만 손길에 의해서 소생하였단 말인가. 나의 친오빠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우리의 병사들-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바친것이 얼마라고 나를 이렇듯 못잊어하는걸가.) 그러자 성희는 지난 밤 군의장이 준 《취침처벌》이며 중기사수의 격동적인 환희며 땀방울의 눈가에 그렇그렇하니 고인 눈물이며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상병들의 뒤소리조차 형언할수 없는 후두운 감정을 자아내는것이였다. 처녀는 어떤 불덩이같은것이 울컥 북받쳐 올라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병사들의 심장이란 다 이런가 봐! 뜨겁게 불타는... 열정의 힘이 있기에 우린 승리하는거야.)  
《...》

피창밖에서 《여, -빨리!》 하고 다급히 웨치는 소리가 들이닥쳤다. 《젠장!》 중사는 땀방울을 주물럭거리다가 허공을 뚫 내리 그었다. 천막을 들추는 소리, 병실안이 흰해졌다.

《아니?》 성희는 어망결에 황망히 그를 따라 밖으로 뛰쳐 나갔다.

중사는 땀방울의 몸체위로 오르고 있었다. 《또 우나? 그 처녀가...》 포신우에 걸터앉았던 땀방울이 그의 팔을 잡아 당긴다. 《울기야 뭘...》 예전처럼 웃음발이 넘실거리는 표정으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난 중사는 운전칸에 들어 가려고 모자를 꼭 눌러 쓴다.

《그래 이 포신우에다 봉대랑 속내의랑 말리워 주겠으니 꼭 기다리라고 말했나?》

《왜 그런지 허가 자꾸만 굳어지더군.》

《에잇, 못난이같이... 자네 같으면 난 땀땀이 말하겠네...》

《아니, 난 그런 고결한 처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도 행복해.》

《금별메달은 보여 주었겠지.》

《아니 그것도 말 못했어. 젠장, 자, 출발!-》

온 군의소가 떠나갈듯이 지동치는 발동기소리. 땀방울의 무한궤도가 성희의 곁을 굴러 가기 시작했다. 아이 어찌나? 그는 철갑속에 찾아든듯 더는 보이지 않는다. 조국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먼 전선으로 떠나는 그에게 작별인사도 못하고... 처녀는 몇걸음 따라 가다 말고 무춤 서 버렸다. 전승의 날까지 제발 무사하였으면!

땀방울우에 웃음을 세운 땀방울들이 병글거리며 성희를 향해 팔을 휘저었다. 《고맙소!- 간호원동무!-》 아침해살이 퍼지기 시작한 청신한 수림속 공간에서 연분홍빛의 작은 꽃송이가 날아 왔다. 하나, 둘, 셋... 그들은 갖가지 들꽃들을 성희의 머리위에 뿌려 던지며 련이어 지나갔다. 그가 선 발치아래 파아란 잔디우엔 장미빛 점들이 피어 오르고 파르스름한 배기가스연기가 서려 올랐다.

《우리 중사동진 영웅이 뻬소! -》 멀리서 웨침소리가 들려 왔다.

성희는 땀방울 군복앞가슴에 꽃송이를 부여 안고 무한궤도자욱이 선명한 길가운데 들어 서 숨가쁘게 소리쳤다.

《뭐라고요? 이자 뭐라고 말했어요?-

영웅? 그가 영웅이라니?! ...》

새벽 산책을 하고 있던 부상병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껄껄 웃음 짓는다.

성희는 온 얼굴이 새빨간 딸기빛이 되어 쫓기듯 달음박질하였다. 천막주변에 떠도는 고기 탄내에 문득 놀란 그는 밥통뚜껑을 열어 보자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다. 국물은 어느새 다 졸았는지 밀굽이 거뭇게 타 버렸다. 이 일을 어쩔담. 처녀는 터갈라진 입술을 옥물고 소리없이 흐느껴 울었다.

(난 정말 안타깝비야.) 맑은 눈물방울이 군용밥통우에 후두둑 떨어져 부서지였다.

대지를 뒤흔드는 땀방울들의 우렁찬 동음은 점점 멀리 남쪽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부디 잘 싸우세요. 승리의 날 우리모두 열병식장에서 영광의 보고를 올리자요. 유진동무도... 저격수동무도 다 같이...》

성희는 불현듯 천막쪽으로 뛰어 갔다.

(그래그래. 난 귀중한 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수 없어. 전사들이 내 손을 기다리는데...)

성희는 문득 새벽에 군의장이 하던 말을 되새겨 보았다. 그럴수록 그의 걸음걸이는 빨라 졌다.

# 군모의 붉은 별

리옥순

군복 입은 내 모습  
내 눈으로 보고파  
거울앞에 마주 서니  
제일 먼저 안겨 오는  
군모의 붉은 별

아버지 군모의 그 오각별  
오늘은 내 머리에 빛나고 있구나

어깨동무 내 동무 춤추며 노래하던  
철 없던 유치원시절  
선생님 달아 주던  
빨간 오각별엔 자랑도 많았어라

소년단벚타이 매고 뛰놀던 그 시절  
휘장속의 붉은 오각별은  
최우등의 영예로 더욱 빛났더라

허나 군복 입은 오늘엔  
수호자의 맹세  
병사의 의무를 새겨 주는  
군모의 별이여

우리 쉽게 말하지 말자  
그 별의 무게  
그 별빛의 영원함을 다 안다고

그 별의 무게에  
사령부를 옹위하여 한목숨 바친  
오중훈 7련대의 심장과 심장들이

그대로 합쳐 저 있고

그 붉은 별빛엔  
불을 뿜는 적의 화점에 육탄으로 날아 든  
우리 할아버지들의 붉은 피 그대로 어려 있거니

병사의 의무 다 하기전에  
피로써 승리를 떨치기전에  
그 별의 무게 내 안다고  
그 별빛을 빛내었다고 말하지 말자

총잡은 새 세대들아  
안겨 자란 그 품을 지켜  
받아 안는 그 사랑앞에  
제 몫을 다 해야 할 우리 차례가 왔다

아버지장군님 위하여  
어머니 내 조국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길 서슴지 않으리라

하여 대를 이어 빛나는  
그 붉은 오각별의 무게에  
내 작은 심장의 무게를 합쳐 가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별빛을  
내 심장의 끓는 피로  
더욱 붉게 물들이리라

아 별처럼  
내 심장이 높뛰게  
내 삶이 영원하게

## 승냥이가 맨 《금빛넥타이》

박상용

어느날 원숭이가 키 높은 나무우에 앉아 있는데 승냥이가 슬렁슬렁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흥, 네깐놈이 아무리 사납다 해도 오늘은 나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할걸.)

원숭이는 배포유해서 승냥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승냥이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팔자걸음으로 나무밑에 바투 다가섰을 때 원숭이 눈이 덩돌해졌습니다.

승냥이의 목에 여느때없이 길고긴 이상한 넥타이가 매여져 있던것입니다.

원숭이는 승냥이를 내려다 보며 제법 혼시했습니다.

《승냥이야, 무슨 넥타이를 그렇게 댔니? 땅에 철철 끌리게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너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바보같구나.》

그러자 승냥이는 원숭이를 쳐다 보며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보니 넌 나무아래 세상물정은 영 깜깜인걸. 이게 바로 요즘 유행되고 있는 신식넥타이야. 이렇게 매는 법부터가 다르거든.》

《뭘, 신식넥타이?!》

원숭이가 눈여겨 보니 그 넥타이는 번쩍이는 금빛바탕에 진주보석이 다문다문 박힌 아주 멋들어진 넥타이였습니다.

《아마 네가 이 금빛넥타이를 매면 그 바람으로 때를 쪽 벗은 멋쟁이신사가 될걸.》

그러지 않아도 번쩍거리는 금빛넥타이는 원숭이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원숭이는 더는 참을수가 없어 간청했습니다.

《승냥이야, 그 넥타이를 나두 한번 매보자꾸나. 응?》

《뭘, 이걸 네가? 안돼. 안돼. 아무리 탐나두 그런 식으로 뺏진 못해.》

승냥이는 펄쩍 뛰며 손을 뻗혀 내저었습니다.

《쳇, 이렇게도 믿지 못한다구야. 글썄 딱 한번만 매보고 준다니까...》

원숭이의 지꿨은 성화가 정말 귀찮다는듯 승냥이는 넥타이를 벗어 들었습니다.

《그럼 딱 한번만이야!》

금빛을 휘뿌리며 날아 오른 넥타이를 냉큼 받아 쥔 원숭이는 제격 목에 매었습니다.

한데 바로 그 순간,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 졌습니다.

승냥이의 발밑에 깔린 원숭이는 그제야 점점 제 목을 세계 조이는 《금빛넥타이》가 그대로 올라미였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바보였구나. 넥타이와 올라미를 가려보지 못하다니...)

원숭이는 제 잘못을 통탄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